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전 세계 교회가 개혁을 부르짖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하는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함을 이루어 부족함 없는 믿음의 성도를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에베소서 4장 13절

□ L.A. :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56 Email: lachpress@gmail.com
□ N.Y. : 143-17 Franklin Ave. 5Fl.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gmail.com

www.chpress.net

주후 2017년 1월 21일 (토) 제 1618호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교회가 미국사회 인종갈등 해결책”

바나리서치, 영적 진보, 제자도, 성경에 대한 흑백 교회공동체 시각차 밝혀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는 언젠가 이렇게 말했다, “기독교 국가인 미국에서 가장 인종 차별이 이루어지는 시간은 바로 주일 오전 11시다.” 화해와 용서로 전제로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공동체에서 인종 간 갈등이나 차별이 아직까지도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특히 퍼거슨 사태 이후, 본격적으로 불거지고 있는 흑백간의 갈등과 긴장은 미국사회를 계속 몸살 나게 만들고 있다.

바나리서치는 흑백간의 갈등과 긴장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 현 상황에서 영성훈련 즉 제자도에 대한 이해나 공감대 형성 역시 두 인종 간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발견했다. 이처럼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 상이한 차이를 먼저 파악해야 킹 목사가 꿈꿨던 모두가 하나 돼서 드리는 예배가 성취될 가능성이 있다 (Racial Divides in Spiritual Practice).



미국사회 인종차별은 교회공동체가 신앙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미국내 모든 기독교인들이 공감하고 있는 결론이다.

먼저 “영적 진보”가 무엇인지 알아본다.

물론 해석상의 차이는 일반적으로 있을 수 있지만, 흑백 크리스천들이 보여주는 차이가 분명히 있다. 흑인 교회 지도자들은 영적 진보와 정을 “영적 성숙(31%)”이라고 본다. 반면에, 백인교회 지도자들은 “영적 성장(21%)”이라고 말하고 있다. “성숙”은 내적 변화를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 삶에서 경험을 통해 얻는 지혜의 발전을 말하고, “성장”은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쏘대에 가기 위한 접근을 말한다.

이러한 전제에서 “제자도”를 정의하자면, 백인 크리스천들은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 배우는 과정”이라고 정의하면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은 성령의 힘으로 지키면서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말한다. 그러나 흑인 크리스천들은 “조금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 말씀과 성경 그리고 상황을 통해 변화되어지는 과정”이라고 말한다.

흑인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 영적 진보는 어떠한 목적들을 이뤄내는 것보다 삶에서 얻는 경험에 초점을 더 둔다. 즉 바람 잘날 없는 인생이라는 굴곡에서 예수와 같은 인격을 만들어 간다고 보고 있다.

경험에 대한 이러한 강조는 곧바로 영적 성장을 위한 동기부여 기제가 된다. 물론 흑백 모두가 유사한 바람들을 갖고 있지만, 흑인 크리스

천들은 자신들의 힘들었던 삶의 순간들 자체가 바로 영적으로 성장하게 만들어 힘든 순간들을 이겨내게 됐다고 말한다(34%, 백인-27%).

그러나 힘들었던 삶의 경험들이 항상 영적으로 깊고 진지한 성장을 만들어 내는 토양이 되지는 않는다. 오히려 영적 성장을 힘들게 하는 방해 요소가 된다.

예를 들어, 흑인 목회자들은 백인

목회자들에 비해 “과거에 있었던 일들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자신들이 시무하고 있는 교회 회중의 영적 성숙을 이뤄내고 있지 않다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이다(64%, 백인-42%).

그렇다면 제자도를 추구하는 과정에도 차이가 있을까?

많은 유사점에도 불구하고, 흑인 교회 지도자들(85%)은 백인

(71%)에 비해 제자도의 목적을 “교육과 친교를 통해 개인의 신앙을 정제해가는 과정”이라고 본다. 좀 더 자세하게 분석하자면, 흑인 크리스천들에게 친교는 바로 맨토십이다. 19%의 백인들에 비해 38%의 흑인들은 다른 크리스천에 의해서 훈련이나 맨토링을 받고 있다. 반면에, 백인들은 자신들(39%, 31%의 흑인들에 비해) 스스로가 제자도를 위해 달려가고 있다. 따라서 흑인들에게 그룹 단위의 제자도 훈련 마당을 선호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32% vs. 22%). 결국 흑인들에게 있어, 대규모 성경공부나 토론그룹(18% vs. 4%), 가족 구성원들(71% vs. 61%)이 영적 발달을 이루는데 있어 “아주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설문 결과들을 통해서, 흑인 공동체들은 영적 발달을 위한 “공동체적 리듬”에 치중하고, 백인 공동체들은 조금 더 개인적인 환경을 선호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백인들은 영적인 삶을 “전적으로 사적인 영역”이라고 본다(42% vs. 32%). 반면에, 흑인들은 한 개인의 영적 삶은 친척이건, 친구이건, 커뮤니티나 사회 전반이건 영향을 준다고 이해한다. 그래서 흑인들은 자신들의 영적 생활이 지역 사회에 영향력을 준다고 말한다(46% vs. 27%).

또 다른 영적 성장을 위한 수단은 바로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다.

흑인들은 성경의 권위를 순순히 수용한다. 백인들에 비해(48%), 성경을 “모든 일에 가르치기에 결함이 없는 완전히 정확한 말씀”이라고 말한다(59%). 따라서 성경을 일관되게 공부하는 것(63% vs. 45%), 말씀 암송(46% vs. 16%)에서도 백인들을 앞서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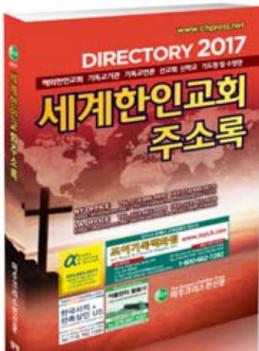
또한 흑인들은 개인의 영적 성장에 성경공부가 중요한 역할을 다한다고 본다. 따라서 암송, 묵상, 주어진 성경공부 과정을 준수하는 것에서 백인들에 비해 높은 참가율을 보인다.

(3면으로 계속)

사 고

‘2017년 세계한인교회 주소록’ 배포

본지가 발행한 ‘2017년 세계한인교회 주소록’이 배부되고 있습니다. 각 지역 배부 장소에서 무료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개인이나 교회에서 전화나 이메일로 신청하시면 우송해 드립니다. (우송료 별도)



지역별 배부장소

▶ 뉴욕, 뉴저지 지역

한국서적 (718) 762-1200
할렐루야 기독교책점 (718) 762-0011
할렐루야 기독교책점(NJ) (201) 373-0029

▶ 서부지역

기독교서적센터 (323) 737-7699
도르가기독교서점(OC) (714) 636-7430
생명의말씀사(OC) (714) 530-2211
복음사(OC) (562) 865-4949
두란노서적 (213) 382-5400
조이기독교책점 (213) 380-8793

▶ 기타지역

커네티컷 하트포드 제일장로교회 (860) 643-4738
일리노이 시카고기독교방송국 (847) 583-0191
메릴랜드 지구촌교회 (301) 460-1656
버지니아 주예수교회 (804) 560-7500
필라델피아 영생장로교회 (215) 542-0288
텍사스카운티장로교회 (215) 945-1512
노스캐롤라이나 전기현회계사 (704) 332-5656
북가주한인기독교티비 방송국 (408) 433-0001
조지아 아틀란타생명의말씀사 서점 (678) 957-1021

▶ 미주크리스천신문사

NY사무실 (718) 886-4400
LA사무실 (323) 665-0009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온라인으로 공부합니다”

학 사: 성서학과, 기독교상담학과
석 사: 목회학과 (M.Div), 신학과, 기독교상담학과
박 사: 목회학과 (D.Min)
수료증: 가정상담 사역자, 유아교육 교사/원장

ATS 정회원
월드미션대학교 온라인 프로그램
www.wmu.edu

월드미션대학교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admissions@wmu.edu, 213) 388-1000



2면

전세계 크리스천 박해지수 3년
째 악화!



7면

종교개혁 500주년
조진모 목사



8면

리더십 코멘터리
손동원 박사



14면

세계한인기독교인문학회
제 2회 독후감 공모전 수상작



16면

종교개혁 500주년...
개혁자들의 발자취를 따라서

Bethesda University

<OPEN HOUSE>

DATE & PLACE:
Jan 21, 2017 (Sat), 12:00~3:00 PM
730 N. Euclid St. Anaheim, CA 92801
(INTERSECTION - EUCLID, NEAR I-5)

SPECIAL INCENTIVE:
APPLICATION FEE WAIVED FOR OPEN HOUSE ATTENDEES

BRING FRIENDS AND FAMILY AND JOIN US FOR AN OPEN HOUSE, LEARN ABOUT OUR PROGRAMS AND ENJOY FREE REFRESHMENTS!!!

CONTACT:
(714) 683-1207 / www.buc.edu

APPLICATION FEE WAIVED FOR OPEN HOUSE ATTENDEES

- Learn about Programs and Degrees
- Meet with Professors
- Financial Aid & Scholarship
- Some Degrees Offered Online
- SEVIS I-20 for International Students

* Certificate E.S.L Certificate / Childcare Director & Teacher

Theology Offered Online degree	• BA: Pastoral/ Biblical Studies/ Christian Education • M.A in Biblical Studies/ M.Div. • D.Min
Music	BA/ M.A. Piano/Organ/Voice/Instrumental/Composition/Jazz Praise Ministry/Contemporary Music/Musical
Early Child. Education	BA/ Certificate Childcare Director/ Teacher
Business	BA: Business Administration MBA
Legal Administration	BA: Business Admin Concentration: Legal Administration
Sports Management	BA: Business Admin, Concentration: Sports Management
Sport Teams	Current Sports • Soccer: Mens & Womens • Basketball: Mens & Womens • Baseball: Mens

*Estimated Tuition: Full time Undergraduate (12 units) \$3012, Full time Graduate (9 units) \$2655

전세계 크리스천 박해지수 3년째 악화!

오픈도어, WWL 2017 발표 통해 '이슬람극단주의 및 민족적국가주의가 원인' 보고

오픈도어(Open Doors)는 6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인해 박해를 당한 기독교인들을 섬기고 있다. 소비에트 철의 장막 뒤에 성경을 밀수함으로써 사역을 시작한 네덜란드 선교사 앤드류 형제에 의해 설립된 후로, 현재 오픈도어는 수십 개 국가의 박해받는 크리스천들에게 정신적, 물질적 지원을 제공하며 20개국 이상에 사무실을 두고 있다.

해마다 발표하고 있는 "세계박해순위(World Watch List)"는 개인, 가족, 지역사회, 국가 및 교회의 다섯 가지 삶의 영역에서 크리스천들이 당하는 압박을 수치로 계산한 결과다. 그리고 이와 별도로 오픈도어는 크리스천들에 대한 폭력을 측정하는데, 보통 박해의 파괴적인 요인으로 간주되고 있다. 많은 신문의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공습과 포격, 총성이 이에 해당한다. 박해지수에 산출하는 방법과 국가 간 비교 방법은 국제종교자유연구소(International Institute for Religious Freedom)에서 독립적으로 감수를 받고 있고, 일부 샘플 국가에서 그 결과를 확인하고 있기에 객관적인 자료로 분류된다.

오픈도어는 '2016년 세계박해순위를 통해 3년째 박해 압박이 악화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기존의 이슬람 극단주의뿐만 아니라, 아시아에서 일고 있는 민족적 국가주의(ethnic nationalism) 때문에 크리스천들이 불이익이나 박해를 받고 있다고 전한다('Worst Year Yet': The Top 50 Countries Where It's Hardest to Be a Christian Islamic extremism now has a rival, according to 2017 World Watch List)

경제 부흥과 힌두교 순결에 대한 비전을 높이고 국민들의 지지를 얻어내며 비효율적이고 부패한 인도민족회의(Indian National Congress Party)의 공백을 메웠다.

한편 북한은 다시 1위를 차지해 14년 연속으로 부동의 기독교 박해국가 영순위라는 명예롭지 못한 타이틀을 지키고 있다. 평양 독재 정권의 종교에 대한 적대감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신자들은 완전히 지하에 갇혀 있으며, 대부분 연결이 끊어져서 그들의 가족들도 서로의 신앙을 숨겨야만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2017년에 상위 10위에 새롭게 진입한 국가는 예멘뿐이다. 지난해 11위를 차지했다가 올해 9위를 차지했다. 예멘 내전에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개입하고, 다국적 폭격 캠페인을 이끌었다. 이로 인해, 2014년 시아후티(Shia Houthi) 반란군이 수도를 공격한 이래로 폭력 사태에 시달려왔고, 시골 산간지역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희생됐다.

이 나라에서 개종은 죽음과 직면하게 된다. 기독교인들은

WWL 상위 50개 국가에서 총 인구는 48억9천만 명이며 총 기독교인 수는 6억 5천만 명으로 추산된다(13%).

이 6억5천만 명의 기독교인 중 2억1천5백만 명(33%)이 WWL 방법론에 명시된 수준에 따라 박해 수준이 "높은" 또는 "극단적인"



북한 14년 연속 1위, 소말리아 2위 기독교인 발견 즉시 죽여 기독교인의 33% 2억1천5백만 명이 "극단적" 수준으로 고통

수준으로 고통 받고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다시 말해서, 약 2억1천5백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신앙에 대해 높은 수준의 박해를 경험하고 있다.

3년 연속으로 박해상위 50위 안에 있는 국가의 박해지수는 상승했다. WWL 2016년 3299에서 WWL 2017 3355로 증가해 전 세계 기독교인 박해가 증가 추세를 강력하게 시사한다.

발표된 오픈도어 박해순위에 따르면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반기독교적 압력이 가장 빠르게 증가했다. 실례로, 인도에서 인도인민당(Bharatiya Janata)이 부상하면서 힌두교적인 민족주의 열풍이 부상함으로써 박해의 수준을 높여 갔다(작년 17위에서 15위로). 아울러 작년 한 해 동안 박해지수가 가장 크게 상승한 국가들은 대부분 아시아에 있다. 인도, 방글라데시, 라오스, 부탄,

베트남 등 5 개국이 동남아시아에, 이 지역의 또 다른 나라인 스리랑카 역시 박해지수가 상승했다.

따라서 민족적 국가주의 또는 종교적 민족주의가 아시아 국가들을 박해국가로 몰아가고 있다는 것이 특기할만한 점이다.

1990년대 이후 시작된 이 추세를 아무도 알아채지 못했다.

그러나 2016년부터 정말로 압도적인 현상을 보이고 있다. 바로 인도에서 이런 현상이 두드러지는 데, 힌두교 극단주의자들은 실제로 권력을 장악하고 있으며, 극단주의 폭도들은

인도에서 교회를 대상으로 많은 폭력을 행사했다. 힌두 민족주의 BJP가 2014년에 총선에서 승리한 이후 반기독교 힌두교 무장 세력의 폭력과 압력으로 4000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박해에 희생됐고, 특히 북부 지역에서의 폭력사태가 가속화되고 있다.

인도는 공식적으로 세속 국가이지만 BJP와 모디(Modi)는

호전적인 수니파 무슬림들의 주된 표적으로 죽임 당했다. 전쟁으로 인해 박해가 급격히 증가했고, 가해자들은 대부분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다.

상위 10위권 안에 있는 소말리아는 지난해 7위에서 2위로 올라서, 현재 북한의 뒤를 따르고 있다. 전체 인구 천만 명중에 기독교 신자가 수백만 명에 불과하다.

(3면으로 계속)



시론

채플린 임상목회 컬럼을 시작하며



박동서 목사 (엘크그로브 가스펠교회)

필자는 약 3년 전부터 목회사역과 더불어 병원채플린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3일 정도 근무를 하면서 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의 요청을 받아 환자와 그 가족들을 병실로 방문합니다. 하루에 적게는 대 여섯 명에서 많게는 열 명 가까이 방문을 합니다. 환자당 방문 소요 시간도 짧게는 15분 정도에서 길게는 거의 한 시간 가까이 걸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방문을 마친 후에는 환자나 보호자 가족과 나눈 대화의 내용을 근거로 병원 컴퓨터 프로그램의 환자 차트에 자세한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놓아야 합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환자를 치료하는 진료팀의 모든 사람들의 소견이 기록되어, 전담 의료진들이 신체적, 감정적, 심리적, 영적인 모든 측면을 고려해서 전인적인 치료 방향과 목적에 따라 수시로 참고를 하고 결정을 하는 일에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미국에서 채플린은 환자나 가족뿐 아니라 병원 의료진과 직원들의 감정적, 영적 지원을 담당하는 매우 중요한 진료팀(Care Team)의 일원으로 여겨져서 평균 환자50명 당 채플린 한 명의 비율로 채용해서 근무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가령 입원 병상이 약 300개 정도 되는 종합병원이라면 채플린이 6명 정도 근무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대학병원을 비롯한 대형종합병원에서는 전담 채플린들뿐만 아니라 채플린 교육과 양성을 위한 임상목회 훈련(Clinical Pastoral Education Training)을 실시하도록 미국임상목회협회(ACPE, Association of Clinical Pastoral Education)가 인준한 책임교수(CPE Supervisor)가 채플린 인턴과 레지던트들을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시스템이 잘 확립되어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채플린으로 활동하려면 임상목회(CPE) 4 units, 즉 1,600시간의 철저한 임상 교육 훈련을 이수해야만 합니다. 풀타임 전문 채플린 사역자가 되려면 그밖에 미국 채플린 협회(APC, Association of Professional Chaplains)의 Board Certification 과정을 거쳐 정식 인준을 받아야 합니다.

한국에서는 극히 소수의 종합병원에서만 채플린 임상목회 훈련을 실시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병원은 은퇴하신 목사님 한 분 정도가 병원 직원들이나 장기 입원 환자와 입원 환자의 가족들 가운데 주일 예배를 병원에서 드리기 원하는 분들을 위해서 병원교회 주일예배를 인도하거나, 간혹 신자들의 요청에 따라 병실을 방문해 기도해주는 제한적인 소위 병원 목회 사역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도 기독교 계통의 대학병원과 카톨릭병원들에서만 주로 병원목회이란 이름으로 봉사하고 계십니다. 대부분의 원목이 교회 등으로부터 후원을 받고 있고 병원에서는 별도로 예산을 책정해서 지원해주지 못하고 있는 점도 원목사역이 낙후되어 있는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이나 캐나다, 구미에서는 병원 자체적으로 다른 의료진들과 같이 채플린까지 전적으로 모든 인건비와 활동 비용을 제공하고 있어서 환자나 보호자 가족의 만족도가 높고, 한 번이라도 채플린과의 만남을 통해서 위로와 은혜를 체험하고 심적, 영적인 안정과 회복을 체험한 사람들은 병원에 입원하거나 방문할 때마다 채플린 면담을 요청하는 것이 보편화 되어 있습니다.

개신교 목사인 저로서는 채플린 사역을 하면서 한 가지 안타깝고 아쉬운 일이 있는데, 다름 아닌 목회자들의 병원환자심방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카톨릭 신자들은 출석하는 성당에 상관이 없입시 병원차트에 천주교 신자라고만 밝히면, 그 명단이 종교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어 매일 아침 인근 천주교구에서 병원방문전담 자원봉사자들이 그 환자들을 병실마다 방문해서 기도해주고, 성찬식을 비롯한 의식까지 환자의 상태에 따라 필요한 영적 지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자라고 밝히는 환자들은 가장 숫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인근 교회에 출석을 못하고 지낸지 오래된 노인환자나 장기 투병환자들이 많아서 수년 내지 십수년 전에 출석하던 교회에서는 아예 입원 자체를 알지도 못하고 알아도 누가 심방을 나오지도 못하는 상황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 환자들의 경우는 기독교인 채플린들이 아니면 영적인 지원을 전혀 받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한 가지 그래도 감사한 것은, 은퇴하신 미국 목사님들이나 현역 목사님들이 저녁시간이나 주말시간에 자원봉사자로 병원에 급하게 채플린 방문이 필요한 경우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On-Call Volunteer Chaplain으로 봉사하는 분들이 지역 병원에 계신 것입니다.

한국 이민 목회자들은 사실 미국 목회자들에 비해서 새벽예배를 비롯한 평일 심방과 수요예배, 금요기도회, 등 과도한 사역일정으로 인해 지역사회병원 등에 있는 한국인 환자들을 위한 자원 봉사조차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한인들이 밀집해 있는 대도시의 종합병원에는 한인 기독교인 환자들 뿐 아니라, 교회를 다니다 떠난 지 오래된 사람들,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 신앙에 회의적이거나 기독교에 반감을 갖고 있다거나 죽음을 앞두고 마음의 준비가 되어있는 수많은 환자들이 병실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양로병원에 전도하려 애써다 일년에 한 번 심방하는 사역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자원봉사자로 간단한 훈련을 받고 한인 환자들이 들어왔을 때 연락을 받고 방문을 해서 말을 들어주고 위로하며 기도해주시다 보면 마음 문을 열고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tdspark@gmail.com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발행인 겸 편집인: 장영준

편집국장: 유원정

L.A. Office
601 N. Vermont Ave. #202, Los Angeles, CA 90004
Tel: (323) 665-0099 (대 표) (323) 665-9025 (광고국)
Fax: (323) 665-0056 (편집국) (323) 665-0046 (광고국)
E-mail: lachpress@gmail.com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5th Fl. Flushing, NY 11355
Tel: (718) 886-4400 (대 표) (718) 886-4424 (편집국)
Fax: (718) 886-0074 (대 표)
E-mail: nychpress@gmail.com

The Korean Christian Press (USPS 746-070) is Published Weekly (every Saturday) except for April 21, and Dec. 29.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Periodical postages are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글로벌 인재 발굴과 양성을 실현하는 Midwest University

Founded in 1986 www.midwest.edu

2017년 봄학기 학생모집

학위과정 Degree Programs

- ESL Program**
- Bachelor Degree Programs** Business Administration, Music, Theology (Biblical Studies, Christian Education)
- Master Degree Programs** Counseling, Education, Music, TESO, M.Div, MBA
- Doctoral Degree Programs** Doctor of Music, Doctor of Leadership, Doctor of Ministry (Christian Counseling, Christian Education, Mission Studies, Pastoral Theology)

학위취득방법 Study Options

- On Campus 강의: 유학생을 위한 SEVIS I-20 발행
- On-Line 방법으로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시간과 장소에 구애 없이 학위취득 가능
- Blended 강의: 소집강의와 On-Line 교육을 병행하면서 학점취득 가능

J-1 VISA EXCHANGE VISITOR PROGRAM

미국 국무성으로부터 J-1 Visa Sponsor 허가

- Exchange visitor Professor and Research Scholar Programs 교환교수, 연구원, 선교사
- Exchange visitor College and University Students Internship Programs 대학생 교환학생 인턴십 프로그램

Midwest University는 미국 연방정부 국무성으로부터 교환교수, 연구원, 교환학생을 위한 J-1 Visa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스폰서로 지정 받았습니다.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대학교수와 각 기관의 연구원, 선교사님들은 안식년 동안 본교에 와서 연구나 강의를 할 수 있으며, 대학 또는 대학원 재학생은 교환학생으로 본교에 와서 학점을 취득 하면서 동시에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노동허가를 받아 인턴으로 미국의 현장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J비자 프로그램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이메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jvisa@midwest.edu)

본교는 미국대학학력인가기관(CHEA), 미연방정부교육부(USED), ABHE로부터 학사, 석사, 박사 학위과정을 인가받은 대학교입니다.

문의: 전화 (636)327-4645, 이메일 usa@midwest.edu

Midwest University

Main Campus
851 Parr Road, Wentzville, MO 63385 U.S.A
Tel: (636)327-4645 / Fax: (636)327-4715
E-mail: usa@midwest.edu

Washington DC Campus
5103-A Backlick Rd. #24, Annandale, VA 22003
Tel: (571) 730-4750 / Fax: (571) 730-4751
E-mail: wdc@midwest.edu

'2016 지구촌 성경구절 1위 롬8: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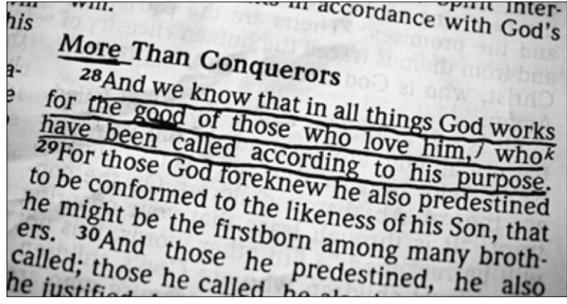
유버전 발표...세계88개국 유버전앱 사용자들이 가장 많이 찾아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롬8:28).

지난 한 해 동안 지구촌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은 성경 구절이다. 이 말씀은 성경앱인 '유버전'을 다운로드 받은 2억5천만 유저들이 하이라이트하거나 공유하고 저장한 말씀으로, 현재의 고난과 미래의 영광을 설명하는 로마서 8장 후반부의 내용이다(The Favorite Bible Verses of 88 Nations: Israel and Afghanistan favor the same verse. So do Italy and Saudi Arabia).

Image result for Romans 8:28: "And we know that in all things God works for the good of those who love him, who have been called according to his purpose."

그 다음으로는,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 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구약성경 스



"...모든 것이 합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위로와 소망, 사랑 내용담긴 성구 선호

가라서 14장 9절이다. BC 520-480년 사이 활동하던 선지자 스가라가 미래의 왕으로 오실 메시아를 예언한 말씀이다. 이 구절은 미국 교회나 한국교회에게 익숙한 '요절'은 아니다. 그러나 이스라엘과 아프가니스탄 신자들에게는 선호 구절이다.

유버전은 현재 전 세계 2억5600만명이 스마트폰과 태블릿 PC에서 사용 중인 성경 앱이다. 1,071개의 언어로 번역된 어플을 제공하고 있다. 스가라(14:9) 구절은 프랑스와 핀란드 스웨덴 벨기에

키프로스공화국 등에서도 가장 많이 공유됐다.

유버전은 2008년 성경 어플을 첫 출시한 이후 세계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구절을 집계해왔다. 국가별로는 한국은 빌립보서 4장 13절("내게 능력이 되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를 가장 선호했으며, 미국과 네덜란드는 누가복음 24장 45절("이제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좋아했다.

2015년에는 잠언 3장 5-6절("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이 1위로 꼽혔다. 국가별로는 중국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한국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빌립보서 4장 13절, 미국은 로마서 12장 2절 등이었다.

성경구절 선호도는 해마다 바뀌고 있다. 2014년은 로마서 12장 2절("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

다. 케냐, 남아프리카공화국, 나이지리아, 나미비아, 브라질, 콜롬비아, 아르헨티나, 푸에르토리코, 온두라스, 자메이카, 파라과이, 니카라과 등 12개국이었다.

성경 전문 포털사이트 관계자들은 이러한 유버전 집계 결과가 바로 "크리스천들은 대체적으로 위로와 소망, 사랑 등의 내용이 담긴 성경 구절을 좋아하는 경향"을 말해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이었다.

연도나 국가별로 성경 구절의 호감도 차이가 생기는 것은 해당 국가들이 처한 시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신앙생활의 자유가 있는 국가와 없는 나라의 기독교인들은 성경을 읽는 관점이 다를 수 있다. 또 경제적 풍요와 빈곤, 사회·정치적 상황도 특정 구절에 대한 관심을 반영한다.

실제로, 2016년 유버전 조사에서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나 여호와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를 좋아하는 국가는 아프리카와 중남미의 저개발 국가가 유독 많았

다. 케냐, 남아프리카공화국, 나이지리아, 나미비아, 브라질, 콜롬비아, 아르헨티나, 푸에르토리코, 온두라스, 자메이카, 파라과이, 니카라과 등 12개국이었다.

성경 전문 포털사이트 관계자들은 이러한 유버전 집계 결과가 바로 "크리스천들은 대체적으로 위로와 소망, 사랑 등의 내용이 담긴 성경 구절을 좋아하는 경향"을 말해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손으로서 흑인이건 백인이건, 유대인이건 아니건, 개신교이건 가톨릭이건 모두가 손에 손을 잡고 옛 흑인 영가를 함께 부르는 날을 향해 나아가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나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자유 얻었네!"

카 8개국에 기인 한다; 알제리, 이집트, 이란, 요르단, 팔레스타인 영토, 카타르, 터키 및 아랍 에미리트 연방,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자유롭게 그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

사건이 적었지만 여전히 기독교인에 대한 압박은 매우 높다. 예멘의 10위권 진출은 리비아를 11위로 하향 시켰다. 이외에도 2017년 월드 워치리스트의 50개국 평균 점수는 2016년에 비해 약간 증가했다. 그 증가의 거의 4분의 1은 중동 및 북아프리카

원로칼럼



박종순 목사 (충신교회 원로)

전도, 앞장서다(상)

회집되는 교인 숫자가 곧 성공 목회의 가능자일 순 없다. 그러나 교인 수=대형교회=성공 목회라는 등식을 외면하거나 무시하는 것도 바른 척도는 아니다.

분쟁과 다툼의 현장에서 전도와 부흥의 현장으로

1976년 5월 부임한 충신교회 정황은 대형교회는커녕 중형교회도 되기 힘든 갖가지 조건을 골고루 갖추고 있었다. 분쟁과 다툼, 반목과 갈등은 교회 성장관을 망가뜨리기 때문에 그런 교회는 중증장애에 시달리게 된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1976년 필자가 부임한 충신교회는 내세울 만한 자랑거리가 없었고 퇴행 바이러스에 감염된 채 몸살을 앓고 있었다. 목사와 장로, 장로와 장로, 권사와 권사, 교인교인 어느 한 곳도 성한 데가 없었다.

그래서 필자가 시도한 첫 번째 처방은 치유와 회복이었다. 강단과 말씀의 회복을 위해 주일 낮, 수요기도회, 금요철야기도 그리고 매일 새벽강단을 지키고 말씀을 전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외국과 국내 출입을 10여 년 자제하고 교회를 지켰다. 외래강사를 선별했고 필자가 강단을 지키고 갈무리했다. 꿈을 주고 비전을 회복시키기 위해 설교는 긍정적으로 접근하고 틀을 찼다. 교인들의 내향적 관심과 초점을 외향적인 데로 바꾸기 위해 곧바로 전도운동을 전개했다.

양은 피동성이 강한 동물이어서 자주, 자립, 자생이 용이하지 않다. 이 점이 교인과 비슷하다. 양의 경우 뒤에서 호통 치고 채찍 휘두르면 어디로 가라는 건지 알 길이 없어 우왕좌왕한다. 그러나 목자가 앞장서면 양은 방향 때문이 아니라 목자 때문에 그를 따라 걸음을 옮기고 행보를 결정한다. 그런 면에서 양은 순하긴 하지만 다루기는 쉽지 않다. 전도하라, 심일조 드려라, 바로 살아라, 기도하라, 주일 성수하라, 서로 사랑하라! 목사가 앞장서면 실행이 열거되지만 언어유화로 치부하기 시작하면 목사의 주옥같은 설교는 공허한 메아리가 될 뿐이다. 그래서 설교대로 사는

가야 행동하는가의 자문에 어떤 답을 하느냐, 이것이 항상 문제가 된다.

교회 내용으로 일상을 소진하는 교회를 치유하고 미풍도 못하는 성장관에 불을 붙이기 위해 선택한 처방은 '전도하자'였다. 물론 위에서 언급한 대로 목사가 앞장섰고, '하라'가 아닌 '하자'라는 구호를 내걸었다. 모일 때마다 제창한 구호가 있었다. 그것은 "전도합시다! 하면 됩니다! 내가 합니다!"였다.

제임스 케네디의 전도폭발, CCC의 4명리 등 국내외의 모든 전도 훈련을 쫓아다니며 배우고 익혔다. 교인들을 가르치고 훈련시켰다. 그리고 현장에 나가 직접 전도했다. 그것은 바울처럼 필자 자신이 전도자의 삶을 체험해야 한다는 소신 때문이었다. 교인들에 앞서 모범을 보여야 하는 당위성 때문이었다.

동부이촌동은 아파트 주거문화가 맨 먼저 시작된 곳이다. 1970년대 동부이촌동 아파트는 승강기 없는 6-7층이 대부분이었다. 전도대를 이끌고 직접 축조전도에 나섰다. 계단을 오르내리며 점마다 복음을 전했다. 주인이 부재중인 집은 현관문에 손을 대고 이런 기도를 드렸다. "주님, 이 집 현관문에 충신교회 교패를 붙이게 해주십시오", "이 집이 충신교회 교우의 집이 되게 해주십시오."

교회 안에서는 매해 전도목표를 정하고 현관 벽에는 대형 전도 현황판을 만들어 걸고 전도 숫자를 따라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수여했다. 물론 유치한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때로 유치하고 어리석은 발상과 접근이 큰 열매를 거두게 해준다. 교회 안에서 고매한 인격을 내세우고 고상한 척 처신하는 사람들은 단 한 명도 전도하지 않는다. 1백명 모일 때는 2백명을, 2백명 모일 때는 4백명을, 4백명이 달성되면 1천명을, 1천명을 넘어서면 2천명을 목표로 정했고 그 목표가 장년 출석 1만명으로 확대되었다.

iamcspark@hanmail.net

(1면에서 계속) 흑인교회 지도자들(90%) 역시 "주일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것"에서 백인들(80%)에 비해 높고, "성경 암송"(75% vs. 63%)을 통해 제자훈련에 영향력을 준다고 믿는다. 마지막으로, 영적 성장에서 친구나 우정의 역할을 물었다. 역시 흑인들에게 있어서, 가족 구성원, 멘토들, 교회 친구들, 교회

가 아닌 크리스천 공동체들 그리고 소그룹 구성원들 모두가 영적 여정에 있어서 "가치 있는" 함수로 작용한다고 말한다. 미국인 중 34%는 "교회공동체들이 미국사회에서 인종 간 화합과 화해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 한다(73%). 따라서 흑백간의 차이를 비판하고 편파하는 것보다는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같이 배우는 것에 초점

을 맞추어야 한다. 물론 다르기 때문에 거부감이나 주저할 수도 있다. 그러나 서로간의 단점을 장점으로 보완해주면서, 일치된 모습으로 교회공동체가 나아가갈 때, 킥 목사가 희망했던 꿈이 조만간에 이루어질 것이다. ".....자유의 종이 울리게 될 때, 이 자유의 종소리가 모든 마을, 모든 촌락, 모든 주, 모든 도시에서 울리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

사건이 적었지만 여전히 기독교인에 대한 압박은 매우 높다. 예멘의 10위권 진출은 리비아를 11위로 하향 시켰다. 이외에도 2017년 월드 워치리스트의 50개국 평균 점수는 2016년에 비해 약간 증가했다. 그 증가의 거의 4분의 1은 중동 및 북아프리카

(2면에서 계속) 소말리아 사와의 강렬한 부족 중심의 특성은 기독교로 개종한 모든 무슬림은 발견되는 즉시 살해당할 수 있게 한다. 전반적으로 톱 10은 큰 변동을 보이지 않았다. 2017년 상위 10위 중 9개 국가가 역시 전년도 상위

10위 안의 국가들이다. 아프가니스탄(3위), 파키스탄(4위), 수단(5위), 이란(8위)이 각각 순위에서 올랐다. 시리아(6위)와 이라크(7위)가 각각 순위에서 조금 떨어졌다. 이라크와 시리아에서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IS 활동 지역에서 도망쳤기 때문에 폭력

카 8개국에 기인 한다; 알제리, 이집트, 이란, 요르단, 팔레스타인 영토, 카타르, 터키 및 아랍 에미리트 연방,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자유롭게 그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총회

www.rptseast.org

동부개혁신학교 신학교 학생모집

THE REFORMED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OF THE EAST

학교안내

본 신학교는 미주에서 가장 큰 한인 장로교 교단이며 북미주 보수 장로교 및 개혁교회 협의회(North American Presbyterian and Reformed Council)의 정회원인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 총회 신학교로 성경 영감과 절대 권위를 신조로 삼고 개혁주의 신학훈련을 통하여 복음적 목회자를 양성하는 정통적 보수 신학교입니다. 역사적인 21세기를 맞이하여 개혁운동을 통하여 교회의 순수성을 유지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고자 하는 사명감에 불타는 신실한 일꾼들을 양성할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신입생 및 편입생을 모집합니다.

특전

- 국내외 저명한 교수진 확보
- 성적우수학생에게는 장학금 지급((특히 목회자, 선교사적 사명감이 투철한 자에게는 선별 심사후 장학금을 지급함)
- 6만여권의 한글, 영문 신학장서를 소장한 도서관이 있음
- 목회학 석사 졸업자는 총회 목사고시를 거쳐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음
- 대학원 과정을 졸업한 여전도사는 본 교단 산하와 그의 기관에서 전도사로 사역할 수 있음

2017년 봄 학기 주.야간 모집학과

대신학과	4년	고졸 및 동등학력자
대신교학과	4년	고졸 및 동등학력자

목회학석사	3년	대졸 및 동등학력자
기독교교육학석사	2년	대졸 및 동등학력자
선교학석사	2년	대졸 및 동등학력자
※여교역학과	3년	고졸 및 동등학력자

제출서류

- 1 입학원서(본교 소정 양식) 1통
- 2 당회장 또는 목사 추천서 1통
- 3 최종학교 졸업 및 성적 증명서 각 1통
- 4 신앙고백서 1부
- 5 명함판 사진(2"×2") 2매
- 6 입학 전형료 30불

원서교부 및 접수

- 1 원서교부처 : 신학교 사무실(퀸즈장로교회 내 2층)
- 2 원서접수마감 : 2017년 1월 27일(금) 오후6시
- 3 입학시험 : 2017년 1월 28일(토) 오전11시, 면접 오후 2시
- 4 개강부흥회 : 2017년 1월 30일(월) - 2월 1일(수) 저녁 8시
- 5 문의처 : Admission Office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 (718)463-7163

동부개혁신학교

학장 장영춘 박사

목양칼럼

한평우 목사
(로마한인교회)



인생 칠십 찬가(人生七十讚歌)

김광석의 "서른 즈음에"라는 노래에는 가사의 문맥에 멜랑콜리가 잔잔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나이를 먹는다는 것을 사람들은 조금은 슬픈 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칠십이신 분을 최상의 노인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어찌 하더 보니 칠십이 넘었네요. 친구들이 카톡을 보내 오는 것을 보면 대체적으로 건강에 조심하라, 아니면 나이 먹음의 쓸쓸함을 전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칠십이 넘으니 좋은 점이 있습니다. 우선 예배 때 찬송을 부르면서 작곡자와 작사자의 생소한 기간을 보고 섬세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찬송가에는 그들의 출생연도와 부름 받은 연도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젊을 때는 보이지 않았는데 이제야 보이니 그들의 생애를 섬세하고, 가능성 있는 남은 기간을 계산

하고 결단하게 됩니다.

또 감사한 점은 평범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풍성한(경제적) 삶을 살게 하셨다면 천국에 대한 소망을 잡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 시대 물질은 편리함을 안겨주고 또한 많은 것을 누리다 함은 세상에 깊이 천착하게 만듭니다.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일은 아주 힘들게 됩니다. 오래전에 미국을 방문했다가 교우의 대접을 받았는데 그분의 아내가 골프를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회원으로 있는 골프장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천당 바로 밑인 구백구십구당이라고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대화 중에 "주님이 오심니다!" 했더니, 정색을 하면서 "안 돼요, 아직 오시면 안 됩니다"라고 하더군요. 골프를 더 친후에 오셔야 된다고 믿고 있는 것 같았

습니다. 나는 천당보다도 사람을 더 미치게 하는 골프에 별 관심이 없으니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감사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요한 웨슬리는 목회 성공의 요소 가운데 얼굴이 잘생겨야 한다고 했습니다. 전해지는 말에 의하면 요한 웨슬리 자신의 얼굴이 별로(?)였다고 합니다. 고로 열등의식에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진정 얼굴이 잘생겼다는 것은 목회의 큰 프리미엄일 수 있습니다. 교황 알렉산더 6세(Alexander VI 1492-1503)는 아주 매력적이었고 뛰어났기 때문에 당시 여성들에게 선망의 대상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끝이 좋지 않았지만 말입니다. 여성들에게 인기가 많으면 현대목회에서 유익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옛그제 신문을 보니 소아과 의사에게 미모는 수입과 직결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 의사나 변호사들이 TV 패널로 많이 나오는데 하나가 잘생겼습니다. 그러나 아름답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어느 한 구석 내용을 만한 부분이 없습니다.

또한 남성의 가치는 "신인서판"이라고 하는데 저는 늘변이어서 원고 없이는 설교를 못하기에 새벽설교도 항상 원고를 작성해야 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나이 먹으니 많은 부분이 공평하게 되었습니다. 잘생긴 얼굴도 주름살이 늘어나니 거기가 거기가 되었고 말 잘하는 친구를 봐도 늙으니 별 다

르지 않네요. 여 집사님은 어떤 아름다운 연예인을 언급하면서 "아이고, 그 사람은 늙는 것이 얼마나 속상할까요"라고 말했습니다. 저 역시 그 아름다운 분이 하루하루 늙어가는 모습을 보며 얼마나 원통할까 싶습니다. 그러나 나 같은 사람은 늙으니 너무나 편합니다. 얼굴이 공평하게 되니 말입니다. 늙은 분을 보고 잘생겼다 하지 않습니다. "곱게 늙었다"고 하죠.

하나님께서서는 인생들을 이처럼 궁극적으로 공평하게 하십니다. 계절도 순환하고, 인기도 순환하고 권력도 순환합니다. 올라간 사람은 언젠가는 반드시 내려와야 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대동하고 다니던 사람도 언젠가는 혼자가 되어야 합니다. 건강하던 사람은 어느 날 병약하게 되고 말입니다. 어떤 분은 큰 은사를 받아 크게 되고 성공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분은 전혀 이렇듯 없이 세상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의 결과일 뿐입니다. 칼뱅은 의지도, 노력도 하나님의 주신 은사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있는 것 중에서 하나님의 은사 아닌 것은 없습니까. 하나 더 감사할 것은 나이를 먹으니 죄의 유혹이 아주 적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크게 감사해야 할 일이 있네요. 저는 10대 시절, 어느 날 신앙생활 하는 선배를 만나기 위해 교회를 찾아가셨습니다. 가던 날이 장날이라고 그날이 마침 부흥회 중이었습니다. 예배 후에 사람들

이 가지 않고 기도라는 것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기에 흘깃거리며 사람들의 행동을 훑쳐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 많은 분들의 기도가 "주여, 죄인이로소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들은 기도를 하면서 벽을 향해 고개를 주억거렸습니다. 그래서 나도 벽을 향해 고개를 주억거리면서 "주여, 죄인이로소이다"라고 따라했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렇게 얼마동안 하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분명 눈을 꼭 감았는데 빨간 불덩이가 이마를 찔는지, 아님 이마로 들어왔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런 사건이 제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날 위해 십자가에 달려죽으셨다는 사실이 마음 깊이 믿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긴 1월의 겨울밤을 하얗게 밝히며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10대인데 죄를 지었으면 얼마나 지었겠습니까. 참으로 많은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울어도 못하네(60년 당시)" 찬송가 189장을 익혔고 계속 부르고 또 불렀습니다. 그리고 새벽예배를 마치고 눈이 하얗게 내린 눈길을 추운 줄도 모르고 기뻐 뛰며 날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부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새벽 3시만 되면 누가 잠을 깨우는 것이었습니다. 그 음성은 지금도 귓전에 쟁쟁합니다. "평우

야!"라고 부르시는 명료한 음성이었습니다. 그 부르심이 무려 석달 동안이나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튿날부터 새벽기도회를 나가게 되었고 철심이 넓은 지금까지 새벽기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스콜라철학의 대가요, 신학자인 천재 토마스 아퀴나스(Thomas Aquinas 1225-1274)에게 어느 날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가 방대한 신학대전을 집필 중에 있던 때였습니다. 그는 상상할 수 없는 위대한 신 앞에서는 벌거벗은 심정으로 서게 되자,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안다는 것, 박사라는 것, 세상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지극히 망극한 일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집필하던 붓을 꺾어버렸습니다. 제대로 알지도 못한 것들을 안다고 주장하고 가르친데 대한 속죄하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희망을 잃어버린 무너져 같은 제게 성령님께서 찾아와주셨고, 연약한 제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 얼마나 황송한 일인지요. 그 일을 생각하면 감사하고 또 황송합니다. 이 나이에 생각할수록 감사하기만 합니다. 저 같은 무너져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다니요? 오 늘은 저를 더욱 황송하게 하시네요.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chiesadiroma@daum.net

푸/른/초/장

조성근 목사
(안양/강화 갈매산기도원 담임)



결단이 필요할 때입니다. 한 해의 시작이 되었으니 그렇고, 기독교의 위기를 마의 일처럼 보고만 있을 수 없으니 그렇습니다. 지난해에 대한 후회와 아쉬움만큼 그 어느 것과 다른 아무진 결단이 필요합니다. 결정의 사전적 의미는 행동이나 태도를 분명하게 정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정한 것에 대한 분명한 태도와 행동이 어느 대보다 요구됩니다.

오늘 성경에서 결단에 대해 아브라함에게 배웁니다.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와 함께 현재의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에서 남동쪽 300km 떨어진 곳인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다가 하란 땅에 머무르게 됩니다. 하란은 메소포타미아의 주요 상업, 문화, 종교 중심인 오래된 도시인데 그곳에 거주하던 때, 그의 아버지 데라가 죽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그는 그곳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고 축복의 땅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가 몇 가지 배울 수 있습니다.

1. 우리도 떠나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떠나야 할 땅은 보장받을 수 없는 하나님이 없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을 외면한 땅입니다. 죄를 떠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은혜에 다다를 수 없습니다. 영동한 곳에 머물면서 막연히 먼 산만 바라보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자책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복은 우리의 결단이 있어야 하는 일입니다. 복된 삶을 살기로 결정한 사람이라면 떠나기 쉽지 않은 환경도 무릅써야만 합니다.

2. 어려워도 머물러있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결단하여 하란 땅을 떠나 기대 속에 머물던 가나안 땅에 심한 기근이 들게 되었습니다(창 12:10).

2)가정을 위한 일입니다(창 12:15).

아브라함은 하란 땅으로 되돌아가는 것보다 애굽 땅이 낫다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그 이유가 가족을 위한 것이라면 멋진 설득력이 있습니다. 심한 기근에 공여지책이라고 해도 됩니다. 하지만 지금 가정은 풍비박산이 될 형편이 되었습니다. 의도했던 바도 아니었으니 아브라함은 무엇을 해야 할지를 모르는 패닉상태가 되었을 것입니다. 무

너뜨릴 때 어떠한 경우에도 그 집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약속이 지켜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가정을 위한 행복의 약속입니다.

3)이웃을 위한 일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생각지 못한 재앙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가나안 땅에 있어야 할 아브라함이 애굽 땅에 거주하면서 바로왕의 집안은 어려

운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야 합니다(마5:13). 우리의 착한 행실이 그들에게도 설득력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로 인하여 그들이 행복하게 해야 합니다. 이웃 사랑은 우리

의 의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지키는 것은 이웃사랑의 시작입니다.

죄를 떠나 하나님의 품으로 달려온 결단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지만 머물던 하나님의 자리에서 떠나는 것은 어떤 이유이든 어리석은 일로 자신과 가정과 이웃을 슬프게 하는 일입니다. 떠나는 결단과 함께 우리는 머물러 있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3. 돌아가기를 결단해야 합니다(창 13:1).

부정할 수 없는 은혜를 입고도 종살이 했던 애굽 땅으로 끊임없이 돌아가려고 했던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도 그렇습니다. 죄에 종노릇하던 때로 돌아가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신앙의 장담이 위험하고 선졸로 아는 자기 착각이 넘어지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긍휼을 따라 진솔하게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여 돌아서면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따라 가족들과 짐승 떼를 몰고 애굽 땅을 나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갑니다. (16면으로 계속)

신앙의 결단

(창세기 13장 1-3절)

된 것입니다. 대부분 피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면 맞서서 해결하든지 도망하든지 합니다.

아브라함은 문제에서 도망하기로 했습니다. 당면한 문제에 도움될듯한 풍요롭고 물이 많은 애굽 땅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살아보겠다고 애굽 땅에 간 그는 아내를 빼앗길 수도 있고, 자신은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쌓입니다. 그래도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마음은 없었던 그는 거짓말을 해서라도 애굽 땅에 머무르려 합니다. 이제 그의 아내는 그의 여동생으로 알려집니다. 말씀을 떠나려고 하는 이들은 무슨 명분이라도 앞세우기 마련입니다. 또한 하고 싶은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무슨 거짓말이라도 주저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끝이 아닙니다. 바로가 사래를 자기의 아내로 내 주어야만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기근이 있는 가나안 땅에 머무르는 것이 지금 상황보다는 더 나을 듯합니다.

1)자신을 위한 일입니다(창 12:18-19).

하나님의 약속은 사람의 말과 달라 헛되지 않습니다. 후 고난이 있다면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일 뿐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벧전5:10). 이 일로 인해 귀감이 될 만한 하란을 떠났던 결단이 우순운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방인에게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어려워도 신앙의 자리를 지키는 것은 자신을 위해 중요한 일입니다.

동역하실 사역자를 찾습니다 E.M Pastor Wanted

We are seeking candidates to fill part-time or full-time position to serve in our youth ministry.

We welcome all applicants who have God's calling, have a gift in preaching, teaching, organizing & relationship building.

Must be fluent English and some Korean.

Contact: Kwanghee Rhee, Pastor
(408)267-2345, (408)500-9512

Send Resume to:
E-mail: kwangheerhee@hotmail.com
past.andrew@gmail.com

실리콘밸리장로교회
Silicon Valley Presbyterian Church
이광희 목사 / Andrew Lee, Pastor

1721 Dry Creek Rd. San Jose, CA 95125
Tel. (408)267-2345 / www.svkpc.org

기사제보와
문서선교
후원을
받습니다.

미주크리스천신문
45개국에
보급을
실고
간단하다.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56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E-mail
LA@chpress.net
NY@chpress.net



아는 게 힘이다 가치관 전쟁



새라김 사모
(TVNG 설립자, TVNEXT.org)

미국시민 80%가 헌법 존중하는 대법원 판사 원한다!

트럼프와 마이크 펜스라는 두 인물이 대통령과 부통령으로 당선된 것은 성경적 가치관을 기준으로 건국되었던 미국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히 여러 의미가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의미 중의 하나는 지금 공석으로 남아있는 한 명의 연방대법원 판사에 대한 지명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연방대법원 판사들이 결정할 수 있는 권력과 권한은 국가를 좌우하며 더 나아가 우리 자녀들

것입니다. 미국 일반인들이 원하는 미연방 대법원 판사의 성향(가치관)은?

주요 여론 조사 및 Marist Poll에서 새로운 여론을 실시한 결과 대다수의 미국인이 작년 임종한 Antonin Scalia 같이 헌법을 건국의 아버지들이 만든 대로 적용하는 대법원 판사를 신속하게 지명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헌법을 원래

을 경외한다는 미국에서 특별히 지난 8년간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영적으로 볼 때 오바마 정부에서는 하나님께 전쟁을 선포한 것이 아니라 사악한 정책들로 미국전역을 도배하고 우리자녀들의 정신과 마음을 흠쳐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설문 조사에서 밝혀진 결과를 보면 미국시민 52% 이상이 법원이 헌법을 "Living

로" 대법원 판사를 임명하는 것이 "즉각적인 우선순위"로 보고 있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미국 시민들이 아직까지 많다는 것이 감사한 일입니다.

단지 문제는 이런 시민들의 목소리가 명확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생명의 존엄성을 지지하는 대법원 판사 후보는 차단하겠다고 계속 자신들의 고집과 정치적 욕심을 내려놓기를 거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1월 20일에 있을 대통령 취임식 때 트럼프 대통령당선자와 마이크 펜스 부통령당선자를 아직도 자신들의 정치적/개인적 욕심으로 격렬히 반대할 뿐 아니라 거짓된 정보로 사람들을 미혹하며 새로운 대통령/부통령 취임식을 방해하려는 진보주의/공산주의/극단이슬람주의 사상들을 가진 무리들이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기에 1월 20일 대통령 취임식이 안전하게 잘 진행되도록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번 대통령 취임식 때는 오바마 대통령 취임식 때와도 다르고 지난 8년간의 백악관 기도회 때 왔었던 친동성애, 친이슬람 목회자들과는 완전히 다른데, 왜냐하면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에서 차단시키고 문전박대 했었던, 동성애를 반대하고 생명의 존엄성을 높이 여기는 프랭클린 그래함 목사와 같은 보수적인 목자들이 6명(3명은 기독교, 2명은 개톨릭, 1명은 유대교 랍비)이 와서 말씀을 읽고 기도해주실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은 한 사람의 대법원 판사 임명에 관한 것이지만 현 연방대법원 판사들의 고품격으로 인해 트럼프의 재임 기간 동안 또 다른 판사에 대한 임명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트럼프의 당선은 미국의 영적/도덕적 회복에 크나큰 청신호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대통령 취임식 전이나 당일엔 어떤 일이 생겨 트럼프 정부가 출범을 하게 되지 못할 경우는 미국의 영적/도덕적 회복에 치명타가 임하게 될 것이기에 이러한 것을 위해서도 우리 미주의 한인교회들은 더욱더 깨어서 기도하며 미국의 회복과 1월 20일 전후로 안전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통령 취임식이 되도록 기도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sarahspring2009@gmai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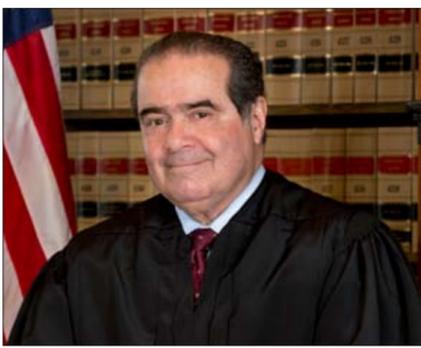
스콜리아 판사 후임자 성향이 향후 연방대법 결정에 중요 미국민 89% "헌법적 권리인 종교적 자유 보호 중요하다"

이 살아갈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오바마가 대통령이 되어 지명했던 판사들인 Sonia Sotomayor(2009년, 뉴욕출신)과 Elena Kagan(2010년, 매사추세츠출신)들은 매우 진보주의적인 가치관을 가진 판사들로서 각각 오바마 대통령에 의해 지명되어 미연방대법원의 판사가 되었으며, 2015년 결국은 이들의 강력한 지지와 그 당시 보수 미연방판사들의 부족으로 결국은 미국역사상 최초로 동성결혼이 합법화가 되어버리는 역사적 사건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따라서 미연방대법원 판사들은 앞으로 어떤 판사(들)가 새롭게 대통령에 지명 받아서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그동안 오바마 대통령과 그 정부가 반기독교적이고 비민주주의적인 정책으로 미국전역을 도배해놓은 여러 정책들을 되돌려 놓을 수도 있으며 또는 오바마 정부 때보다 더 사악한 결정들을 할 수도 있게 될 것입니다.

참고로, 미연방대법원은 9명의 판사들로 이루어져 있지만 지금은 8명밖에 없습니다. 그 가운데 보수적 성향의 판사가 3명, 진보적 성향의 판사가 4명 그동안의 전력으로 볼 때 보수와 진보가치관을 왔다갔다 하는 앤도니 캐네디 판사가 1명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남은 한 자리에 어떤 성향의 판사가 임명되느냐에 따라 앞으로 연방 대법원이 판결을 내리게 되는 모든 중요한 사안의 방향들이 정해지게 될 것이기에 2016년 대통령 대선은 더 더욱 치열했던



고 Scalia 판사

의도대로 해석하고 종교적 자유를 보호하기 원한다고 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80%의 미국인이 헌법이 원래 쓰인 대로 해석하는 대법원 판사를 임명하는 것이 "즉각적인 우선순위" 또는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중, 56%는 "즉각적인 우선순위"라고 했으며 유권자들 중에서는 53%가 무소속당, 80%가 공화당, 42%는 민주당들이 이와 같이 조사에 응했습니다.

현재 미국 대다수의 진보주의적인 법대에서는 헌법을 "Living Constitution"으로 해석해 주는데, 그 의미는 "현재의 흐름(유행)을 따르는 의미"로 적용하도록 가르칩니다. 그러다 보니 건국 아버지들은 상상도 못했던 "성별평등(동성결혼합법화)뿐 아니라 성전환자까지 포함하도록 해석하고, 거기다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태아는 언제든 어떤 이유든 부모가 원치 않으면 "낙태"라는 명목으로 죽여도 된다고 해석하게 되는 역사적으로 가장 안타까운 일들이 하나

Constitution-유행을 따르는 의미"가 아닌 "원래 쓰인 전통적 의미 그대로" 적용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답한 사람들은 유권자들 중에서는 50%가 무소속당, 78%가 공화당, 31%는 민주당 유권자들이었습니다.

또한 "헌법적 권리인 종교적 자유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대답한 미국시민들이 89%나 되었습니다. 그중 57%는 "즉각적인 우선순위"라고 했고 유권자들 중에서는 51%가 무소속당, 66%가 공화당, 55%는 민주당 소속들이 이와 같이 답했습니다.

이러한 설문조사 숫자가 중요한 이유는 헌법적 권리인 종교적 자유를 무시당하고 낙태를 건강 보험에 포함하도록 강요당한 Hobby Lobby와 Little Sister of the Poor 같은 단체 및 개인, 기업들이 그동안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65% 미국인들은 오바마 정부의 법과 충돌하더라도 (기독교)종교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유권자들 중 63%가 무소속당, 74%가 공화당, 60%는 민주당 소속자들이 여기에 동의했습니다.

이번 설문조사들을 종합해볼 때 대다수 미국인은 미국의 헌법이 보호하고 있는 개인과 신앙의 자유를 소중하게 여기고 있으며, 무엇보다 "헌법이 원래 쓰인 전통적 해석대

귀하는 미래사역을 위한 준비가 되셨습니까?



GRACE THEOLOGICAL SEMINARY

- 1. 79년의 역사를 가진 독일 경건주의 후예들이 세운 신학교
- 2. 학문과 경건을 겸비한 복음주의 신학교(ATS 정회원)
- 3. 미국에서 유일한 문화교류학 박사학위 한국어 프로그램 (Online 강의, On Field, On Campus 강의로 사역지를 떠나지 않고 학위과정을 마칠 수 있음)
- 4. 특전 (1) SEVIS I-20 Form 발행, (2) FAFSA(연방정부학자금) 지원가능(영주권자 이상), (3) 각종 장학금 제도

모집 과정 ● 문화교류학 박사과정(D.Ics) ● 목회학 박사과정(D.Min.)

On Online Courses Courses (8 weeks)
온라인 강의(8주간)
 Jan 16-Mar 10 (1월 16일-3월 10일) -Required
 DI 8160 Trends in Church Planting and Growth(교회개척과 성장)
 For D.Ic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필수과목)
 Dr. Thomas Stallter & Dr. Stephen Park

Off-Campus Courses
Seoul, Korea
 March 6-10(3월 6-10일)
 DI 8410 Spiritual Conflicts (영적전쟁)
 For D.Ics. Students(선택과목) & D.Min. Students(선택과목)
 Dr. Scott Moreau

On Campus Courses 2017 봄학기 강의 안내

March 20-24(3월 20 -24일)
 DI 8330 Biblical Apologetics in a Pluralistic World
 (다원적 세계에서의 성경적 변증론)
 <DI8550 God's Strategy for the World(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전략) 필수과목 대체 과목임>
 For D.Ic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선택과목)
 Dr. Daniel Lute

Mar 27-31 (3월 27-31일)
 DI 8140 Cultural Anthropology in Biblical Perspective
 (성경적 관점에서의 문화인류학)
 For D.Ic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필수과목)
 Dr. Thomas Stallter

April 24-28(4월 24-28일) On campus or Chicago, IL
 PM 8030 Gospel Centered Ministry(복음중심사역)
 For D.Ics. Students(선택과목) & D.Min. Students(선택과목)
 Dr. Matthew Harmon

* 한국어로 취득할수있는 ATS승인 "문화교류학 박사학위" 는 본교에만 있습니다 *

***과목과 일정은 학교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그레이스 대학/신학대학원
 200 Seminary Dr. Winona Lake, IN 46590 / http://www.grace.edu

총장: Dr. William J. Katip
 한국학부 디렉터: Dr. Stephen S. Park(박시경박사)
 대표전화: 574-372-5100 (Ext.: 6335), 574-377-2619(한국어)
 E-mail: parkrc@grace.edu, gtskoreanstudies@gmail.com

중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중국의 하카(HAKKA, 한족)



3천만의 하카족은 중국 주요 종족중 하나인 한족의 일부다. 하카족은 중국 남동부 주에 널리 흩어져 산다. 이들은 4-18세기 사이에 남쪽으로 이주한 북중국 종족의 후예로, 이주민의 처지인 이들은 덜 비옥한 땅을 차지하는 수밖에 없었다. '하카'라는 이름은 '손님' 또는 '잠시 머무르는 객'이라는 뜻이

다.

하카족은 매우 자존심이 강하며 가족중심의 종족이다. 18세기와 19세기경 중국 남부의 경작지가 줄어들고 삶의 질이 악화되면서 이 지방의 원주민인 광둥인과 하카족은 물과 토지의 사용권을 놓고 다툼이 일었고, 갈등은 계속돼 많은 하카족들이 다른 나라들로 이주했다. 오늘날 하카족은 대만, 홍콩, 인도네시아, 태국, 싱가포르, 베트남, 캐나다, 호주 등을 비롯 여러 나라에 살고 있다.

삶의 모습

하카족은 매우 보수적이고 정적

하며, 근면하고 자주적이라는 평판을 듣는다. 특히 그들은 독특한 종족에 속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전통 문화와 관습을 잘 지켜왔다.

하카 여성들은 다른 중국 여성보다 훨씬 개방적인데 특히 가난과 잦은 이동은 하카 여성을 다른 중국 여성들보다 더욱 자립적으로 만들었다. 이들은 또한 밭을 경작하는데 큰 몫을 담당한다. 또한 많은 중국 여성의 정상적인 걸음걸이를 망친 '전족(foot-binding-어릴 적부터 여자아이의 발을 묶어 시 키움으로 비정상적인 걸음을 걷게 됨: 여자주)'의 풍습을 하카 여성들은 따르지 않았다.

하카 언어인 '케자(Kejia)'는 비록 북경어와 광둥어의 요소를 두루 포함하기는 하지만 독특성을 가지고 있다. 대부분의 하카족은 북경어(중국본토의 공식 언어)와

케자를 둘 다 구사한다.

이 지역 다른 소수 민족과의 적대적인 관계 때문에 하카족은 전통적으로 요새 같은 가옥을 짓고 살았다. 3층 내지는 4층으로 이루어진 가옥들은 그 벽이 거의 3피트에 육박했다. 건축 재료는 아무도 비 벽돌 또는 흙을 이겨 석회로 강화한 것을 사용했다. 오늘날까지도 대부분의 하카족은 여전히 가난한 시골 지역에 거주하지만 일부는 대도시 지역에 살기도 한다.

전통적으로 결혼은 중매에 의했다. 하카족에게 있어 결혼은 신부가 자기 가계를 떠나 신랑의 가계로 옮겨 오는 것을 뜻한다. 즉 신부는 신랑 가족의 일원이 되며 또한 족보에 속하게 되는 것이다. 전통적으로 하카의 가족은 부부, 미혼의 딸들, 기혼의 아들들과 그들의 아내(며느리)와 자녀로 구성된다.

하카족이 전통적으로 지키는 명절로는 음력설, 전등축제(Lantern Festival), 용선(龍船)축제(Dragon Boat Festival) 등이 있으며 특히, 고된 노동과 빈곤, 사랑, 인간관계 등을 주제로 하는 민요를 즐겨 부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신앙

중국에 거주하는 대부분의 하카족은 아직도 조상숭배를 하는데, 이는 죽은 조상의 영혼이 살아 있어 먹여주고 보살펴 주어야 한다는 믿음에서 비롯한다. 이러한 영혼은 제대로 보살핌을 받지 못할 경우 굶주리고 불만을 갖게 돼 악령으로 변한다고 한다. 하카족은 신앙을 지어 제단 위에 각 조상에 대한 "신주단지(soul tablets)"를 따로 모신다. 최소한 한 달에 두 번 이상, 음식과 향으로 조상신에게

제사를 지낸다. 이러한 제사는 약혼, 결혼, 졸업 또는 긴 여행을 떠나기 전과 같은 특별한 일이 있을 때도 행한다.

대부분의 하카인은 샤머니즘(잡신, 악령, 조상신에 대한 믿음)과 주술적인 것들을 신봉한다. 샤먼(주술사 또는 무속인)은 죽은 자의 영혼과의 중개 역할을 한다. 하카인 중에 불교를 신봉하는 이도 있으나, 이들의 믿음에도 역시 샤머니즘의 관습과 전통이 혼재되어 있다.

필요로 하는 것들

하카족의 언어로 성경이 번역됐고 영화 '예수'도 번역됐지만, 하카족 기독교인은 극소수다. 그들의 강한 독립성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미 의회, 개신교 의원 줄고 가톨릭·유대교 늘어

미국 의회는 '캐피톨(The Capitol)'이라 불리는 상원과 '하우스(The House)'라 불리는 하원으로 구성된다.



이달 초 개원한 제 115대 미국 의회 상·하원 의원들의 개신교인 비율이 56년 만에 20%포인트 가까이 하락했다. 같은 기간 가톨릭 신자 비율은 12%포인트 오르면서 앵글로색슨계 개신교인, 즉 '와스프(WASP·White Anglo-Saxon Protestant)=미국 정치 주류계층'이란 등식이 점점 열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미국 여론조사기관 퓨리서치센터에 따르면 제115대 미 의회 상원(100명) 및 하원(435명) 의원 등 총 535명의 종교를 조사한 결과 개신교인이 55.9%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가톨릭(31.4%)과 유대교(5.6%), 불교(2.4%), 동방정교회(0.9%) 등의 순이었다.

개신교인 비율은 관련 조사가 시작된 1961년(제87대 의회·75%) 때보다 무려 19.1%포인트 떨어졌다. 반면 가톨릭과 유대교는 각각 12.6%포인트, 2.3%포인트 상승했다. 오피니언 리더이자 정치 주류층인 와스프의 핵심으로 꼽히는 의회에 가톨릭 신자가 주를 이루는 히스패닉계와 정통주의 유대인들의 입성이 점점 많아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미 의회의 개신교인 비율은 미국 전체 개신교인 비율(46.5%·2014년)보다 9.4%포인트 정도 높다. 그러나 히스패닉·유대계 등 타민족 출신들의 사회·정치적 참여 확대와 사회 전반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종교 다원주의, 무종교인 증가 추세를 감안할 때 의회 내 개신교인 비율은 앞으로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115대에 입성한 초선 의원들의 경우 가톨릭(32.3%)과 유대교(8.1%), 힌두교(3.2%), 불교(1.6%)의 약진이 돋보였다. 무종교인(3.2%)을 포함한 이들 의원들이 114대 의회에 비해 1-2.8%포인트 가량 증가한 반면 개신교인은 6.7%포인트나 줄었다.

의회 내 개신교인 중에서는 침례교(13.5%)가 가장 많았고, 감리교(8.2%)와 성공회·장로교(각 6.5%), 루터교(4.9%) 순이었다. 상원의 58%, 하원은 55.4%가 개신교인이었는데, 상원 개신교인 중에서는 장로교인이 가장 많았고, 하원에서는 침례교인이 최다였다. 정당별로는 공화당의 67.2%, 민주당 의원의 42.1%가 개신교인이었다. 초선 의원 62명 중에서는 개신교인이 절반(50%)이었다.

한편 퓨리서치센터가 2014년 조사한 미국의 종교 분포 조사에 따르면 자신이 무신론자·불가지론자 또는 특정 종교가 없는 사람이라고 답한 비율은 22.8%로 2007년(16.1%)보다 6.7% 포인트 늘었다. 유대교나 불교, 이슬람교 등 기독교(개신교 및 가톨릭) 이외의 종교인 비율은 2007년 4.7%에서 5.9%로 1.2% 포인트 증가했다.

복음주의교회, 가톨릭국가 스페인·佛서 꾸준한 성장

스페인과 프랑스에서 복음주의 교회 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가톨릭이 강세였던 두 국가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



유럽 복음주의 관련 소식을 전하는 온라인 매체 '에반젤리컬 포커스'는 지난 한 해 동안 스페인에 141개의 복음주의 교회가 세워졌다고 최근 보도했다. 매달 12개의 복음주의 교회가 새롭게 문을 연 셈이다. 지난해 말 기준 스페인엔 3,910개의 복음주의 교회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교학자인 맥시모 알바레스는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복음주의 교회는 엄청난 성장을 이뤘다"며 "그러나 여전히 587개 도시에 복음주의 교회가 없어 성장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말했다.

프랑스도 비슷하다. 프랑스 복음주의 교회의 70% 정도가 소속돼 있는 프랑스복음주의전국협회(National Council of Evangelicals in France·CNEF)

의 조사 결과 지난해 말 기준 2,200개의 복음주의 교회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한 해에만 현지에 35개의 복음주의 교회가 새로 세워졌는데 이는 열열에 한 개씩 세워진 것과 같다. 매체는 전체 개신교 인구의 3분의 1 정도에 해당하는 65만명 가량이 복음주의 크리스천이라고 전하며 이들이 예배할 수 있는 공간도 지난 60년간 10배나 증가했다고 보도했다.

CNEF의 새교회개발위원회 다니엘 리에지 대표는 현지 일간 라크루아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20년간 프랑스의 복음주의는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며 "이런 추세는 최근 2년 사이 더욱 가속화됐다"고 설명했다.

반면 스페인과 프랑스에서 가톨릭의 입지는 점차 줄어들고 있다. 스페인의 가톨릭 인구는 지난해 전체의 69%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2006년 77%에 비해 8% 포인트나 줄어든 수치다. 가톨릭 수업 시간에 다른 과목을 대신 듣는 학생들도 60%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2년엔 신혼부부의 79%가 성당에서 결혼식을 올렸지만 2015년엔 29.1%로 떨어졌다. 특히 젊은 층에서 가톨릭을 거부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한 설문조사에선 18-34세 청년의 절반 정도가 '무신론자'라고 응답했다.

프랑스에서도 전체 인구의 56%가 가톨릭 세례교인이지만 사제들의 고령화와 감소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사제들의 소명 의식이 약해지며 가톨릭 신도들의 주일 미사 참석률은 6% 수준에 불과하다.

전문가들은 가톨릭교회와 침례대 가운데 복음주의 교회가 성장한 원인으로 성서주의, 십자가 중심주의, 회심주의, 전도와 선교 강조 등을 꼽았다. 가톨릭 신앙은 전통 유산으로 치부되고 있는 반면 개인의 자유 의지로 복음주의 신앙을 택하고 삶의 변화를 추구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오바마 고별연설-트럼프 첫 기자회견

미국은 이달 20일 을 기점으로 '오바마 대통령 시대'가 저물고 '트럼프 시대'를 맞는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5시간가량의 시차를 두고 각각 고별 연설과 첫 기자회견으로 대중 앞에 섰다.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11일 '작별과 첫 무대, 그리고 너무 다른 두 개의 미국'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마지막과 트럼프 당선인의 첫 시작을 비교해 조망했다.

WP는 먼저 경쟁력이 있고 자신만만한 두 사람이 미국의 문제가 무엇이고 어떻게 고쳐나갈 수 있는지를 얘기했다고 설명했다. WP는 오바마 대통령과 트럼프 당선인이 많고 시골벽적인 대중들로부터 힘을 얻는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전했다. 경쟁자들에게 자신의 승리를 상기시키는 것도 두 사람이 공유한 특성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자신이 대선에서 두 번이나 승리했다는 사실을 공화당원들에게 얘기하는 걸 지겨워하지 않는다. 트럼프 당선인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중이 아닌 오직 언론만 남세 자료 공개 여부에 관심을 둔다면 대선에서 승리했다는 것을 보면 그렇게 확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두 사람에게 유사점이 있지만 차이점도 분명히 있다. 오바마 대통령의 마지막 연설과 트럼프 당선인의 첫 기자회견을 찬찬히 뜯어보면 두 지도자는 비전 제시에서 극명한 차이를 보였다고 WP는 설명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전날 인기 8년을 마무리하는 작별 인사 무대에서 "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그는 미국인들에게 민주주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참여하고(show up), 몰두하며(dive in), 지켜달라(Stay at it)'는 주문을 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비전 제시에서도 사업가 기질을 유감없이 드러냈다. 그는 억만장자 출신의 내각 인사들을 자랑스러워하며 "우리는 뒤쳐져 있어서 훌륭한 사람들이 정부에서 일할 바란다"고 강조했다.

영웅적인 인물로 무대에 올리는 것에서도 차이가 났다. 오바마 대통령은 소설 '앵무새 죽이기'의 주인공 공 애터커스 핀치의 대사를 인용해 "사람을 이해하려면 피부 속으로 들어가 그 속에서 걸어야"며 이해와

화합을 호소했다. 반면 트럼프 당선인은 석유 재벌 해럴드 햄, 중국 상거래업체 알리바바의 마윈 회장 등을 거론하며 경제 살리기 약속을 강조했다.

화합의 메시지를 강조한 오바마 대통령과는 달리 트럼프 당선인은 기자회견장에서 언론에 불편한 심기를 그대로 드러내며 냉랭한 분위기를 만들었다. 트럼프 당선인은 러시아와의 관계를 놓고 자신에게 불리한 기사를 쓴 CNN과 버즈피드를 향해 "수치스럽다"며 직격탄을 날렸다. CNN 기자인 짐 아코스타가 질문하려 하자 "당신네 회사는 끔찍하다"며 "조용히 있으라"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반성하지 않는 파리 테러 주범 '부끄럼지 않다...'

2015년 11월 130명의 사망자를 낸 이슬람국가(IS)의 파리 테러 주범 가운데 유일한 생존자인 살라 압데슬람(27)이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현지 일간지 리베라시옹이 13일 보도했다.



벨기에에서 체포돼 지난해 4월 프랑스로 인도된 압데슬람은 그동안 법원 심문에서 줄곧 침묵을 지켰다. 그러나 자신과 편지를 주고받는 한 신원이 알려지지 않은 여성에게 이런 속내를 털어놓은 것으로 드러났다.

리베라시옹이 입수한 편지에서 압데슬람은 "우선 내가 부끄럼지 않기 때문에 나에게 관한 것이 새나가는 게 부끄럼지 않다"면서 "이미 나온 얘기보다 더 나쁜 말이 뭐가 있을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당신의 편지를 받고 즐겼는지는 모르지만, 바깥세상을 잠시나마 맛본 것 같다"고 적었다.

압데슬람은 이 여성이 자신에게 편지를 보낸 의도를 알고 싶다며 "당신이 나를 '스타나' 아이돌로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이다"면서 "존경해야 할 유일한 분은 알라신이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이 신문은 압데슬람이 교도소에서 여러 명에게 편지를 받았으나 이 여성에게만 답장했다고 소개했다. 압데슬람이 파리테러 경위를 설명할 것이라는 프랑스 당국의 기대와 달리 법정에서 침묵을 지키면서 그의 변호인은 지난해 10월 사임했다.

벨기에 출신의 프랑스 극적자인 압데슬람은 지난 2015년 11월 IS 파리테러 주범 가운데 유일하게 살아 남았다. 압데슬람은 프랑스로 이송되기 전 벨기에 경찰에 자신은 테러범 수송 등만 담당했다고 자신도 파리 인근 국립체육장인 스타드 드 프랑스에서 자폭할 계획이었으나 막판에 물러섰다고도 진술했다.

2015년 11월 13일 IS 테러범들이 프랑스와 독일 친선 축구 경기가 열린 스타드 드 프랑스를 시작으로 파리 시내 바타클랑 공연장, 카페, 식당 등에서 동시다발 테러를 저질러 시민 130명이 숨졌다.

"한국, 포퓰리즘정부 들어설 확률 20%"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12일 내놓은 '포퓰리스트 세해: 글로벌 희망과 공포의 열'이라는 제목의 글로벌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포퓰리즘 정부 확산에 대비해야 한다고 하면서 이런 분석을 내놓았다.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세계 20대 경제대국을 대상으로 향후 2-3년 이내에 포퓰리즘 정부가 들어설 가능성 분석한 결과, 11개국에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미국의 가능성이 66%로 가장 높았고, 멕시코가 30%, 브라질이 25%로 뒤를 이었다. 미국에 포퓰리즘 정부가 들어설 가능성이 100%가 아닌 것은 소속정당인 공화당이 포퓰리스트 정당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어 한국과 네덜란드, 프랑스의 가능성이 20%로 공동 4위에 올랐다. 한국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로 대통령선거가 치러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의 지지율이 3위 수준이며 점점 상승하고 있다고 이 기관은 설명했다.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극우 성향의 프랑스 대선후 보인 마른 르 펜 국민전선(FN) 대표가 당선될 확률은

20%라고 봤지만, 국민전선이 집권정당이 될 가능성은 10%로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전 세계적으로 포퓰리즘 정책은 이민과 무역, 통치방식에 중점을 두고 있어서 금융시장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지적했다.

포퓰리스트가 선거에서 승리한다면, 경제성장률 전망치 하향과 불안정 고조 요인이라는 설명이다. 이 기관은 주요 유로존(유로화사용 19개국) 주요국가 중 한 곳에서 포퓰리즘 정부가 들어설 가능성은 50%에 달한다고 하며, 이 경우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는 위기정책을 불러오는 것은 물론 유럽연합(EU)의 존재에 위협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가짜뉴스 범람에 '학교에서 뉴스진위 구분법 가르쳐야'

지난해 대선을 계기로 한바탕 가짜뉴스 소동을 치른 미국에서 고교생들에게 가짜뉴스를 식별하는 방법을 가르치도록 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13일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2명의 캘리포니아주 의원이 고교생들에게 일상생활에서 범람하는 정보 속에서 오도되고, 조작되고, 부정확한 소식 들을 걸러내는 방법을 가르치도록 하는 법안을 지역 의회에 제출했다.

빌 도드 주 상원의원은 주 교육위원회가 '미디어 독해' 과목을 신설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그의 제안은 고교생들에게 사회과목을 통해 학생들에게 비판적 사고와 독립적인 탐구 및 '디지털 시민권'에 대해 가르치도록 하고 있다.

도드 의원은 "조작되고 (독자들) 오도하는 뉴스의 증가는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면서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뉴스의 진위를 구분할 수 있도록 능력을 키우는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학생들에게 그들이 소비하는 미디어를 분석할 적절한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우리는 그들이 정확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로스앤젤레스에서는 지미 고메스 시의원이 유사한 법안을 제출했다. 그의 법안은 7-12학년생들에게 영어와 과학, 수학 및 역사 등 다양한 과목에 비판적 사고기술을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다.

고메스 의원은 2016년 선거가 '조작된 뉴스'로 촉발된 의도적인 선전캠페인의 부패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고 경고하면서 자신의 제안이 캘리포니아 젊은이들이 정확한 정보와 오도하는 뉴스를 판별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희망했다.

지난해 11월 스탠퍼드대 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 고교생 가운데 82%가 보도 뉴스와 광고를 구분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대선 기간 풍문(루머)과 거짓 보도들이 광범위하게 나돌았으며 선거 후 후보들은 서로 상대방이 거짓 뉴스를 퍼뜨렸다고 비난했다.

찰스턴 흑인교회 총기난사범에 사형선고

2015년 6월 17일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찰스턴의 흑인 교회에서 총기를 난사해 성경을 공부하던 흑인 9명을 죽게 한 범인인 백인청년 달린 루프가 10일 법원에서 배심으로부터 사형선고를 받았다.



중요범죄로 연방법에 의해 사형이 선고된 첫 사례다. 같은 배심은 지난달 루프에게 33건의 연방법 위반 범죄행위의 혐의를 인정했다.

내용은 중요범죄에 의한 살인(9건), 중요범죄에 의한 살인미수(3건), 살인에 의한 종교활동 방해(9건), 살인무기 사용과 살인미수에 의한 종교활동 방해(3건), 범죄적 폭력행사를 위한 총기살인(9건) 등이다. 배심은 루프가 어떤 참하나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고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한 혐의에 응하지도 않은 가운데 3시간의 속의 끝에 사형을 결정했다.

루프는 재판에서 자신의 범죄를 변명하거나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배심원들에게 자신은 정신적 질환이 전혀 없으며 해야 할 일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배심원들에게 "지금도 내가 할 일을 했다고 느낀다"고 말해 목숨을 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건넜다.

재현을 위한 노력?

2017년은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는 해이다. 개혁의 초석을 놓은 마르틴 루터의 사상을 따르는 교회들에게 매우 의미심장한 해이지만 대부분의 개신교회도 수년 전부터 올해를 뜻있게 보내기 위해 진지하게 준비하였다. 마치 세계 교회가 축제 분위기에 휩싸인 듯하다. 그렇다면 '종교개혁 500주년'을 지내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에 관심을 기울여야할까?

세계적으로 힘을 잃어가는 현대 교회가 16세기의 종교개혁의 불길을 받아 다시 힘차게 일어나자는 목소리가 이미 들리고 있다. 어두운 밤과 같은 상황에서 작게 시작된 종교개혁은 교회 역사의 큰 줄기를 바꾸는 강력한 개혁운동으로 발전되었다. 현재 500주년을 기념하며 계획하는 대부분의 다양한 행사들은 과거의 개혁운동이 이 시대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확신과 기대 속에 답을 찾는데 집중하고 있다. 종교개혁의 정신을 이해하고 수용하려는 노력에 관심을 가지고 동참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한 가지 명심해야 할 것이 있다. 종교개혁의 원리를 분명하게 이해하고 적용하면 반드시 이 시대의 교회가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 할 것인바 성급한 결론은 피해야 한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각성하는 태도는 바람직하지만 마치 올해 안에 무엇인가 대단한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처럼 흥분되어 달려들지 말자는 것이다. 교회의 현실에 적용할 수 해결책을 과거의 교훈으로부터 찾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임에 틀림이 없다. 역사의 교훈은 항상 우리에게 주어져 있었다. 우리가 눈을 돌리지 않았을 뿐이다. 진작 이런 움직임이 있었으면 훨씬 바람직하였을 것이라는 생각도 든다. 아무쪼록 다양한 행사를 통해 얻어낸 결과를 교회가 겸허하게 수용하고 곧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근본적 원리 2가지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는 말이 있다. 1907년, 한국교회는 '평양대부흥운동'을 경험하였다. 영적 황무지인 조선 땅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20여년 후에 일어난 영적 각성운동이었다. 그로부터 100년이 지난 2007년 한국교회의 상황을 예상 밖의 모습이었다. 세계 교회가 놀랄 정도로 괄목할만한 외적 성장이 중단되었고, 교회는 영적인 영향력마저 잃어버린 채 사회로부터 지속적인 공격과 비난을 받고 있었다. 각 교회와 교단의 지도자들은 마치 '평양대부흥운동' 100주년을 기다렸다는 듯이 다양한 행사를 계획하고 실행하였다. 가장 관심을 쏟았던 것은 지난 운

동을 재현하는 일이었다. 역사적 사실들을 객관적으로 파악한 결과로 얻은 부흥운동의 본질적 원리를 교회에 적용하지는 것이다.

결과는 기대와 달랐다. 2007년으로부터 10년이 흘렀다. 그간 한국교회는 영적 침체의 늪으로 더욱 깊게 빠져 들었다. 부흥운동이 재현되지 않았다는 결론이다. 그

에 다른 것이 없었다. 그러므로 죄를 슬퍼하고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가는 마음의 변화가 필요하였다. 그러나 마음이 근본적으로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는, 부흥운동을 기대하였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었다.

이 시대의 교회가 개혁이 필요하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더 이상 거

교회 역사의 마찬가지다. 지난 2천년 동안 하나님께서 주의 교회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에 대한 우리의 궁금증을 풀어준다. 성경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능력과 지혜로 열심히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나아가서 성경과 교회는 동일하게 하나님의 주관하시는 일에 대한 사람들의 다양

시대 교회의 종교개혁을 갈망하고 있다는 것도 하나님께서 교회의 주체가 되어서 교회를 새롭게 하시기를 바라는 염원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16세기 종교 개혁자들은 교회개혁의 필요성에 대하여 분명히 이해하고 있었다. 그들은 로마가톨릭교회의 오류를 성경의 진리로부터 찾아내어 지적하였다. 그

추어 중세 가톨릭교회의 오류가 무엇인지를 지적하는 일에 집중하였다. 중기와 후기 개혁자들은 성경이 말하는 올바른 교회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에 대한 연구에 몰두하였다. 비록 이들의 강조점이 달랐지만 대부분의 개혁자들은 더 이상 교회가 이런 모습으로 존속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결국 교회가 지닌 오류를 지적하는 일이나 진리의 체계를 세우는 일은 성경이 지시하고 가르치는 교회의 모습을 추구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였다. 그들은 창조 이후 구약시대를 걸쳐 오순절 사건과 함께 시작된 초대교회로부터 시작된 신약교회를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대리자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들이 교회를 순수하게 지키기 위해 부패를 제거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였기 때문이다. 그 결과 문제를 문제로만 보려하지 않았다. 그들은 교회를 바라보시며 아파하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진지한 반성의 끈을 놓치지 않았다.

4. 구원 역사에 대한 이해와 기대감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그가 역사의 목적을 설정하시고 모든 과정을 책임지신다는 것이다. 16세기 종교개혁은 특정시대에 큰 영향력을 끼친 종교운동이다. 중세의 암흑기를 마감하는 시기에 성경에 입각한 교회의 모습을 갖추기 위한 몸부림이 있었다. 그렇지만 엄격한 의미에서 16세기 종교개혁은 하나님의 구속역사의 한 부분에 속한 사건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성경은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역사를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인간의 눈에는 하나님께서 언약백성을 포기하시어 모든 소망이 끊어진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내버려두신 것과 같은 일이 반복되어 기록되어있다. 그러나 성경의 중심적인 가르침은 무엇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에 개입하시고 그들에게 살 길을 주신다.

성경이 가르치는 역사,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역사는 직선적인 것이다. 한번 일어난 일이 결코 동일하게 반복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시다. 16세기의 상황과 21세기의 상황은 결코 동일하지 않다. 교회가 지닌 표면적인 문제도 분명히 다르다. 그러나 지금이나 500년 전이나 교회를 통하여 구원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주체는 동일하신 하나님 한분이다. 의미 있는 역사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교훈이 된다. 그 구원역사는 우리의 머리와 가슴, 그리고 손과 발을 동시에 합치게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다. covenantcho@yahoo.com

종교개혁 500주년 - 무엇에 관심을 기울일까? (1)



조진모 목사 (필라델비아한인연합교회)

이유가 무엇일까? 지난 역사를 재현하려는 의지가 약하였기 때문일까? 아니다. 그 당시 부흥운동의 재현은 기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던 것이 있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두 가지 인데, 종교개혁 500주년에 적용되어야 한다.

하나가 누가 부흥운동 또는 종교 개혁운동을 주도하느냐 하는 것이

문할 여지가 없다. 올해 한 해 동안 개혁의 원리가 우리 앞에 제시될 것이다. 만일 자각과 결단에 머무른다면, 자칫 행사를 위한 행사로 마치게 될 것이다. 우리 교회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개혁의 과정에서 요구되는 핵심적인 실천적 내용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응하려는 강한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이다.

한 반응도 우리에게 가르쳐준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불신앙의 태도가 과연 어떤 결과를 불러왔는지 이해함으로써,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게 한다.

16세기 종교개혁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일이다. 루터를 포함한 신실한 종교 개혁자들은 자신이 아닌 하나님께서 교회개혁의 주체이심을 잊지 않았다. 향후 개혁의 역

들은 성경을 자신들의 판단과 행동의 기준으로 삼은 것이다.

그들이 짚은 어둠에 잠긴 중세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포기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지녔던 상황을 바라보는 안목은 결국 하나님의 관점에서 매사를 이해하는 것이었다. 물론 개혁자들의 신학적 성향에 따

역사 교훈의 현실 적용은 중요하나 성급한 결론은 피해야

부흥운동의 핵심은 ①하나님이 주체이심 ②진정한 회개

개혁자들은 하나님 관점에서 매사 이해, 하나님 일에 쓰임 받는다는 확신 있어

중요 관심 사항

1. 역사에 대한 관심 고취

역사는 과거에 일어났던 의미 있는 사건을 가리킨다. 성경을 예를 들어보자. 역사서라고 불리는 몇 권의 책이 국한되지 않고, 성경은 거의 모두 과거의 사건과 인물에 대한 역사서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 속에 일어난 일을 통해 영적 교훈을 받기 원하신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어떤 일을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한 기록을 통해 독자들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게 된다.

사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전혀 알 수 없었던 초창기 개혁자들의 자세는 더욱 그러하였다. 그들은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확신하였다. 성경 시대와 교회 시대를 구분하지 않으시고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개혁의 현장에 주인공으로 모신 것이다.

2. 상황을 바라보는 안목

16세기에 종교개혁이 필요하였다는 것은 그만큼 교회가 자신의 모습과 자리를 지키지 못하였다는 반증이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이

라 강조점에 차이가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그들 대부분은 자신들이 개혁을 주도하지만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는다는 확신이 있었기에 매우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깨달을 수 있었다.

3. 진지한 반성

16세기 종교개혁도 마찬가지였다. 초기 개혁자들과 중기 또는 후기 개혁자들의 강조점이 사뭇 달랐다. 초기 개혁자들은 성경에 비

다. 즉 운동의 주체에 대한 이해이다. "부흥운동은 성도들의 신앙으로 만들어진 것이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산물이었는가?" 이 질문이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원리를 잘 이해하고 바로 적용하면 개혁이 가능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가능한 것인가?"라는 질문에 바로 분명한 답을 지녀야 한다.

다른 하나는, 평양대부흥운동의 핵심이 회개였다는 사실을 파악하였건만 공허한 간헐적 외침으로 그쳤다는 것이다. 재현의 가능성은 진정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것 외

하나님의 구원계획 센타 GPS CENTER

영어판, 중국어판 책도 판매합니다

2017 상반기 세미나 일정

Table with 5 columns: 날짜, 지역, 장소, 이름, 전화번호. Lists seminar dates and locations across various regions like LA, Seoul, Gangwon, etc.



강사: 라흥채 목사

하나님의 구원계획, 다니엘, 요한계시록, 성경 세미나



도서 주문 하나님의 구원계획 센타 GPS Center

도서주문 연락처 (917)588-2934, (917)968-1024 / 주소: 27-23 Bayside Ln, #1FL, Flushing NY 11358

Email: Gpscenter2014@gmail.com / 미주크리스천신문 718-886-4400(NY), 323-665-0009(LA)(판매)

리더십 코멘터리 (34)



손동원 박사
(미드웨스트대학교 교수, 리더십학자)

파가니니의 외줄 바이올린 (Paganini's Playing with One String)

Strong leaders are made, not born.

로스앤젤레스에 간질을 앓는 여학생이 살고 있었다. 그녀는 하이스쿨 때 운동을 즐기는 아버지와 함께 조깅을 하게 되었다. 조깅 도중 발작이 날까 염려가 되었지만, 아버지의 격려로 시도를 결심했다. 놀랍게도 조깅 도중에 발작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녀는 여자로서 가장 먼 거리를 달려서 기네스북에 이름을 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그리고 기록 달성을 위해 달렸다. LA에서 샌프란시스코

로 고독한 결단의 순간으로 내몰린다. 그러나 외롭고 고독한 결단의 순간이 리더를 리더 되게 만드는 바로 그 순간이다. 결단이라는 말의 바탕에는 불확실성이 깔려 있다.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결단을 내리는 것이다. 누가 보기에 확실해 보이는 일이라면 굳이 리더의 결단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모호하고 불명확한 상태를 분명하게 밝혀주는 것이 리더가 해야 할 중요한 일 중의 하나이다.

새해에는 기업과 교회에서 중요한 결단의 순간이 더욱 빈번하게 발생할 것이다. 리더들에게 결단의 순간은 조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장정들을 의미한다. 역사학자들은 시니어들과 여성들 그리고 어린아이들까지 모두 합하면 대략 200만 명은 될 것이라고 추정한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공동체를 이루면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기 마련이다.

어느 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를 찾았을 때 모세는 하루 종일 사람들을 만나고 있었고, 사람들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세를 찾았다. 또한 모세를 만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장사진을 이루고 있었다. 모세의 심각성을 깨달은 이드로는 모세에게 문제 해결의 지혜를 가르쳐 준다. 그것은 모세와 백성 사이에 중간 리더들을 세워 작은 일들은 스스로 처리하도록 하는 조직 시스템이다.

개혁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중간 리더들이 효율적으로 세워져서 그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리더십을 발휘하여 자기가 담당한 사람들을 이끌어 나가야 한다. 또한 리더의 독단보다는 일을 효율적으로 처리해 나갈 수 있는 리더십 조직이 필요하다. 소망이 가득한 2017년을 맞이하여 아래의 리더십 원리들을 적극 활용하여 개혁에 성공한 교회가 되기를 바란다.

(Leadership Principles)

①Delegation of Power: 권한을 위임하는 교회가 되라. 공동체로서의 교

회는 한 사람에게 의해서 독단적으로 이끌려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교회 사역은 특정한 개인의 사적인 일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구성된 모두가 협력하여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나가는 거룩한 일이기 때문이다. 이드로는 모세에게 전부장, 백부장, 십부장을 세워 작은 일들을 스스로 처리하게 하고 모세는 중요한 일만 처리하여 효과적으로 백성들을 이끌 수 있도록 제안한다. 결국 모세는 권한을 위임함으로써 200만 명 이상의 일을 맡아 처리할 수 있는 효율적인 리더십 시스템 체제를 갖추게 된다.

2017년, 비전과 손잡고 비전의 꽃을 피우라

바이올린은 제1번 줄 E선, 제2번 줄 A선, 제3번 줄 D선, 제4번 줄 G선의 4개 줄로 되어 있고 현악기 중 제일 작은 악기이지만, 오케스트라의 리더로서 가장 중심적인 구실과 많은 역할을 담당한다.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파가니니가 바이올린을 연주 할 때 줄이 하나 끊어졌다. 그러자 그는 나머지 줄을 가지고 연주를 했는데 그만 또 하나의 줄이 끊어졌다. 파가니니는 당황하지 않고 그 나머지 줄을 가지고 연주를 계속했는데 또 한 줄이 끊어져 버렸다. 그는 침착하게 외줄(One String) 하나로 마지막까지

용기, 결단력, 책임감 있는 리더...교회는 권한 이임, 리더세우기, 리더십 교육해야 배신이나 갑작스런 환경변화에도 하나님 바라며 비전과 소망 갖는 2017년 되도록

까지, 샌프란시스코에서 오레곤까지, 오레곤에서 세인트루이스까지 그리고 세인트루이스에서 백악관까지 달렸다. 미국 대륙을 달리기로 마침내 횡단한 것이다. 물론 그녀의 곁에는 아버지가 함께 달리고 있었다. 백악관에 도착하여 클린턴 대통령과 악수하는 것으로 그녀의 긴 마라톤 여행은 끝이 났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렇게 달리는 동안 전국에 17개의 간질 환자를 위한 의료센터를 설립할 수 있는 수백만 달러의 돈을 모금했다는 사실이다. 뛰어난 리더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Strong leaders are made, not born). 2017년은 용기와 결단력 그리고 책임감이 강한 리더를 필요로 한다.

①Courage: 용기 있는 리더가 필요하다. 도덕적 용기와 육체적 용기는 난관을 극복하며 책임을 완수하는 리더의 역경지수의 문제이다. 역경지수(Adversity Quotient)가 높은 사람은 역경에 처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선다. 그러나 AQ가 낮은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는 사람이다. 용기 있는 리더는 환경의 어려움과 난관을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로 활용한다.

②Decision: 결단력 있는 리더가 필요하다. 리더는 평소 애무 고민 없이 지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수시

직과 교회의 사활을 결정한다. 결단력이 리더의 자질로 단연 손꼽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2017년의 세상은 유유부단한 천명보다 결단력 있는 한 사람의 리더를 원하고 있다.

③Responsibility: 책임감 있는 리더가 필요하다. 탁월한 리더인지를 결정하는 요소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책임감이다. 리더는 조직을 운영할 때 그들이 합의한 방향으로 이끌고 갈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한 철저한 인식과 실천 의지가 바로 책임감이다.

회사나 교회에 위기가 닥쳐서 조직원들이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때 회생하기 위한 재건을 지휘하며 조직구성원들에게 꿈과 소망을 불어넣어 주는 것이 리더의 책임감이다. 그는 열악한 환경과 음모를 꾸미는 자들의 위협에 굴하지 않는 용기와 회생에 대한 철저한 계획을 실천할 수 있는 책임감을 가진 변혁적 리더이다. 뛰어난 리더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희망과 믿음 안에서 새롭게 만들어져 나가는 것이다.

Biblical Leadership for New Leaders

구약성경 민수기 2장에 보면 출애굽 당시 인구가 장정만 60만 명이 넘는다고 기록하고 있다. 60만 명이란

회 한 사람에게 의해서 독단적으로 이끌려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교회 사역은 특정한 개인의 사적인 일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구성된 모두가 협력하여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나가는 거룩한 일이기 때문이다. 이드로는 모세에게 전부장, 백부장, 십부장을 세워 작은 일들을 스스로 처리하게 하고 모세는 중요한 일만 처리하여 효과적으로 백성들을 이끌 수 있도록 제안한다. 결국 모세는 권한을 위임함으로써 200만 명 이상의 일을 맡아 처리할 수 있는 효율적인 리더십 시스템 체제를 갖추게 된다.

②Qualified Leader: 자격을 갖춘 리더를 세우는 교회가 되라. 중간 리더들은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로 세워져야 한다. 이드로는 이렇게 모세에게 제안한다.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우라." 교회 직분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어야 하고 리더십 훈련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사역의 목적이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교회 리더가 되면 그 공동체는 위협해진다. 언제나 겸손하게 섬기며 순종하는 리더가 필요하다. 2017년 새해에는 교회 내에 이런 리더들이 많이 세워져서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바란다.

흥륭한 연주를 했다. 파가니니가 외줄로 끝까지 열심히 연주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음악을 사랑하는 정성이 있었고 그들을 믿었기에 끝까지 외줄로 연주를 할 수 있었던 것이다. 아인슈타인은 파가니니의 연주를 듣고 하나님을 발견했다고 한다. 그래서 '파가니니의 외줄 바이올린'이라는 말이 생겨났다. 조직과 교회라는 리더십의 현장에서 리더는 끊어진 바이올린처럼 잃어버린 것이 많이 있다. 믿었던 사람으로부터의 배신, 갑작스런 환경의 변화, 그러나 우리의 인생에 음악을 듣는 청중과 같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있기에 우리는 파가니니처럼 열심히 인생을 연주할 수 있는 것이다. 지금은 우리 모두가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지금 나는 어떤 믿음과 비전을 갖고 일을 하는 리더인지 생각해보자. 암울한 시대 속에서도 리더는 사람들에게 소망과 비전을 심어주어야 한다. 2017년은 용기와 결단력 그리고 책임감이 강한 리더를 필요로 한다. 나는 이 글을 읽는 당신이 권한을 위임하고 자격 있는 리더를 정기적으로 교육시켜 비전과 손잡고 비전의 꽃을 피우게 되기를 소망한다.

sondongwon@gmail.com

일상칼럼



변명혜 박사
(아주사퍼시픽대학교 교수)

독수리의 인내

독수리는 빠르고 날개에 힘이 센 새여서 새 중에 왕으로 일컬어지는 새다. 성경에서는 독수리가 33번 등장하는데 많은 경우 바람을 타는 강한 날개, 새끼를 날개로 받아주는 생동력 있고 강한 모습으로 묘사된다. 그런데 몇 주 전에 독수리의 새로운 모습을 볼 기회가 있었다. 크리스마스 휴가로 오랜만에 친구 집사님 가족과 아이들과 함께 짧은 여행을 다녀왔는데 어느 날 저녁 식사 후 아이들과 함께 독수리가 알이 부화되는 것을 기다리며 품고 있는 것을 실시간 중계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 플로리다에서 서식하는 어미 독수리 해리엇과 아빠 독수리 M15(2015년에 나타난 남자독수리로서 이름이 male15이라고 한다)이 교대로 이제 곧 부화될 알을 품고 있는 것을 실시간 중계하는 것이었다.

독수리는 알을 품고 있던 지 35-40일 만에 알이 부화된다고 한다. 우리가 지켜보기 시작한 것이 35일이 지난 후였기 때문에 TV에서는 계속 이제 곧 부화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었다. 우리 막내와 친구 집사님 사위가 가장 큰 관심을 보여서 우리도 잠잠히 숙소에 머무는 시간은 계속 독수리 알이 부화되기를 기다리며 지켜보았다. 어미 독수리 해리엇은 많이 늙었고 아빠 독수리는 젊었다고 한다. 지켜 보이는 엄마에게 와서 아빠 독수리가 날개에 발 하나를 올려놓으니까 얼마 독수리가 알을 아빠에게 넘겨주었다. 말도 못하는 독수리들이 어떻게 서로 교대로 알을 품는지 신기했다.

지켜본지 하루 지나서 품고 있던 두 개 중 하나의 껍질에 작은 금이 생겼는데도 새끼 독수리가 틀어지 지나도록 나오지 않고 있었다. 아이들 말에 의하면 껍질이 깨어지기 시작하고 밖으로 나오기 전에 새끼 독수리는 생존을 위해 많은 일을 해야 한다고 한다. 지켜보는 우리도 답답하게 시간이 길었다. 드디어 집으로 돌아오는 날 이른 아침에 꼭 병아리 같이 귀여운 새끼 독수리가 알을 깨고 나왔다. 알 하나는 무슨 이유인지 결국 부화되지 않았다. 알이 부화되기를 기다리는 동안은 새 중의 왕인 독수리도 어느 새와 마찬가지로 꼼짝도 하지 않고 긴 시간을 인내하며 알을 품고 있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아주 지루한 독수리 알이 부화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보았다. 현대인들은 '서두르는 병'(hurrying disease)에 걸렸다고 한다. 모든 것이 빠르게 돌아가는 인터넷 시대여서 꾸준히 참고 기다리라는 것이 쉽지 않은 시대이다. 자녀들이 자기의 갈 길을 찾아가는 시간을 끌어도 부모 마음이 답답해지기 시작하고,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배우자의 모습에 좌절이 되기도 한다. 매일 마음을 다해 주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가 바로 응답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실망하거나 기도할 힘을 잃기도 한다. 그러나 새끼 독수리가 알을 깨고 나오기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이 꼭 필요한 과정이듯이 우리가 바라고 기도하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과정에도 인내가 필요한 것 같다.

독수리가 사람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다면 긴 시간 피곤하게 알을 품고 있는 해리엇과 M15에게 '힘 내! 조금만 더 기다려. 이제 곧 새끼가 나올 거야'라고 말해주고 싶었는데 아마 우리 하나님도 참으며 기다리며 주님만을 바라보는 우리를 그렇게 격려해주고 싶으실 것 같다.

우리를 우리 자신보다 더 잘 아시는 좋으신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우리에게 가장 최선의 것을 주실 것을 바라보며 믿으며 올 한해도 성령의 열매인 인내를 간구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한다.

lpyun@apu.edu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기타지역 교회

<p>갈보리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웅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오후예배: 오후 2:00 수요기도회: 오후 7:30 세례기도회: 오후 5:30(월-금) 오전 6:00(토) Tel: (702)579-7576, Fax: (702)257-9191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p>	<p>몽고메리교회 담임목사: 최해근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매일세례기도회: 오전 6:00 Tel: (610)222-0691, 267-471-7777 7635 Dean Martin Dr., LV NV 89139 www.omvchurch.org</p>	<p>벅스카운티장로교회 담임목사: 김봉운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영 아 열 배: 오전 10:00 금요찬양: 오후 8:00 수요찬양: 오후 8:00 Tel: (410)461-1235, Fax: (410)461-6823 1550 Woodbourne Rd., Levittown, PA 19057 http://www.bethelchurch.org/</p>	<p>벤엘교회 담임목사: 백선중 주일 1부예배(한): 오전 7:00 주일 2부예배(한): 오전 8:15 주일 3부예배(한):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영양): 오후 1:45 EM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세례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907)344-6446, Fax: (907)344-3182 8200 Briarwood St., Anch., AK 99518 http://www.bethelchurch.org/</p>	<p>보스턴장로교회 담임목사: 장성철 주일한국어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어예배: 오전 11:00 세례기도회: 오전 6: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수요예배: 오후 8:00 대학청년부: 오후 1:30 중고등청년부: 오전 10시 (한), 오전 11시 (영) 유년: 유년: 오후 2:00 Tel: (508)425-4579, Fax: (508)435-5467 2 Main St., Hpkinton, MA 01748</p>	<p>샬럿장로교회 담임목사: 나성균 주일아침예배: 오전 10:45 토요세례기도: 새벽 6: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대학청년부: 오후 1: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전 10:45 중, 고등부예배: 오전 10:45 Tel: (704)877-6642, Fax: (704)529-0900 701 Scaleybar Road, Charlotte, NC 28209</p>	<p>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p> <p style="text-align: center;">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p>시애틀평강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은일 주일영어예배: 오전 10:00 주일2부예배: 오전 11:15 수요저녁예배: 오후 7:30 세례기도회: 오후 6:00(월-금) 토요일: 오전 6:30 Tel: (206)527-0981, Fax: (206)524-9746 4040 N.E. 105th St., Seattle, WA 98125 www.kpcoseattle.org</p>	<p>안다옥교회 담임목사: 강준수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세례예배: 오전 6:00(월-토) Tel: (702)749-9929, Fax: (702)778-6876 7635 Dean Martin Dr., LV NV 89139</p>	<p>알칸사 제자들교회 담임목사: 전남수 주일오전예배: 오전 11:30 주일2부예배: 오전 4:0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찬양: 오후 8:00 세례예배: 오전 6:00(월-토) Tel: (501)920-9049, 사해: (501)425-5178 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 www.ljehs.org</p>	<p>앵커리지벨리문교회 담임목사: 유재일 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1:00 주일부흥: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00 Tel: (907)344-6446, Fax: (907)344-3182 8200 Briarwood St., Anch., AK 99518</p>	<p>엘파소열리문교회 담임목사: 하태수 주일 1부예배: 오전 9:00(영아)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저녁예배: 오후 7:30 Tel: 교회: (915)755-1490, 사해: (915)751-4365 3416 Atlas Ave., El Paso, TX 79904</p>	<p>영성장로교회 담임목사: 백운영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2:00 주일부흥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전 8:00 세례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704)542-0288, Fax: (704)542-9037 706 Wilmer Rd., Horsham, PA 19044</p>	<p>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p> <p style="text-align: center;">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p>킬린노누리교회 담임목사: 김성현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0:50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 금요저녁예배: 오후 8:00 토요청년모임: 오후 3:00 세례예배: 오전 5:30(월-금) Tel: (254)634-8705(H), (254)501-4933(C) 1000 E. Veletrans Memorial Blvd., Killeen, TX 76541</p>	<p>워싱턴메시야장로교회 담임목사: 한세영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1:30(EM)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세례예배: 오전 5:30(월-토) www.mpcow.org Tel: (703)941-4447, Fax: (703)941-4448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p>	<p>주예수교회 담임목사: 배현찬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세례예배: 오전 6:00(토) www.jkc.org Tel: (804)560-7500, Fax: (804)560-7514 10201 Robius Rd., Richmond, VA 23225</p>	<p>타코마 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장호 주일 영어예배: 오전 8시 주일 1부예배: 오전 8시 50분 주일 2부예배: 오전 11시 영아예배: 오전 11시 수요예배: 오후 7시 세례 기도회: 오전 5시 30분 (월-토) Tel: (253)536-8675, (253)888-9249 9424 S. Yakima Ave., Tacoma, WA 98444 www.laconmcc.org</p>	<p>필라델피아 한인연합교회 담임목사: 조진모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1:00 원년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45 세례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215)927-0630, Fax: (215)927-0643 1200 W. Cheltenham Ave., Philadelphia, PA 19126 www.kuco.org</p>	<p>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p> <p style="text-align: center;">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p>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p> <p style="text-align: center;">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목회서신

현대판 50가지 성경적 잠언



이재근 목사 (주사랑선교교회 담임)

성경의 잠언은 주제별로 엮은 격언집입니다. 잠언의 내용을 한 마디로 요약하면 '지혜' 즉 '슬기로운 삶을 사는 능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자는 지혜의 왕 솔로몬(1-29장), 아굴(30장), 르무엘(31장)입니다. 성경의 잠언은 31장이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고 32, 33... 계속 이어져야 합니다. 현대에도 성경적 잠언이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현대판 50가지 성경적 잠언을 편집해 보았습니다.

1. 기쁨으로 수용하라. 기뻐하면 기뻐할 일만 생겨난다. 2. 힘든 것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감사함

으로 수용하라. 3. 믿음의 열도를 10배로 늘려라. 100배의 수확이 보장된다. 4. 진리가 아니면 따르지 말라. 길 한 번 잘못 들면 평생 후회한다. 5.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하늘이 좋아하는 자가 되라.

6.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 어리석은 사람은 길을 두고 모로 간다. 7. 지혜로운 사람은 행동으로 말을 증명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말로 행위를 변명한다. 8. 머리를 써라. 머리는 하늘이 나에게 준 보물 창고다. 9. 먼저 부모를 공경하라. 자손 대대로 번영한다. 10. 복을 달라고

안달하지 말라. 복을 담을 그릇을 먼저 만들어라.

11. 항상 감사하라. 감사할 때 축복의 손길이 나에게 다가온다. 12. 남의 잘못은 한 눈을 감아라. 잘못을 볼 때는 두 눈을 크게 떠라. 13. 끊임없이 기도하라.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14. 가정은 행복을 만드는 성전이다. 성전을 빛나게 하라. 15. 문제가 생긴 다음 기도하지 말라. 평상시부터 거래를 타라.

16. 아낌없이 베풀어라. 샘물은 퍼낼수록 맑은 물이 솟아난다. 17. 세상을 향해 축복하라. 세상도 나를 향해 축복해준다. 18. 노노니 기

도하라. 기도는 소망 성취의 열쇠다. 19. 약속은 꼭 지켜라. 사람이 못 믿는 사람, 하늘도 못 믿는다. 20. 불평을 하지 말라. 불평은 자기를 파괴하는 자살폭탄이다.

21. 원망 대신 모든 일에 감사하라.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생겨난다. 22. 남의 잘한 일만 보고 박수를 쳐라. 그래야 복을 받는다. 23. 자신을 칭찬하라. 자신은 사랑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다. 24. 좋은 말만 사용하라. 좋은 말은 자신을 위한 기도다. 25. 걱정 할 일이 있으면, 기뻐할 일도 있다.

26. 하나님에게 성내도 괜찮다. 하나님은 너의 분노를 감당하실 수 있으시니라. 27. 눈 깜박할 사이에 모든 것이 변할 수도 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은 절대로 눈 깜박하시지도 않으신다. 그러므로 그를 믿고 걱정하지 말라. 28. 하나님은 그의 본성이 그래서 너를 사랑하는 것이지, 네가 될 때까지, 안 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29.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살면 잠시

는 행복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원칙대로 살면 불행한 것 같으나 행복하다. 30. 하나님이 인간을 빈손으로 이 세상에 내려보낸 이유는 누구나 사랑 하나만으로도 이 세상을 충분히 살아갈 수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31.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려면 꼭 문제(시험, 고난)를 주신다. 32.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하기 전에는 남을 사랑할 수 없다. 33. 하늘에 보화를 소유하지 못한 것은 내가 너무 많은 것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34.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내 방법만 버리면 된다. 35. 인간은 자기가 지은 죄를 감추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죄를 폭로하시는 분이시다.

36. 고난의 보자기를 뒤집어 보라. 그 속에 축복이 있다. 37. 사람이 교만하면 가르치려고 한다. 38. 물과 기름이 하나가 될 수 없듯이, 선과 악도 하나가 될 수 없다. 39. 배변 듣는 것보다, 한 번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40. 성령은 지식으로 알 수 없고, 체험으로 안다.

41. 문제에는 해답이 있다. 해답 없는 문제는 없다. 고난에는 끝이 없다. 끝없는 고난은 없다. 42. 고난 하지 말라. 애써 얻은 행복마저 한 순간에 날아간다. 43. 가정을 위해 기도하라. 가정은 희망의 발원지요 행복의 중심지다. 44. 웃는 얼굴에는 축복이 따르고, 화내는 얼굴에는 불운이 괴물처럼 따른다. 45. 불행 중 다행은 있어도, 다행 중 불행은 없다. 안심하고 살아가라.

46. 불행 다음에 행복이 온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행복표를 예약한 사람이고, 불행은 끝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불행의 변호표를 들고 있는 사람이다. 47. 말로 상처를 입히지 말라. 칼로 입은 상처는 회복되지만, 말로 입은 상처는 평생 간다. 48. 그림자는 빛이 있기 때문에 생겨난다. 어둠을 타박 말고 몸을 돌려 태양을 보라. 49. 사람의 얼굴은 하나의 풍경이요, 한 권의 책이다. 얼굴은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50. 웃음으로 시작하고 웃음으로 마감하라. 여기가 천국이다. jaekunlee00@hotmail.com

상임의장 고석희 목사, 사무총장 이승중 목사 KWMC 제 29차 전국연차총회 열고 5개항 결의

기독교한인세계선교협의회(KWMC)가 지난해 11월 21일부터 사흘간에 걸쳐 뉴욕 소재 예수학당(대표 고석희 목사)에서 제 29차 전국연차총회를 열고 5항에 걸쳐 주요 결정을 내렸다.



고석희 목사



이승중 목사

사 선임 3) "KWMC 30년사" 발간 4) 제 9차 한인세계선교대회 장소는 미 전역을 순회하며 2017년 연차총

제 10회 올네이션스 연합기도 컨퍼런스 29일, SF 베이 지역 초교과 30여 민족교회 모여

글로벌다민족국제선교교회연합회(GIM, Global International Missions, 대표 정윤명 목사)가 주최하는 미국과 열방의 회복을 위한 제 10회 올네이션스 연합기도 컨퍼런스(All Nations Intercessory Union Prayer Conference)가 개최된다.

함해 갖게 되는 이번 컨퍼런스는 뜨거운 합심연합 기도회 이어 특별찬양순서(민족 위십찬양)도 갖고, 각 민족들의 처한 특별기도 요청, 동영상 프레젠테이션으로 열방의 중요 기도요청 현황을 이해하며 협력의 장이 되게 된다.

특히 북한의 핵 공격위협과 정치적 불안이 야기되고 있는 한국의 특별상황에 대한 기도요청 프레젠테이션도 있게 된다.

북가주의 초교과 여러 민족교회가 모여 진행되는 2017년도 연합기도 컨퍼런스에서는 특히 미국의 회복을 위한 특별기도 선언문(12기도문) 채택과 메시지에 이어 열방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여러 민족의

회 때 결정 5)KWMC 본부를 샌디에고로 이동.

새 조직은 상임의장 고석희 대표의장 나광삼 △중앙의장 호성기 △실행위원장 이상진 △공동의장 김남수 배현찬 한기홍(5명 신입의장 인선예정) △사무총장 이승중.

또한 "KWMC 30년사" 발간을 위한 자료(사진포함)들은 예수학당(Jesus Academia, 1330 Wolver Hollow Rd, Oyster Bay, NY 11771)로 보내주기를 바라고 있다(전화 516-277-2081, 이메일 JohnKo@JesusAcademia.net).

한편 KWMC 본부 새 연락처 전화는 (858)449-0191, 이메일 kwmc@kwmc.com으로 하면 된다. (유원정 기자)

연합 합심기도(All Nations Union Chain Prayer)도 갖게 된다.

2016년도 샌프란시스코 연합기도 컨퍼런스에 이어 2017년도의 미국회복 선언문의 작성에는 게이트웨이신학교(총장 Jeff Iorg), 풀러신학교 등의 많은 교수진들과 SF 지역 미국의 여러 민족회자들이 함께 캘리포니아에 처한 상황을 바탕으로 2017년 미국 회복 선언문을 기초해 발표할 예정이다.

일정은 1월 29일(주) 오후 6시30분 미국 주류교회 First Christian Church(담임 Doug McCoy 목사)에서 Christ church of All Nations(담임 Benjamin Utomp 목사)와 공동호스트로 열리게 된다. 이에 앞서 당일 오후 5시 15분부터 저녁식사가 제공된다.

문의: GIM 본부(925)639-9527, 988-9191, 호스트교회: (925)212-4662, 818-5450



미주성결교회 남가주 교역자회 신년하례회에서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미주성결교회 남가주교역자회 신년하례회

미주성결교회의 남가주에 있는 3개 지방회로 구성된 미주성결교회 남가주교역자회(회장 안중기 목사) 2017년 교역자 신년하례회가 지난 8일 저녁 4시 유니온교회(담임 김신일 목사)에서 열렸다. 지방회원들은 신년각오와 덕담을 나누며 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다.

부회장인 김희창 목사의 사회로 시작된 1부 예배는 남서부지방회장 권다윗 목사의 기도와 교역자 일동의 찬양 후에 유니온교회 원로 이정근 목사가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정근 목사는 함생신학을 기반으로 목회사역을 기록한 최근 저서 "목회자의 최고 표준 예수 그리스

시다레인 초중교 한국어이중언어프로그램 개설 미주한인의 날 학부모/지역사회 심포지엄 개최

하시엔다 통합교육국(교육감 신시아 콜퍼)이 2016년 신학기부터 시다레인 초중학교 K-8(교장 앨런 박)에서 한국어이중언어프로그램(Korean Dual Immersion Program)을 개설했다. IKEN과 동부한인회는 하시엔다 교육국의 한국어이중언어프로그램의 효과적인 시행을 돕기 위해 이 지역의 커뮤니티와 학부모들을 위한 세미나를 실시할 계획이다.

오는 1월 28일(토) 오후 12시45분 미주한인의 날 기념행사를 겸한 학부모 세미나에서는 "21세기의 성공적인 자녀교육방법"이란 주제로 진행되며 한국어반 학생들과 학부모를 위한 한국문화 공연, 한국음식 시연 등 다채로운 행사에 많은 한인 동포들의 참석을 바라고 있다. 시다레인 초중학교는 한국어이중언어프로그램에 유치원/1학년

도"를 선물하며 간증했다.

이어 LA지방회장 오서택 목사와 LA동지방회 부회장인 안신기 목사의 인도로 △기회를 맞은 조국, 교단과 지방회를 위하여 △교회와 교역자들을 위하여 합심으로 기도했다.

부총회장 이상복 목사의 신년덕담으로 격려사와 유니온교회 당회에서 인사했고 본 회장인 안중기 목사가 부인의 수훈과정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소개했으며 신원철 원로목사의 신유기도와 축도로 마쳤다.

예배 후 3개 지방회의 교역자 소개와 인사, 총회 직원인사, 신학교 직원인사를 하고 기념사진을 찍었다.

만찬은 유니온교회에서 정성으로 준비했으며 선물을 나누며 서로 격려했다.

특히 회장 안중기 목사 부인이 암 재수술을 받는 등 어려움이 많았는데 교단적으로 모금운동을 펼쳐 수만 달러의 후원금을 전달했다.

(기사제공: 미주성결교회 남가주교역자회)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권장하고 있으며 하시엔다, 로렌하임, 다이아몬드바, 윌턴, 플러턴 등 인근 지역의 프리스쿨이나 학부모님들에게 안내 편지가 발송될 예정이다.

세미나에 참여하는 학부모들에게는 등록 우선권이 주어진다.

이중언어 프로그램 등록 사이트(http://bit.do/dualprogram2017)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세미나 장소는 시다레인 초중학교 16333 Cedarlane Drive, Hacienda Heights.

문의: (626)933-8001

제4회 선교적교회 세미나 2017.3.13(월)~15(수)

선교적 교회와 목회 리더십

Missional Church and Pastoral Leadership



이학준 교수

조직신학 Fuller Theological Seminary G2G 크리스찬 교육센터 소장



신혁선 교수

사회복지 Virginia Commonwealth Univ. YOUTH KOSTA 멘토



최병호 목사

베다니 장로교회 담임 아시안 아메리칸 센터 이사장 미국장로교 한인교회 국내 선교위원장



배현찬 목사

주예수교회 담임 DSMC 원장 KWMC 공동의장



노승환 장로

주예수교회 장로 심장내과의사 단기 및 전문인 선교사역

담임목사님과 함께 등록하시는 평신도 지도자 적극 환영!

- 장 소: 주예수교회 디아스포라 사회선교센터
○ 등록비: \$100 (교재및 숙식)
○ 주 최: 디아스포라 사회선교원 (DSMC)
○ 협 력: NCKPC (미국장로교 한인교회 전국 총회) 국내 선교 위원회

- 숙 박: Four Points by Sheraton Richmond
○ 등 록: 주예수교회 전화 및 홈페이지 (www.ljkc.org)
○ 주 관: 주예수교회 (Lord Jesus Korean Church)

주예수교회/디아스포라 사회선교원 10201 Robious Road, Richmond, VA 23235 (804)560-7500/7509 WWW.LJKC.ORG

동부교계 기사판



뉴저지교협 2017년 신년하례예배

뉴저지한인교회협의회(회장 김종국 목사) 제 30회 2017년 신년하례예배가 22일(주) 오후 5시 한소망교회(담임 김귀안 목사)에서 개최된다.

뉴욕리폼드신학교 불학기 학생 모집

뉴욕리폼드신학교(원)(NYRBS, 학장 이상열 박사)가 2017년도 가을 학기 신입생을 모집한다. 모집학과는 △대학부: 신학과(고졸, 4년) △대학원: 목회학(대졸, 3년), 선교학(대졸, 2년), 교육학(대졸, 2년), 상담학(대졸, 2년), 음악학(대졸, 2년)이며 서류는 입학원서, 학력증명서, 소명서, 이력서, 추천서가 필요하다.

뉴욕영안교회 성전이전 감사예배

뉴욕영안교회(담임 김경열 목사) 성전이전 감사예배가 29일(주) 오후 5시 열린다. 새 주소는 59-26 Kissena Blvd, Flushing, NY 11355.

뉴욕장로연합회 신년감사예배

뉴욕장로연합회(회장 손성대 장로) 신년감사예배가 오는 23일(월) 저녁 7시 하크네시아교회(담임 전광성 목사)에서 열린다. 이번에는 특별히 불우이웃 돕기와 노숙인 사역, 그리고 지역 사회와의 유대강화를 위해 50여명의 노숙인과 불우이웃들이 초청하며 후원금을 전달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개혁하자” 뉴욕교협 2017 신년감사예배 및 하례만찬

뉴욕한인교회협의회가 16일 2017 신년감사예배 및 하례만찬을 갖고 2017년을 시작했다.

회장 김홍서 목사는 “2017년 희망의 새해를 말하지만 그렇게 희망적이지는 않은 것 같다”며 “올해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오직 성경, 오직 믿음 등의 5대 솔라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가 시작되는데 그 시작은 회개이며 회복”이라고 강조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성경 속에서 해답을 찾고 무릎 꿇어 작은 예수를 살아갈 때 진정한 개혁이 있게 된다. 그럴 때 교회가 변화되고 사회개혁으로 확산된다. 개혁의 해에 믿음으로 무장하고 소금과 빛의 사명을 다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와 이민사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신년사를 전했다.

저녁 7시 플러시 대동연회장 홀에서 열린 1부 예배는 부회장 이만호 목사 인도로 대표기도 문석호 목



뉴욕교협 2017 신년감사예배 및 하례만찬에서 뉴욕권사선교협창단이 “할렐루야”를 찬양하자 참석자들이 기립해 찬양을 듣고 있다.

사, 성경봉독 강영규 장로, 찬양 권사선교협창단, 설교 이규섭 목사, 특별합심기도 김희복 목사, 봉헌기도 이상호안수집사, 헌금특송 이희정 선생, 축도 김용걸 선부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규섭 목사는 “억지임금”(요

6:14-15)이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기쁘게 만날 것을 기대하고 산다”며, “그러나 본문에서 말씀을 들으려고 모인 사람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주님께 사람들은 ‘그 선지자’라며 모세를 생각하고 왕을 삼으려 했다. 그래서 예수님은 피하셨다”고 말했다.

이 목사는 “우리로 혹시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지 않는지 살펴야 한다”고 말하고 “사사시대에 왕이 없어서 혼란했던 것이 아니고 하나

뉴저지초대교회 한규삼 목사, 서울충현교회로

뉴저지초대교회 한규삼 목사(사)가 서울 충현교회의 청빙을 받아 오는 6, 7월경 사임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한규삼 목사의 사임 소식은 1월 8일 열린 공동의회와 순장교육을 통해 공고했다고 인터넷 언론 아멘넷(대표 이종철)은 전했다.

한규삼 목사는 “충현교회에서 청빙당회를 거쳐서 결과를 알렸고, 1월 22일에 공동의회를 하기로 했다. 충현교회가 공동의회 등을 포함 모든 청빙 과정을 마치면 그 이후 확정하려고 한다”고 아멘넷이 보도했다.

남가주 세계교회회 담임이었던 한규삼 목사는 2009년 이재훈 목사의 한국행으로 공석이 된 초대교회 담임목사로 결정돼 그해 7월 취임예배를 드린 바 있다. 한규삼 목사는 초대교회에는 공동의회와 순



장모임을 통해서 진행되는 사실을 알렸다고 하며, 초대교회가 아주 성숙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감사한다고 밝혔다.

1953년 김창인 목사가 개척한 한국 충현교회는 예정합동 소속으로 한때 교단 최대 규모로 성장했다가 교회내 문제로 교세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역삼동에 있는 충현교회는 김창인 목사의 세습교회, 김영삼 장로가 출석하던 교회로 유명세를 탄 바 있다.

(경라: 유원정 기자)

뉴욕성결교회 3대 담임에 이기응 목사

뉴욕성결교회(장석진 원로목사) 제3대 담임목사에 이기응 목사(52세, 사신)가 결정됐다.

뉴욕성결교회는 1월 8일 2017년 제41회 정기 사무총회에서 한국 신광성결교회 이기응 목사를 담임목사로 결정했다. 전임 강기성 목사가 사임한지 1년 만이다.

이기응 목사는 서울신대학교 신학과와 아세아연합신대학교 신대원을 졸업하고 1995년 목사안수를 받았다. 1999년부터 담임목회를 시작했으며, 2004년부터 신광교회 담임목사로 있다가 청빙을 받았



다. 이기응 목사는 컨셉 전도법을 개발했으며, 100인의 부흥사, 국민일보 선정한 국교회를 빛낸 목사 100인에 선정되기도 했다.



KAPC 뉴욕노회 신년단합대회 참석자들이 예배 후 기념촬영 했다.

“하나님을 찾으면 회개와 변화 일어난다” 11일 KAPC 뉴욕노회 신년단합대회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뉴욕지구 5개 노회가 연합신년하례회를 가진 이틀 후인 11일 뉴욕노회(노회장 황경일 목사)가 퀸즈장로교회(담임 김성국 목사)에서 모임을 갖고 노회원들 간의 신년단합을 재 다짐했다.

1부 예배는 허윤준 목사 인도로 기도 정기태 목사, 말씀 이규본 목사, 신년축사 황경일 목사, 광고 이종원 목사, 축도 장영준 목사 순서로 진행됐다.

이규본 목사는 “여호와를 찾으라”(암5:1-6)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우리는 미래를 모르고 살아가지만 성경은 우리의 미래에 대해 말씀하고 있다”며 “아모스 선지자는 풍요를 누리려는 이스라엘에게 여

호와를 찾으면 살 것이라고 말씀한다. 이것은 예배드릴 때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의미다. 먼저 죄에 대한 회개가 있게 된다. 두 번째는 변화가 일어난다. 타인을 섬기고 타인을 기쁘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것이다. 하나님을 찾으면 살게 되는 교회, 노회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노회장 황경일 목사는 “주위 환경을 보고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엘리자처럼 겸절을 능력을 주셔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라고 축사했다.

노회원들과 참석 가족들은 퀸즈장로교회에서 준비한 애찬 후에 계임을 하며 친교 시간을 가졌다. (유원정 기자)



왼쪽부터 엄태웅, 박유나, 홍윤 학생과 이노비 강태욱 대표

이노비 청소년봉사자에 상장 전달

이노비는 지난 12월 24일 맨해튼 드윌양로원(DeWitt Nursing and Rehabilitation Center)에서 크리스마스 아웃리치를 마치고 참여한 봉사자들, 부모님들과 함께 지난 한해 이노비를 통해 봉사에 참여한 3명의 고등학생 봉사자에 대해 대령장 수여식을 포함 이노비 자원봉사자들의 상장 전달식을 가졌다.

상장을 받은 학생들은 브루클린 테크 고등학교 12학년 홍윤(대통령 봉사상 동상 수상), 테너플라이 고등학교 11학년 엄태웅(이노비봉사상, 인턴십수료증 수여), 한터칼리지 고등학교 10학년 박유나(이노비봉사상 수여) 등 총 3명이다.

이들은 지난 1년 동안 이노비 아웃리치 공연 행사진행과 PR, 마케

팅 등 다방면의 활동을 통해 소외된 분들을 돕는 봉사활동으로 이노비에서 꾸준히 봉사해왔다. 이 날 이노비 봉사상을 수상한 박유나 양의 부친인 로버트박씨는 “학업 등 바쁜 와중에도 이노비를 통해 소외된 분들을 직접 만나고, 좋은 일을 할 수 있어 본인도 많이 참여하고 싶어하고 부모로서도 계속 서포트를 하려고 노력한다. 요즘 세상에 가지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다하고 자라는 아이들이 세상이 아직도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과 좋은 일을 하고 난 기쁨 등을 어려서부터 느끼게 해주고 싶고, 본인도 느끼는 게 많은 것 같다”라고 봉사활동의 중요성을 전했다.

(기사제공: 이노비)

Worldwide Church Directory for NY, NJ, and Hawaii. Includes contact info for various churches like 뉴욕부러클린제일교회, 뉴저지성도교회, 리빙스톤교회, 에벤에셀선교회, 예사랑교회, 퀸즈장로교회, 컨츠안인교회,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회회를 찾습니다, 브라질 새소망교회, 아르헨티나 제일교회, 칠레 한인연합교회, 토론토 가든교회, 파라과이선교본부교회, 하와이 행복교회, 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

선교지 대학들의 모임 PAUA 제10차 대회

2월 1-4일 플러신학교, 미 주요도시로 시스템 구축

PAUA(사무총장 강산 선교사 Pan Asia, Africa, America Universities Association) 제 10차 대회가 남가주에서 열린다.

PAUA 관계자들을 13일 오후 2시 로텍스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본 대회를 소개했다.

PAUA는 기독교대학들이 본래의 설립목적에 제대로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지난 2008년 발족돼 아시아와 아프리카, 그리고 아

메리카 지역에서 선교를 목적으로 한인 기독교인들에 의해 설립됐거나 운영되고 있는 일반대학들의 연합체로 현재 10개 정회원 대학과 10여개의 준회원 대학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대회는 △PAUA 대학들이 한인 기독교인의 선교열매임을 보고하고 감사하는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이를 통해 미주지역 교계가 격려를 받고 교육선교에 더욱 깊은 관심을

갖는 기회를 삼으며 △미국 내 교수자원을 모바일이징해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설립된 16개 PAUA 회원

대학들에 연결시키며 △대회를 통해 미국 내 여러 기독교대학, 기독교전문기관들과 동역의 장을 만들어 협력하며, 향후 미국 주요도시로의 PAUA 사역확대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목적으로 열게 된다.

대회는 오는 2월 1일(목)부터 4일(주)까지 플러신학교에서 열린다. <박준호 기자>



PAUA 스태프들



남가주 군사령 한국예비역기독교인회 출범을 알리는 행사가 영생장로교회에서 열렸다

남가주 군사령한국예비역기독교인회 출범 2017 정기총회 및 신년축하예배

남가주군사령 한국예비역기독교인회가 1월 14일 출범했다.

출범식은 14일 영생교회에서 50여명이 모인 가운데 공동회장인 김희창 목사의 사회로 진행됐다. 우선 양 기관인 LA군사령선교회를 김희창 회장이, 그리고 남가주한국예비역기독교인회를 권영구 회장이 임원과 회원들을 소개해 박수로 받았으며 최학량 목사가 신년 인사로 조국 지지자의 내용을 낭독했다.

이어 해군 제독 출신인 원태어 장로가 예배 기도를 담당했고 오규석 집사가 성경봉독, 김해성 지도목사가 "주의 의로운 판단"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김철이 목사와

차기학 목사의 찬양이 있었다. 최훈일 목사가 조국의 위기와 미국과 한국의 양 군대를 위하여 중보기도 했고 김병관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오찬시간에는 교제하면서 김희창 목사의 한국의 새로운 지도력(홍석현 박사)을 진미 지도자로 소개했고, 마지막으로 회의를 통해 미래 행정을 정리했다.

본 회의는 앞으로 매월 두 번째 토요일 오전 11시 한인타운 임구에 있는 영생교회(1827 사우스 웨스턴 애브뉴)에서 모임을 갖는다.

▲문의: (213)446-8072 (기사제공: 남가주 군사령한국예비역기독교인회)



한국 글로벌선진학교 전경사진

2017 밀알장애인 장학복지기금 수여식 총 95명에 138,600달러 지급

2017 밀알장애인 장학복지기금 수여식이 16일 오전 11시 감사한인교회(담임 김영길 목사)에서 열려 총 95명에 138,600달러를 지급했다.

양인 목사(남가주밀알 이사) 사회, 남가주밀알선교단 찬양팀의 찬양인도로 시작된 수여식은 2016년 한 해 동안 진행했던 남가주밀알선교단 사역을 영상으로 소개했으며 전용규 장로가 기도를 미주밀알 이사장 김영길 목사가 "하나님 계심을 믿으면 찾으십시오"(히11:6)라

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어 이호우 목사(OC교회회장)가 격려사를 전했다며 이종렬 장로(장학위원장) 인도로 장학금 수여 시간을 가졌다.

장학금은 2017년 장애인 장학생 11명, 꿈나무 장학생 39명, 근로복지생 5명, 한국과 필리핀 등 타국 등 40명이 장학금을 수여받았다.

이날 행사는 김영길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한국 글로벌선진학교 미국캠퍼스 해외유학생 입학...STEAM based 교육과정 준비

2015년 8월 펜실베이니아 스코틀랜드시에 개교한 글로벌선진학교(GVCS) 제 3캠퍼스가 2016년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 정부와 미들스태이트로부터 인가를 받아 해외유학생들도 I-20 발급을 통한 입학의 길이 열리게 됐다.

현재 Faith Aim Dream 장학생으로 인도네시아에서 2명의 현지인 학생과 아마존 등 타 지역 선교사 자녀들이 선발돼 재학 중이다.

GVCS 미국캠퍼스는 미국의 반기독교적인 가치관의 교육 흐름에 반하는 GVCS의 교육철학을 미국 내에서 구현하고 있는 기독교 사립 기술학교다. 탁월한 교육시설 환경과 준비된 교사진, 그리고 특화된 교육과정 등을 통해 상위 랭킹의 미국 대학과 전 세계 대학들을 겨냥한 교육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한국의 명문대학에도 외국 고등학교 졸업자의 자격으로 새로운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캠퍼스다. 한국의 교육적 특성을 그대로 살리면서 미국의 예술, 문화, 스포츠 교육이 조화롭게 융화되고, 주변의 다양한 봉사활동과 체험을 위한 환경들은 학생들이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기에 충분하다.

또한 GVCS 미국캠퍼스의 특화된 프로그램인 Dual-Enrollment Program(이중등록 프로그램)은 인근 주립대학인 쉐넬버그 대학에서 이중등록 수업과정을 수강하는 프로그램으로서 수강생들이 대학교 수업을 통과하게 되면 고등학교 졸업과 대학교에서의 학위에 모두 적용되는 학점을 취득하게 된다.

한편 GVCS는 2017학년도부터 다음 세대가 맞닥뜨릴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STEAM based 교육과정을 준비 중에 있다.

GVCS 미국캠퍼스는 향후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엔지니어링, 아트, 매스를 융합시킨 교육과정으로 점진적 개편을 통해 인공지능 및 IOT 스마트시스템의 사물 인터넷 시대에 걸맞는 차세대 글로벌 인재들을 양성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후원문의: (714)742-2674 김성우 미주본부장, (717)830-9356 강유준 부교장.

▲입학문의: (714)335-1118 김혁 행정실장 <기사제공: 한국 글로벌선진학교>

서부교계 게시판

CRC한인사역부 말씀세미나

CRC한인사역부 말씀세미나가 "대살로니가전서: 성, 성화, 그리고 재림"이라는 주제로 20일(금)과 21일(토) 양일간 또감사선교회(담임 최경옥 목사)에서 열린다. 강사는 제프리 웨이마 박사(미시건 칼빈신학교 신학박사)이며 일정은 금요일 오후 7시30분, 토요일 오전 9시30분부터 12시. 또한 목회자들을 위한 집중설교세미나는 금요일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4시30분까지 갖는다.

▲문의: (213)271-7345

은혜한인교회 신년축복성회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사)는 신년축복성회를 '하나님 마음을 읽는 영성으로!(욘 23:13-14)'라는 주제로 개최한다. 강사는 유재명 목사(안산빛나교회 담임)이며 일정은 26일(목) 오후 7시30분, 27일(금) 오전 5시30분, 오후 7시30분, 28일(토) 오전 6시, 오후 7시30분, 29일(주) 오전 7시30분, 9시20분, 11시30분, 오후 2시다.

▲문의: (714)446-6200

베델한인교회 약물중독세미나

베델한인교회(담임 김한요 목사)는 FBI 에이전트의 진행으로 약물중독 세미나(Drug Seminar)를 22일(주) 오후 1시30분 비전제플에서 갖는다. 강의는 영어로 진행되며 FBI 제작 다큐멘터리 영화 'Chasing the Dragon'이 상영된다.

▲문의: (949)854-4010

더텐트 설맞이 스페셜콘서트

더텐트(대표 다니엘방 목사) 설맞이 스페셜콘서트가 라이프보건센터(Center for Better Life, 672 South Carondelet St)에서 오는 27일(금) 오전 10시30분에 열린다. 출연진은 소프라노 김은혜, 조현주, 어유경, 베이스 이사효, 보컬리스트 이민우, 고르예술단 모듬북 팀이다.

▲문의: (213)999-4909

나성금란교회 은퇴 및 임직예식

나성금란교회(담임 정성용 목사)는 은퇴 및 임직예식을 22일(주) 오후 3시에 갖는다.

▲문의: (310)973-5106

휴스턴 새누리교회 부흥회

휴스턴 새누리교회(담임 박영호 목사) 부흥회가 27일(금)부터 29일(주)까지 박인화 목사(뉴송교회)를 강사로 초청한 가운데 개최한다.

▲문의: (713)722-0773

토렌스조은교회 김바울 목사 별세

토렌스조은교회의 김바울 담임 목사(사진)가 13일 오후 5시에 별세했다. 지병을 갖고 있던 김 목사는 10일 남가주 하버 시에 있는 UCLA 병원에 긴급히 입원했으나 사흘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토렌스조은교회는 1991년 김바울 목사가 전도사 시절 12명과 함께 개척했으며 현재는 1,200여 명의 성도가 출석하고 있다. 오는 1월 22일 교회설립 26주년을 며칠 앞두고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것이다.

고 김바울 목사는 부산중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를 졸업, 텍사스 A&M대학교에서 석사, 미시시피주립대학교에서 경영정보학박사, 골



든게이 트침례 신학교에서 신학사 석사를 했다. 장례일정은 21일(토) 오전 10시 토렌스조은교회 본당에서 갖게 되며 하관예배는 장례예배 후 그린힐스 메모리얼 파크(27501 S. Western Ave)에서 갖는다. <박준호 기자>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서부(CA)교회안내

감사한인교회 담임목사: 김영길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한미연합예배: 오후 2: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영인예배: 오전 9:30, 11:30 www.thanksgivingchurch.com Tel: (714)521-0981, Fax: (714)521-4636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나성순복음교회 담임목사: 진유철 주일 1부예배: 오전 7:45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한미연합예배: 오후 2:00(영성) 주일영어예배: 오전 11:30 주일 5부예배: 오후 1:30 수-금요 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www.lalgcusa@yahoo.com / www.lalgc.com Tel: (323)913-4489, Fax: (323)913-4494 1750 N. Edgemont St., CA 90027	나성영락교회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8:30 주일 3부예배: 오전 10:00 주일 4부예배: 오전 11:30 주일 5부예배: 오후 1:30 주일 6부예배: 오후 2:30(영성)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6시(토)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el: (323)227-1400 / Fax: (323)227-0718 www.youngnak.com	나성제일교회 담임목사: 김문수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한미연합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오전 6:00(토) Tel: (213)388-7101, F: (213)388-6564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나침반교회 담임목사: 민경엽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평일영양회: 오전 5:30 토요찬양: 오전 6:30 EM, 대학부: 오후 1:30 주일학교: 오전 11:00 Tel: (562)691-0691, F: (562)691-0698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Lambert & Puente) / www.nachimban.org		
남가주든든교회 담임목사: 김현인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드림)예배: 오후 12:30 한미연합예배: 오전 10:30 주일 학교: 오전 10:3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40(월-토) Tel: (213)481-2779 / Fax: (213)481-3761 16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6 facebook.com/fccsca	남가주사랑의교회 담임목사: 노창수 주일 1부예배: 오전 7:2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20 주일 4부예배: 오전 11:30 영인예배(영성-KDC, 킹덤드림센터): 1부: 오전 9:20, 2부: 오전 11:20 Tel: (714)772-7777, Fax: (714)772-0777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 www.klcc.org	대흥장로교회 담임목사: 권영국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금요예배: 저녁 7:30 Tel: (310)719-2244, Fax: (310)719-2229 15411 N.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www.gcc.org	등문교회 담임목사: 김광삼 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금요찬양예배: 오후 7:45 Tel: (213)483-6625, Fax: (213)483-6675 1901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07 www.dwmchurch.org	디아스포라선교회 Korean Diaspora Mission Center 대표: 전영자 목사 "세계속에 흠뻑 젖어 있는 우리의 통증을 위해 힘쓰는 선교부" 목요예배: 저녁 8:00 주일예배: 오후 4:00 Tel: (213)559-7728 (전화 서비스 없음), Tel: (213)210-8890 1213 Gabriel Garcia Marquez St., #8 L.A., CA 90033	미주양곡교회 담임목사: 지용덕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매일) Tel: (213)380-9377, 9079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	미주평안교회 담임목사: 임승진 주일 1부: 오전 8:30 주일 2부: 오전 9:45 3부: 오전 11:00 (영성)4부: 오후 1:45 새벽기도회(토): 오전 6:00 www.mpclia.org Tel: (213)381-2202, Fax: (213)381-2535 170 Birimi Pl., Los Angeles, CA 90004
빛과 소금의 교회 담임목사: 이정현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오후 8:00 주일 학교: 오전 5:45(월-토) 오전 6:00(토) Tel: (310)749-4756 21519 S. Menlo Ave Torrance CA 90502	베델한인교회 담임목사: 김한요 주일예배 1부: 오전 7:15 주일예배 2부: 오전 9:15 주일예배 3부: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전 11:30 성인영양예배: 오전 9:15, 11:30 영인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학교: 오전 9:15, 11:30 Tel: (949)854-4010 / E-mail: bethel@bkc.org 18700 Harvard Ave., #A Irvine, CA 92612 www.bkc.org	복음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상덕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인예배: 오전 2:00(대학부) 금요예배: 오후 7:30 Tel: (562)694-6214 1751 W. La Habra Blvd., La Habra, CA 90631	세계소망교회 담임목사: 오세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 (213)745-9191(C), 사택(818)893-8607 824 W. Venice Blvd., L.A., CA 90015	요셉선교회 담임목사: 정상호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전 7:30 금요예배: 저녁 7:30 새벽기도회: 새벽 5:30 Tel: (213)245-4090 Fax: (213)365-1670 1400 Alvarado Street, L.A., CA 90006	얼바인침례교회 담임목사: 박경호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오전 6:00(토) 수요일예배: 오후 7:30 www.irvinechurch.com Tel: (949)857-3425 / Fax: (949)857-3472 5101 Walnut St., Irvine, CA 92604	월서크리스천교회 담임목사: 엄규서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9:45(영성)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영성) 주일 4부예배: 오후 2:00(영성) 새벽기도회: 오전 5:40(월-토) 주일 학교: 오전 11:00 토요일영양예배: 오후 6:00 Tel: (213)384-7274, Fax: (213)384-8638 3435 Wilshire Blvd., #101 L.A., CA 90010
은혜한인교회 담임목사: 한기홍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금요성경집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6:00(토) 은혜세계기도회: 365일 24시간 온오프 www.gracem.com Tel: (714)446-6200, Fax: (714)446-6207 1645 W. Valencia St., Fullerton, CA 92833	주님세움교회 담임목사: 박성규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00 주일 4부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50(월-토) 성령대명회: 오후 7:20(금) Tel: (310)325-4020, Fax: (310)325-4025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www.junimchurch.com	주님의영광교회 담임목사: 신승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금) 온오프: 오전 6:00(토) Tel: (213)749-4500, Fax: (213)749-6700 1801 S. Grand Ave., L.A., CA 90015 www.gcc.org	중은마을교회 담임목사: 신원규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성)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기도회: 저녁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토) 온옔�: 오전 6:00(토) www.socalsamsungchurch.org Tel: (714)846-9259 Fax: (714)846-9264 16800 Imperial Hwy., Yorba Linda, CA 92886	코너스톤 교회 담임목사: 이종용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성)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www.cornestonev.com / e-mail: pastor@aconerstone.com Tel: (310)530-4040(C), Fax: (310)530-9400 2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03	토렌스조은교회 담임목사: 김바울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성)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영성) 주일 5부예배: 오후 3:00(영성) 주일 6부예배: 오후 10:00 주일학교: 오전 8:00 www.torrencecgc.org Tel: 310-370-5500, Fax: 310-370-2009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들을 찾습니다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시문...

‘선교대국’ 미국에 왜 한국 선교사가 많을까 한인선교사 두 번째로 많이 파송된 국가, 미국...그 이유는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가 9일 발표한 '2016 한국 선교사 파송 현황'에 따르면 한국 선교사들이 가장 많이 파송된 국가 2위에 미국이 올라 있다. 모두 79개 선교단체에서 2473명을 파송했다. 인도에 파송된 선교사보다 두 배나 많다. 세계 1위 선교대국인 미국에 한국 선교사들이 왜 이렇게 많이 나가있는 걸까.

11일 국내 선교단체와 전문가들에 따르면 현재 미국에서 활동 중인 선교사 상당수는 전문인 선교사들이다. 주로 미국의 대학이나 기업에서 교수나 직원으로 일하면서 성경공부 모임을 만들고 복음을 전하는 '자비량' 선교사들이다.

대표적인 선교단체가 대학생성경읽기선교회(UBF)와 국제대학선교협의회(CMI) 등이다. CMI는 캠퍼스 사역을 비롯해 교회 개척

과 전문인 선교를 겸하고 있다. UBF는 지난해 말 현재 미국에서 총 691명의 선교사들이 활동 중이며 CMI는 102명이 사역 중이다. 두 단체를 더하면 793명에 이른다. 미국 선교사의 3분의 1을 차지한다.

나머지는 원주민 등 소수 민족과 다민족을 대상으로 활동 중인 선교사들이다. 일부 단체는 한인 교회 목회자도 선교사에 포함시켰다. 최근엔 자녀교육이나 선교지 추방 등을 이유로 미국으로 건너가 다민족 선교로 전환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기독교인 비율이 전체 인구의 5% 미만인 전 세계 미전도지역에 여전히 많은 선교사가 필요한 상황에서 한국 선교사들이 미국에 몰려있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한인교회 목회자는 선교사 계수에서 제외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반면 미국에 선교사가 필요하다는 시각도 있다. 미국은 더 이상 '기독교국가'가 아니며 세속주의와 무신론의 영향으로 유럽과 같은 선교지로 변했다는 것이다. '선교지' 미국을 재복음화 하기 위해서는 선교사들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 개신교인 비율은 1961년 71%에서 2012년 48%로 떨어졌다. 미국은 더 이상 청교도의 나라가 아니다. 2014년 미국 침례교는 "미국은 더 이상 선교국이 아니라 선교지(mission field)"라고 선언하기도 했다.

세계기도정보는 미국에 대한 기도제목으로 "미국교회는 부흥이 필요하다. 신앙과 물질주의라는 혼합주의가 만연해 있다"며 "성경적 거룩과 영적 하나 됨의 회복, 적극적인 공적 영역 참여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김동식 목사 유해· 억류자 송환 촉구

북한인권단체 성명발표... 납북자, 국군포로 등

북한인권단체들은 13일 '김동식 목사 유해와 납북자, 국군포로, 억류자들의 송환을 강력 촉구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은 "북한당국은 김동식 목사의 납치범죄를 사죄하고 납북자, 국군포로, 억류자들을 즉각 송환하

라"고 밝혔다. 정부에 대해 "김동식 목사를 비롯한 납북자, 국군포로, 억류자들의 생사확인 및 송환을 강력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국회에 대해서도 납북자 관련법을 즉각 정비해 납북자, 국군포로, 억류자 가족들의 원통함을 즉각 위

호할 것을 주문했다.

이들 단체는 16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북한공작원에 의해 납치 희생당한 김동식 목사 피랍 17 주기, 순교 16주기 추모 및 납북자송환 국민추진대회와 6·25납북자문제 해결을 위한 세미나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선민네트워크, 김동식목사유해송환운동본부, 6.25납북피해자대책위원회, 김진태 의원실이 공동 주최했다.

“올해 신천지·하나님의교회 폐해 예방에 집중”

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협회 “사이비종교특별법 제정 노력”

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협회(회장 진용식 목사)는 올해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과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구 안상홍중교회)의 폐해를 예방하는 데 집중기로 했다.

이단상담소협회는 17일 서울 강남구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총회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사회적 종교집단으로부터 한국교회를 지키는 데 힘쓰겠다고 이같이 밝혔다.

신현욱 협회 구리상담소장은 "신천지 16만1691명이었던 신천지 신도가 2016년 17만2775명으로 1년 만에 1만1084명(6.9%) 증가했다"면서 "전국교회의 경계심이 높아지다 보니 신천지의 성장세가 점

점 둔화되고 있는데 신천지는 이를 만회하고자 비신자와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신 소장은 "신천지는 신도수가 14만4000명을 넘어서자 구원의 기준을 '제사장 자격을 갖춘 자까지'라며 까다롭게 만들었다"면서 "세계여성평화그룹(IWPG) 결성 및 활동 등에서 볼 수 있듯 신천지 안에 통일교의 성장을 벤치마킹하려는 분위기가 있다"고 설명했다.

신 소장은 이어 "2만여명이 가입된 '바로알자신천지' 카페 등을 통해 신천지 폐해를 적극 알릴 것"이라며 "현행법을 위반한 불법사태를 추적·고발해 종교를 방자한 회대의 사기꾼인 이만희 교주를 법정에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이덕출 협회 서울소장은 "하나님의교회에는 전국 300여 지회와 10만여명의 신도가 소속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2012년 시한부종말론이 불발에 그치지 대대적으로 이미지 개선작업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소장은 "하나님의교회 회회해대책전국연합, 하나님의교회 피해자가족모임, 시오니즘 등에 소속된 4500여명의 피해자들과 함께 하나님의교회의 반윤리성과 폐해, 사이비성을 알리겠다"고 말했다.

진용식 회장은 "사이비종교특별법을 만들어 사기포교를 차단하면 신천지가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신천지가 무인 학원을 만들어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는데 서명작업, 법제정, 고소·고발 등으로 그들의 포교를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기총-한교연 중복 낭비구조 개편할 때” 목소리 커져

한국교회총연합회(한기총) 출범을 계기로 한국교회의 정치구조를 근본적으로 재편해 미래청사진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주요 교단들이 참여하는 한기총을 중심으로 중복과 비효율, 낭비, 정치적 왜곡 등을 타파해야 한다는 취지다.

중복된 고비용 정치구조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와 한국교회연합(한교연)은 유사점이 많다. 2012년 한기총정상화대책위원회로 시작된 한교연은 한기총 때의 구조를 비슷하게 가져왔다. 한기총에는 33개 상임위원회가, 한교연에는 21개 위원회가 있다. 이 중 19개 위원회가 겹친다. 같은 일을 두 기관이 중복으로 하고 있는 셈이다.

한기총은 선교 홍보 행정 총무 부서에 6명이 근무하고 한교연은 선교교육 기획홍보 사회문화 총무 부서에 5명이 근무한다. 심지어 양 기관은 같은 건물을 사용한다. 한교연은 한국기독교연합회관 5층을, 한기총은 15층을 쓴다.

한기총은 전국교회로부터 매년 8억4300만원을, 한교연은 9억 3700만원을 지원받는다. 한기총을 출범시킨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과 대신, 기독교대한성결교회,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여의도순복음, 기독교한국침례회가 두 기관의 운영비 대부분을

책임지고 있다. 이들 교단의 지원이 없으면 사무실은 정상 운영이 어렵다.

유사점이 많은 한기총 한교연

두 기관이 주로 하는 일은 정·관계 인사 면담, 성명서·논평 발표 등인데 이것도 유사점이 많다. 성탄절이나 광복절 때 내놓는 성명서나 동성애 이슬람 문제 등에 대한 논평은 두 기관의 신학적 보수성 때문에 대동소이하다. 지난해 10월 동시에 내놓은 개혁신명서도 성명서나 동성애 이슬람 문제 등에 대한 논평은 두 기관의 신학적 보수성 때문에 대동소이하다. 지난해 10월 동시에 내놓은 개혁신명서도 성명서나 동성애 이슬람 문제 등에 대한 논평은 두 기관의 신학적 보수성 때문에 대동소이하다.

회원교회 수가 300개 미만인 군소교단이 다수 포진된 것도 공통점이다. 한기총은 76개 회원교단 중 57개(75%)가, 한교연은 38개 교단 중 27개(71%)가 군소교단이다.

예장통합 총회장으로 한기총 대표회장을 지낸 박종순(서울 총신

교회 원로) 목사는 "우주론적 교회 입장에서 볼 때 한국교회는 조그만 교회에 불과하다"면서 "이렇게 작은 교회에 연합기구가 많이 있어야 할 이유가 무엇이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사람의 생각이니 한기총 안으로 조직을 흡수시키는 게 낫다"고 조언했다. 이어 "한국교회를 위해 기독교를 겸허하게 내려놓을 때가 됐다"면서 "마침 다투는 한기총에서 탈퇴했으니 한교연은 한기총에 들어가 하나 되려는 노력을 적극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적 역할 수행하는 연합기관 필요

전문가들은 종교인구 급감과 이단장권, 사회분열 속 새로 출범한 한기총이 사회통합의 가치를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성돈 실천신학대학원대 교수는 "한국교회 연합기관은 자기들끼리 합자랑 하지 말고 성도들이 한국교회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공적 역할을 수행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신현욱 신천지대책전국연합 대표도 "이단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교회의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한기총 같은 단일 기구를 통해 예방활동을 해 달라"고 부탁했다.

‘국내 1대 종교’ 됐지만...개신교, 과연 약진했나 학원복음화협의회 등 특별포럼

통계청이 지난달 발표한 '2015 인구주택총조사 종교인구' 표본 집계에서 개신교가 대한민국 '제1의 종교'로 올라선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교회와 거리를 둔 '가나안 성도' 즉 '사이 개신교인'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돼 한국교회의 대처가 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이 개신교인'은 지난해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평소에는 내색을 앓다가 투표소에서 트럼프를 찍은 숨은 지지자를 이르는 '사이 트럼프'란 표현이 빚낸 것이다.

청어람ARMC와 학원복음화협의회, 한국교회탐구센터는 5일 서울 성북구 월곡로 성북중앙교회에서 '개신교는 과연 약진했는가?'라는 주제로 특별포럼을 갖고 한국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했다.

발제자들은 전반적인 종교의 쇠퇴 추세에도 개신교가 숫자적으로 선방한 것은 타 종교에 비해 강한 정체성에 호소하는 선교 및 교육, 개인적 신념 등의 효과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양희송 청어람ARMC 대표는 "한국의 개신교처럼 전도와 설교, 교육 등을 통해 정체성을 확고하고 주일 성수, 수련회 등을 열심히 하는 종교는 없다"며 "개신교는 교회를 떠나도 귀속성을 유지하며 종교적 정체성을 고백할 요소들을 여전히 갖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상갑 군포 산본교회 목사는 "개신교 인구가 줄지 않은 이유 중 하나로 교육의 영향을 꼽을 수 있다"며 "앞으로는 일반적인 성경 교육에서 나아가 다문화시대에 필요한 교육 등을 고민하며 접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용근 지앤컴리서치 대표는 "개신교인들은 매주 교회에 출석하기 때문에 다른 종교보다 충성도가 높다"고 설명했다.

무종교인이 급속도로 증가하는 추세 속에서 한국교회는 사회와 어떻게 소통을 해야 할까. 양 대표는 "교회가 공격적 선교를 계속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인문학'을

통해 대화와 성찰, 탐구 등의 방식으로 사회와 소통하는 기술이 필요하다"며 "공적 신앙 '선교적 교회' 등의 담론도 이전보다 활발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제도권 밖에 있는 신앙인에 대한 인정과 본격적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가나안 성도 현상을 더 심도 있게 다루고 이들을 위한 대안적 교회를 세우는 시도도 확산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양 대표는 "종교사회 분야에서 불교계의 소수 저자들이 상위권을 점유하고 있는 양상을 참고해 개신교의 '지식 생태계'가 형성되기 위한 인프라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재영 실천신학대학원대 교수는 "초기 한국교회는 남녀 및 신분 차별을 철폐하며 사회의 선구적 역할을 감당했다"며 "개신교가 사회의 신뢰를 받기 위해선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공공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회 지도자들은 성도들이 개신교인의 정체성을 갖고 교회뿐 아니라 사회에서도 충실하게 살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제 41회 총회 소집 공고 및 등록안내

The Preparation Committee for The 41st General Assembly of Korean-American Presbyterian Church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총대 제위께 문안 드립니다. 제 41회 총회소집을 공고하며 총회에 참석하시는 총대를 위한 호텔 예약 일정과 등록을 안내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총회일시: **주후 2017년 5월 16일(화) - 5월 19일(금)** (3박 4일)
- 총회장소: **THE HOTEL ALYESKA** (www.alyeskaresort.com)
1000 berg Avenue | Girdwood, AK 99587 (Tel: 1-800-880-3880)
- 숙 식 비: 총회 기간의 숙박비는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는미화(USDollar)입니다.

객실구분	등록마감일 및 참가비		
	1차(2월 1일)	2차(3월 1일)	3차(4월 1일)
2인1실(1인당)	\$ 399	\$ 439	\$ 479
1인1실	\$ 720	\$ 760	\$ 799
부부	\$ 799	\$ 859	\$ 939
원로/공로 목사	2인1실	\$ 199	\$ 239
	(부부)	\$ 599	\$ 639

* 각 노회 원로목사님은 총회(제33회 총회) 결의에 따라 총회 참가비 50% 할인된 가격입니다.

- 개인 숙박: 개인적으로 숙소를 정하시고 총회에 참석하시는 분은 등록비 \$150을 납부하셔야 하며, 호텔에서 식사하실 경우에는 추가로 식비 \$230을 납부하거나 식권을 구입하여 필요에 따라 사용하셔야 합니다.
- 총회 전 일찍 오실 분이나, 폐회 후 체류하실 분들은 미리 총회 준비 위원회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등록 및 송금 안내: 등록 신청서와 송금은 아래의 주소로 check 혹은 money order로 보내 주십시오. (미국 외에서 등록하시는 분은 US money order로 우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취인 (Pay to the order) : KAPC
* 주소 : Rev. Jae IL Yoo (유재일 목사)
Anchorage Open-Door Presbyterian Church (앵커리지 열린문장로교회)
8220 Briarwood St., Anchorage, AK 99518
907)344-6446, (FAX) 907-344-3182 / kopc@hotmail.com

- 교통안내: 총회준비위원회에서 다수의 차량을 배차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원활한 차량운행을 위해 도착공항과 시간, 항공편을 미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앵커리지 공항 ANC South Terminal로 오셔야 픽업이 가능합니다.
- 접 수: 첫째 날 (5월 16일, 화) 접수는 오후 2시부터, 저녁식사는 오후 5시부터, 그리고 교회예배는 오후 7시에 드립니다. (1) 등록마감일(4월 1일) 이후 신청 시 호텔숙박은 준비위원회에서 보장해 드릴 수 없습니다. (2) 등록하신 후 총회에 참석하지 않을 때에는 호텔과의 계약상 등록비는 돌려드릴 수 없습니다.
- 기 타: (1) 영어노회 총대를 위하여 동시통역 시설을 준비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기타 문의 사항이나 도움을 청하실 일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준비위원회에서 성심껏 도와드리겠습니다.

* 문의처 교 회: (907) 344-6446, (907) 350-7907
호 텔: 이진우목사 (778) 389-3391
관 광: 최성은목사 (403) 431-2507
총 무: 장현철목사 (778) 899-7508

주후 2017년 1월 5일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총회장 고택원 목사 서기 허상희 목사
제41회 총회 준비위원회 위원장 강진우 목사 서기 문석호 목사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mission 선교의 창 (70)



송종록 목사 (대학선교, Ph.D)

4차 산업혁명시대와 선교적 대응

제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앞으로 20-30년 동안은 인류 역사상 전혀 겪어보지 못했던 과학기술의 혁명적 발전을 보게 될 것이다. 이는 그동안 1차, 2차, 3차 산업혁명에서 보여준 문명의 발달과는 차원이 다르다. 미래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디지털, 인공 지능, 바이오, 나노 등이 융합되어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속도로 발전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술·산업구조의 변화는 일자리 지형의 변화뿐만 아니라 인간의 생각과 사상에도 메가톤급으로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그것은 성경적 세계관까지도 포괄된 말이

과 더불어 일자리 감소라는 부정적 변화가 급격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뛰어난 인공지능을 지닌 기계가 인간의 지식 노동 영역의 대부분을 대체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현재 7세 이하 어린이가 사회에 나가 직업을 선택할 때가 되면 65%는 지금은 없는 직업을 갖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산업혁명의 발전과정

1차 산업혁명의 대표성은 증기기관이다. 18세기인 1784년 수력 증기기관을 활용하여 철도와 면사방직이 같

4차 산업혁명의 특징

4차 산업혁명은 초연결성(Hyper-Connected), 초지능화(Hyper-Intelligent)다. 사람과 사람,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이 인터넷 통신망으로 초연결성으로 비롯된 막대한 데이터를 분석하여 일정한 패턴의 결과를 토대로 인간의 행동을 예측 가능하게 한다. 우리 사회는 이미 초연결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사물인터넷(II), 클라우드 등 정보통신기술(ICT)의 급진적 발전과 확산은 각 객체 간의 연결성을 기하급수적으로 확대시키고 있다. 이를 통해 인공지능(AI)과 빅 데이

터 다가오는 세대를 총체적이며 조직적으로 연구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합리적 세계관에 휩쓸릴 미래 세대들을 위한 사역적 방법을 연구해야 한다. 이성주의에 빠진 사람들에게 교리적 접근은 절대 실패하게 되어 있다. 과학은 인간 이상의 산물이다. 과학이 아무리 발달한다 해도 신의 영역은 범접할 수 없다. 인간의 영혼은 고독하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간은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된 원형으로 회복되지 않는 한 평화는 없다. 절대적 복음만이 답이다.

4차 산업혁명의 특징은 연결, 융합, 속도이다.

인간은 암기력과 논리적 사고에서 인공지능을 당해낼 수 없다.

우리는 변하는 세대에 변하지 않는 복음을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다. 따라서 기독교회는 중·단기적으로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선교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에 우리는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특성을 분석하고 전략적 대응책을 선제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포럼

세계경제 포럼(WEF; World Economic Forum)은 기업인, 정치인, 경제학자 등이 모여 세계가 당면한 과제의 해법을 논의하는 자리다. 제 46차 포럼은 2016년 1월 20-23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렸다. 2천여 명의 여러 분야 전문가들이 공동관심사를 가지고 모인 것이다. 이 대회의 핵심 주제는 '제4차 산업혁명의 이해(Mastering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였다.

WEF는 The Future of Jobs 보고서를 통해 제4차 산업혁명이 근 미래에 도래할 것이라고 했다. 이는 그 간의 디지털적 공간의 기초 위에서 물리적 공간 및 생물학적 공간의 경계가 희석되는 기술융합의 시대라고 정의했다. 즉, 사이버물리 시스템(CPS; Cyber-Physical System)에 기반 한 제4차 산업혁명은 전 세계의 산업구조 및 시장경제 모델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 본 것이다. 이로 인해 일자리와 사회 구조적 변화가 필연적이라는 것이다.

앞으로 4차 산업 혁명이 본격화 되면 생산성 향상이라는 긍정적인 측면

은 기계적 혁명을 불러일으켰다. 차가운 증기기관이 화석연료를 머금고 달궈지면서 수백, 수천마리의 말보다 강한 힘을 드러냈다. 이는 사람이나 가축이 땀을 흘리지 않고 노동을 대체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러한 발명은 인류가 살아가는 방식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다주었다.

2차 산업혁명은 전기의 힘을 이용한 대량생산이다. 19세기인 1870년대부터 에너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저장하고 활용할 수 있는 수단으로 전기가 이용되었다. 산업은 점차 분업화되고 체계화 되어갔다.

3차 산업혁명은 컴퓨터 제어 자동화이다. 컴퓨터 및 정보통신기술(IICT)의 발전으로 인한 '디지털 혁명'으로 인해 정보화·자동화 체계가 구축되었다. 20세기 후반에는 IT 기술이 급속히 확산되고 더불어 고도화된 자동화의 단계로 접어들게 되었다.

세계는 2016년에 접어들면서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 시대의 정보통신기술과 제조업, 바이오산업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이뤄지는 연결과 융합은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해 낸다. 또한 이 시대는 '소프트파워를 통한 공장'과 제품의 '지능화'라고 할 수 있다. 이는 IT를 이용하여 공장 제품 등 여러 사물에 지능을 더하고 현실과 가상의 공간이 융합함으로써 기계와 기계가 서로 소통, 협력, 진화하는 단계로 볼 수 있다.

터의 연계 및 융합으로 인해 기술 및 산업구조가 '초지능화' 된다는 것이다.

2016년 3월 이미 우리는 '초지능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음을 경험하였다. 인간 '이세돌'과 인공지능 컴퓨터 '알파고(AlphaGo)'와의 바둑 대결이 그것이다. 바둑판 위의 수많은 경우의 수와 인간의 직관 등을 고려할 때 인간이 우세할 것이라고 했다. 하나 전망과 달리 '알파고'가 승리했다. 이러한 결과는 사람들에게 충격이었다. 이 대결은 '초지능화' 사회의 시작을 알리는 단초가 되었으며 인공지능과 미래사회 변화에 대해 뭇가를 암시하는 계기가 되었다.

세계관의 변화와 선교적 대응

제 4차 산업혁명의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 과학적이고 합리적 사고방식이 지배하는 세대가 될 것이다. 그것은 맘몬과 결탁한 극도의 편리주의이다. 자연주의와 과학주의에 근거한 신이신론이다. 극도의 자기중심적인 인본주의이다. 이러한 사회변화에 대한 기독교의 대처 방식은 무엇인가? 변하는 세대에 어떻게 변하지 않는 복음을 전할 것인가? 이를 위해 선교전략 연구소가 범 교회와 초교파적으로 세워져야 한다. 일류 기업은 저마다 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다. 지략이 없이는 세상을 이길 수 없기 때문이다.

만일 선교전략 연구소가 세워지면 각 분야의 최고 엘리트들을 추천하여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야 한다. 그곳에

맺음 말

2016년 클라우드 슈밤 세계경제포럼(WEF) 회장은 '물리적 시스템·전자적 시스템·생물적 시스템이 대용량한 인류역사 최대의 혁명이 되어 쓰나미처럼 밀려올 것'이라고 말했다. 맥킨지(Mckinsey, 2015) 보고서에 따르면 '모바일 인터넷, 자동화, 사물인터넷, 무인차, 전지, 신소재 등 4차 혁명의 모든 부분에서 선진국들의 독점 현상이 지속될 것이며, 제조업이나 정보통신기술 인프라가 부족한 신흥국들은 상당히 고전할 것이다'고 말했다. 인공지능, 3D프린팅, 자동차의 자율주행기능, IoT, 바이오테크놀로지 등이 4차 혁명으로 태어나게 될 주요 기술의 예다. 이 혁명은 기존의 시스템을 붕괴시키고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낼 정도의 위력을 가진다.

우리는 이러한 지적들에 대해 아직 실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교회는 눈에 보이는 현상의 난제에 급급하고 있다. 미래를 바라보며 대처할 여유가 없다. 이러한 현실 지상주의는 성경적이지 않다. 우리는 영안을 활짝 열어 내일을 보고 선지적 대처를 해야 한다. 태풍이 오기 전 징조가 있다. 그것을 무시하고 태풍에 휩싸이는 것은 어리석다. 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시대적변의 태풍이 불어오고 있다.

jsong007@hanmail.net

선교 편지

아이티

송곳 같던 7년, 더는 아파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이티 대지진이 일어난 지 오늘로 7년이 흘렀습니다. 2010년 1월 12일 지진은 24만 명이 훨씬 넘는 희생자와 150만이 넘는 이재민을 만들어 씻기 어려운 상처를 아이티에 남겼습니다.

형편없이 무너진 건물들, 그 사이로 보이는 사람들 모습. 무너진 대성당으로 가는 시장통에 나무토막처럼 쌓여 있던 희생자들... 폭격 맞은 전쟁터처럼 온 나라가 제 정신이 아닌 듯했던 시간들... 아무도 건물 안에 들어가지려고 하지 않고 텔마 도로를 뒤덮고 밖으로 뛰듯이 돌아다니던 엄청난 사람들... 식량을 찾아 눈빛이 변하던 사람들, 사람들... 아직도 마치 어제 일인 양 기억 속에



선명한 흔적을 남기고 있습니다.

진이 무서웠습니다. 고아들은 고아원 앞 공터에 비닐로 천막을 치고 참혹한 시간을 견디면서 더 형편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고아들은 늘어나고 두려움과 배고픔은 그냥 눈물이 되었습니다.

지진 전부터 형편 되는 대로 두세 개 고아원을 돌기 시작했던 일이 언제부터인가 10개 고아원으로 늘었습니다. 그 사이 불이 나서 없어진 고아원도 있고 이제 그만 해도 되겠다는 고아원도 보면서 지나왔습니다.

그냥 눈물만 나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고아원. 기가 막힌 현실에 기도도 나오지 않던 아이들. 그렇게 아이티 고아들은 송곳이 되어 늘 기도의 자리를 찌르고 우리 마음을 찢었습니다.

(14면으로 계속)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2017년도 목사 학력 및 자격고시 공고

The General Assembly of Korean-American Presbyterian Church

2017 Pastoral Ordination Candidacy Qualification and Examination Announcement

"목사 학력 및 자격고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자는 아래 요령과 같이 지엄 하여 주시기 바라며, 모든 서류와 시험은 한글과 영어 중 편한 언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응시 자격 (Candidacy Qualification)

본 총회 직영 신학교 및 총회가 인준한 정규 신학교 M.Div 학위를 졸업 하였거나 2017년 6월 이전에 졸업 예정자로 개혁주의 신앙이 투철한 무종교인으로서 확실한 소명과 영적지도력을 가진 분.

2. 고시 일자 및 장소 (Examination Date and Place)

1) 고시 일자: 2017년 5월 12(금) - 15(월)
2) 고시 장소: Anchorage, Alaska USA

3. 고시 과목 (Examination Subjects)

1) 필기고시: (1) 교회사 (2) 조직신학 (3) 미국장로교회사 (4) 헌법(이상4과목)
2) 제출고시: (1) 구약주해 (2) 신약주해 (3) 논문 (4)설교원고 (이상4편)

제출고시 내용

(1) 구약 주해 - 예레미야 31:31-37
(2) 신약 주해 - 요한복음 8:13-27
(3) 논문 주해는 논문 작성 원칙에 따른 것이며 인용구는 각주를 사용 하고 참고서적을 꼭 포함 할 것.
(4) 설교 원고 - 열왕기상 2:1-9

① 설교 원고를 작성하여 제출 할 것.
② 고시 기간 중 설교실기고시를 치를.

(5) 제출 고시 과목에 관한 요령 - * 표절은 절대 용인되지 않습니다!!!

주해 및 논문은 아래지침에 따라 작성하되, 한부는 인쇄하여 제출하고, 한부는 PDF 파일로 서에게 이메일 할 것.

① 레터 (8-1/2" x 11") 폰트를 사용 할 것.
② 한글 11호 크기의 폰트 사용, 줄 간격 180%, 여백은 1인치, 페이지 번호 포함 할 것. (영문 Times New Roman 12호 Double Space)

③ 논문과 주해는 각각 25매 내외로 작성(필자와 참고서적 제외)하며, 설교 원고는 30분 분량의 원고 (10매 정도).

④ 논문과 주해는 논문 작성 원칙에 따른 것이며 인용구는 각주를 사용 하고 참고서적을 꼭 포함 할 것.

⑤ PDF 파일을 보낼 때는 이메일 제목에 본인이름을 넣고, 파일이름에 본인이름 및 과목 주제 이름을 사용 할 것. (예: SunghoonChoOTExegesisPaper.pdf)

⑥ 파일이 너무 크면 나누어서 이메일로 보낼 것.

3) 면접 고시

4. 응시 서류 (Accompanying Documents)

1) 신학교 졸업 증명서 또는 2017년 6월 이전 졸업예정 증명서, 학교장 확인서 중 1부.
2) 신학교 전 과정 성적증명서 1부
3) 소속 노회장 추천서 1부
4) 소속노회 목사후보생 증명서 1부
5) 이력서(자세한 신력을 기재해야 함) 1부
6) 명함판 사진 2장
7) 고시료: \$150 (USD) Pay to the order of - KFPCNY

5. 서류 제출 요령 (Instructions for Documents and Written Assignments Submission)

1) 모든 응시 서류 및 제출고시 과목 원고는 2017년 3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함.
(2017년 3월31일 자 우체국 소인인 찍힌 것은 유효함. 그 이후는 접수하지 않음.)
2)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3) 합격자 발표는 41회 총회기간(5월16일-19일) 중에 합격증서 수여함.

6. 참고 사항 (Miscellaneous Information)

1) 고시생은 고시부 서기 조성훈 목사에게 연락하여 시험기간(5월 12일-15일 총회고시장소) 중에 사용할 숙소를 예약 할 것.
2) 고시당일 노트북 컴퓨터를 사용하여 고시를 볼 수 있으나 아래 사항을 지킬 것.

1. Word Process 이외의 모든 program은 고시장소에 들어오기 전에 지울 것.
2. 시험 중에는 화면을 절대로 바꾸지 말 것. 허락 없이 화면을 바꾸면 퇴장 당함.
3. 프린터는 제공되지 않으므로 본인이 책임지고 준비 할 것.

7. 응시 서류 및 제출 과목 원고 제출처 (Submission Address)

고시부 서기: 조성훈 목사(Rev. Sunghoon Cho) / Email: kfpcny@gmail.com
주소: 37-60 61st Street Woodside, NY 11377 U.S.A. / 전화: (718) 986-8442

8. 기타 문의 (Contact Persons for Information)

1) 고시부 부장: 허윤준 목사 (718) 637-1470, jameshur63@hotmail.com
2) 고시부 서기: 조성훈 목사 (718) 986-8442, kfpcny@gmail.com
3) 고시부 회계: 조용철 목사 (845) 598-6757, drjho@hotmail.com

(13면에서 계속)

무너지지 않은 많은 건물은 금이 가 있고, 여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변함없이 10개 고아원 아이들을 위해 고아원 원장들과 돕는 손길들을 위해 현지에서 넘치는 사랑으로 아이들을 돌보시는 탁 선교사님 내외분과 아이티 사람들을 위해 몸을 드러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참으로 오래도록 아이티를 위해 기도해주시고 도와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시 한 번 눈물로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너무 굶주려 기운 없는 눈으로 더러운 탁자에 엎드려 큰 눈만 깜빡이던 아이들 모습이 기도 속을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만, 현실은 가혹했습니다. 하루 두 끼를 채울 수 없어 물만 마시고 잠들어야 하는 그 기막힌 현실과 끼니의 두려움 속에서 그레도 아이들은 아주 조금씩 자라고 있습니다.

지진 후 7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배고프고, 여전히 아픕니다. 오늘도 식량은 모자라고, 아이들은 심하게 아프다고 했습니다. 쌓이 떨어지 지 며칠인지 모르고 쾅한 눈으로 먼 산만 바라보며 뜨거운 햇볕 아래 그늘도 없는 마당에 앉아서 하염없이 끼니를 때울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타이레늘 한 일이 없어서 열병에 지친 아이들이 아무 표정도 없이 아주 숨도 쉬지 않는 듯 조용히 앉아 있습니다. 때만 양상한 몸으로 걷기도 힘들어 합니다. 그래도 많은 분의 도움으로 공부할 시작했습니다. 가난을 이겨내고 일어설 힘은 교육밖에 없다는 믿음으로 한두 명씩 학교를 보내기 시작했고, 선생님들을 모시고 학교를 시작하고 그렇게 아이들이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아이티 고아들을 만난 후 아홉 해를 지나고 있습니다. 대지진이 나고 일곱 해가 지났습니다. 칠 년 동안 마치 칠 인치나 전진했을까 싶은 형편입니다. 짧지 않은 세월 동안 제대로 먹지 못해 말라가는 아이티 고아들은 내내 송곳이 되어 마음을 찌르고, 기도의 자리를 찢어냈습니다. 그나마 꾸준히 드나들었더니 하나님의 은혜로 아이들이 자랐습니다.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 듯 한데 하나님이 아이들을 키우셨습니다.

한편으로는 공부를 시작했는데 아직도 짧이 모자라고, 약이 없습니다. 더디게 가는 시간 때문에 끼니가 늘 떨어지지 못하는 두려움입니다. 끼니를 걱정하고 아파 누워 있는 아이들 생각에 때로 목이 메기도 하고, 여전히 한 끼 밥이 부끄럽기도 합니다.

시간은 아무 감동 없이 또 흐릅니다. 지난 7년 동안 송곳 같은 아픔으로 견뎌온 세월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긴 시간이 많은 분의 도움으로 감사가 되었습니다. 비록 더디지만, 앞으로 7년을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1월 방문을 위해 준비하면서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배부르게 해주시고,

아픈 아이들 낫게 해주시고 공부하게 해주시고, 자라게 해주시고, 편안하게 해주시고, 쌀 좀 사게 해주시고, 약도 사게 해주시고..... 그러다가 그냥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칠 년 동안 칠 인치쯤 전진한 듯합니다. 아직 뒤쳐져 있는 고아원이 있지만, 뒷걸음질 치지 않게 도와주시십시오. 앞으로 7년 후에는 70마일, 700마일쯤 전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계신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아낌없이 베풀어주시는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아이티는 아직도 먼 길을 가야 합니다. 고아들은 아직도 험한 세월을 견뎌야 합니다. 계속 관심 가져주시고 사랑을 베풀어주시길 소망합니다. 울지 않으려 하는데, 아이들 이야기를 하면 다시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가 여전히 간절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조항석 목사 드림 chohenry01@gmail.com

세계한인기독교언론협회 제 2회 독후감 공모전 장려상 수상작(3)

토렌스제일장로교회 집사 | 최씨녀



“나는 직장에서도 크리스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담은 사람으로, 사람을 품는 예배자

세상에 태어나 직장에 첫발을 디뎠을 때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었다. 지금까지 교회에서 들었던 말씀의 세계와 실제 사회와는 너무도 달랐다. 성경의 말씀대로 살면 약한 자로만 살아야 하고 늘 저주와 희생하며 힘들게 살아가야만 할 것 같아 싫었고 매우 혼란스러웠다. 심지어 하나님을 몰랐다면 아예 고민하지 않고 세상을 좀 더 속 편히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어리석은 생각마저 품었던 때를 지금도 생생히 기억한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주님과 교제가 깊어질수록 참 복음의 진리가 더는 지식이나 나의 가슴으로와 달아 마음에 새겨지고 내 안에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고 싶은 소망이 생기기 시작했다. 하지만 어떻게 직장에서 부딪히는 실제 상황들에 다르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고 있는 말씀들이 잘 적용되지 않았다.

직장에서 크리스천으로서 좀 더 당당하게 살아가고 싶었는데 그 해답을 찾을 수 없어 답답했고 여전히 그랬다. 그런 차에 “나는 직장에서도 크리스천입니다”라는 책 제목은 단숨에 나의 시선을 잡아당겼다. 어쩌면 내 고민의 답을 찾아 줄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에 차올랐고 책을 읽는 내내 지난 직장 생활의 상황들이 스쳐 지나가며 새롭게 회고되었다. 생각의 틀이 바뀌고 하나님의 관점이 자리하면서 전에는 구하지 못했던 그 해답을 찾아가고 있었다. 좀 더 일찍 이 책을 만날 수 있었다면 하는 아쉬움과 동시에 그동안 슬퍼하셨을 예수님이 생각나 죄송한 마음으로 회개도 되었다.

복음을 알고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은 비그리스도인과 직장에서 달라야 한다고 말한다. 실제로 그것이 쉽지 않은 것은 끊임없이 우리의 열정과 욕망의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내야 요구하는 일터에서 돈, 권력, 영향력이 성공의 표준이 되는 같은 기준을 갖고 살아가기 때문이라고 그 원인의 한 가지를 꼽는다. 세상의 법으로 사는 직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살아가는 그리 녹록지 않은 전쟁터지만 우리 왕이신 예수님을 위해 일하는 크리스천이어야 하며 직장은 곧 예배지가 되고 직장에서 하는 모든 일은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

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하는 존재로 만드셨기에 인간은 무엇을 숭배하려는 본성을 지니고 그 경배할 대상에게 자신의 삶을 바치며 사랑하게 되는데 이 책에서 저자는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는 모든 것이 우상이라 규정짓고 있다. 자신의 정신적 육체적 에너지를 모두 쏟아 쏟아 씌어 일하는 것은 직장의 우상화로 나타나는 증거라는데 그가 바로 나 자신인 것을 몰랐다. 내게 맡겨진 일에 성실히 좀 더 열심히 하는 것이라 여겼던 나의 모습은 우상화된 직장인의 모습이었던 것이다.

직장은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해 쌓는 경험의 징검다리 정도로 여기며 내 몫의 일을 잘 해내는 것이 빛 된 자녀의 삶으로 살아가는 길이라고 확신했었다. 하지만 우리의 직장은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며 우리 자신보다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배치하신 곳이 현재의 일터라는 것이다. 직장에서 관계의 어려움이 생길 때 더 많은 보수 혹은 내 꿈을 이루기 위해 나아갈 수 있는 조건이 생기면 직장을 옮길까 생각했던 때가 있었고 또 그렇게 하기도 했던 것이 부끄럽다. 직장을 옮기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과정 한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은 없었고 철저히 내가 중심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이 나태함의 하나라는 사실도 모른 채 나는 어떤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던 걸까?

직장 생활 가운데 침울, 불평, 낙담, 불만, 게으름, 소극성, 사람 눈치 보거나 월요병 등이 나타난다면 직장의 우상화와 나태함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저자는 말한다. 이외에도 일에서 행복과 즐거움을 얻고 더 높은 지위를 추구하기 시작할 때가 우상의 시작이며 그것은 현재의 일을 통해 이루고 싶은 하나님의 목적을 무시하는 행위가 되는 가장 교묘하고 위험한 형태의 나태함이 된다고 한다. 이로 인해 왕이신 예수님을 위해 일할 때 얻는 자유로움을 경험하지 못한 채 결국 일의 종이 되고 마는 것이다.

나는 과연 왕이신 예수님을 위해 일하고 있었을까?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싶은 목적에 얼마나 부합되어 가고 있을까? 하는 질문을 던지며 비로소 나를 통해 어떤 일을 이루시기 원하시는지 나의 직장을 새롭게 조명해 보게 되었다.

문을 던지며 비로소 나를 통해 어떤 일을 이루시기 원하시는지 나의 직장을 새롭게 조명해 보게 되었다.

일하지 않는 성공적인 은퇴를 위해서는 지금 열심히 일해야 한다고 세상 사람들은 말한다. 누구나 다 원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다. 나는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평생 노동을 하며 살아가게 되었다는 생각에 가끔 아담을 원망하기도 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도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일하셨으며 아담을 만드시는 순간부터 그분이 만드신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다(창 2:15)는 말씀을 놓치고 있었다.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에서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도 축복의 하나였다고 스트레소 없이 즐거움으로 일했을 것이다. 저주받았기 때문에 일하게 되었다는 생각은 어쩌면 죄악 된 죄가 놓는 것이 아닐까?

불행히도 어느 날 왜 이 일을 해야 하는지? 이 일이 과연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이었는지 의문이 생길 때 우리 새로운 직장을 찾고 있다. 저자는 이런 때 더 많은 보수, 더 높은 지위, 내 꿈에 더 부합되는 조건 등을 먼저 생각하는 큰 실수를 저지르지 않도록 경고한다. 열게 될 새 직장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직업인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 어떤 영역의 순종을 포기하게 만드는 직업은 아닌지, 또는 나의 필요할 것을 공급해 주기도 하지만 다른 이들을 도울 수 있는 직업이 되는지의 질문들이 먼저 진단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또한, 세상과 똑같은 성공의 기준이 아닌 신실함이 성공의 기준이 되는 크리스천의 삶을 살아내야 한다고 덧붙이고 있다. 동료 가 더는 경쟁의 대상이 아닌 사랑하며 배려되는 섬김의 대상으로 바뀌는 변화는 오직 왕이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일 할 때와 직업을 통해 이루고 싶으신 하나님의 목적을 바라볼 때만이 가능해질 것이다.

직장에서 섬길 때 약한 자처럼 승리자가 아닌 패배자의 모습으로 보이거나 느껴질 때도 있겠지만 결국 나의 모든 일의 성과는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내어 주신 하나님의 강력하신 손에 달려 있음을 기억할 때 이 모든 것들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저자의 말에 나의 믿음을 더해 본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당장 내게 맡겨주신 일 앞에서 열심히 빈틈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면 된다고 아주 간단하고도 분명한 진리로 마무리하고 있다.

이 책을 통해 나의 목표가 하나님의 목적으로 바뀌어야 함을 배웠다. 크리스천으로서 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이유를 알게 되니 나의 직장에서 어떻게 무엇을 실천해야 하는지가 분명해졌다. 하나님의 사랑을 담은 사람이 되어 사람을 품는 사람으로 소금과 빛의 삶을 감당해 내리라.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복음으로 살아내기 위해 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전한 승리의 전략을 구하고 찾고 두드릴 것이다. 하나님의 대사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크리스천이 된 나의 모습을 그려 보며 오늘도 세상 속 한 가운데 서는 진정한 한 예배자로 나는 달린다.

sunnyc112@gmail.com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2017년도 목사 학력 및 자격고시 공고

The General Assembly of Korean-American Presbyterian Church

2017 Pastoral Ordination Candidacy Qualification and Examination Announcement

The following information is regarding the "Pastoral Ordination Candidacy Qualification and Exams," which will be offered in May of 2017. Those who wish to become candidates are encouraged to send in all the necessary documents to begin the process. Those who prefer the use of English may submit all documents and take exams in English.

1. Candidacy Qualification

The applicant must be a M. Div. graduate (or expected to graduate before June 30 of 2017) of a seminary (acknowledged) by KAPC. He must have a clear confession in the tradition of the Reformed Faith; he also should be a Christian in good standing in a local church with a clear sense of calling into ministry, and with a recognized gift in leadership.

2. Examination Date and Place:

- 1) Dates: May 12(Fri)~15(Mon), 2017
- 2) Place: Anchorage, Alaska USA

3. Examination Subjects

- 1) Written Test: (1) Church History (2) Systematic Theology (3) American Church History (4) Constitution of KAPC
- 2) Written Assignment: (1) OT Exegesis Paper (2) NT Exegesis Paper (3) Thesis Paper (4) Manuscript of Sermon
- (1) OT Exegesis Text - Jeremiah 31:31-37
- (2) NT Exegesis Text - John 8:13-27
- (3) Thesis Topic - Compare and contrast the Christian and Islamic view of God. Discuss its implications on the Christian life.
- (4) Sermon Text - 1 Kings 2:1-9

During the exam period, candidates will be asked to preach from their written sermon.

- (5) Instructions for the written assignments: * Plagiarism will not be tolerated!!! You must submit one hard copy and email a PDF file of each written assignment according to the following regulations:
- 1. Use 8-1/2" by 11" letter size papers.
- 2. Use 12-point font (Times New Roman), 1-inch margins, double space, use page numbering, proper footnoting, and include bibliography.
- 3. Both thesis and exegesis papers should be about 25 pages each in length excluding title page and bibliography. The length of the sermon text should correspond to 30 minutes of actual preaching time.
- 4. Use a common academic writing format, and all quotes, and cited information must accompany proper references (i. e. footnotes or endnotes).
- 5. All PDF files must be emailed to kfcpcny@gmail.com with the following instructions:
- a) The subject line must include your name
- b) File attachments must include your name and assignment title. (Ex. SunghoonChoOTExegesisPaper.pdf)
- c) You may send multiple e-mails if your files are too big.

3) Oral Interview

4. Accompanying Documents

- 1) A copy of the certificate of graduation with M. Div. degree or a letter from the registrar (or the president of a seminary) certifying that the candidate is expected to graduate before June 30 of 2017.
- 2) An official copy of transcript for the whole M. Div. program.
- 3) A letter of recommendation from the moderator of a Presbytery that the candidate is under care.
- 4) An official letter from a Presbytery (issued by the clerk) confirming that the candidate under care is in good standing.
- 5) Curriculum Vitae (CV) including a clear history of faith (For example, the year of baptism, the name of the church where the baptism was given and the name of the officiating minister, etc.)
- 6) Two passport-size photos of the candidate.
- 7) Fee: \$150 (USD). Pay to the order of - KFPCNY

5. Instructions for Documents and Written Assignments Submission

- 1) All required documents and written assignments must be submitted by March 31, 2017. (Packages post-marked before March 31, 2017 are valid. No late submissions will be accepted.)
- 2) The candidates will not receive back the submitted documents and assignments.
- 3) The results of the exam will be announced during the 41st meeting of the General Assembly (May 16-19, 2017). The candidates who successfully sustain the examination process will be introduced to the floor and will be given Ordination Candidate Qualification Certificates.

6. Miscellaneous Information

- 1) Candidates must reserve rooms appropriately for the dates of exam (May 12-15, 2017 Anchorage, Alaska) through Rev. Sunghoon Cho.
- 2) Candidates may use personal notebook computers for written exams, but the following conditions must be met:
 - 1. The personal notebook must contain only a Word Processing program.
 - 2. The screen is not to be changed during an exam. Violators will not be tolerated and will result in dismissal from the examination room.
 - 3. One must bring his own printer. Any mechanical problems will not constitute a valid excuse for failing to submit the exam on time.

7. Submission Address

Rev. Sunghoon Cho / Address: 37-60 61st Street Woodside, NY 11377 U.S.A. Cell: (718) 986-8442 E-mail: kfcpcny@gmail.com

8. Contact Persons for Information

- 1) Chair of the Exam Committee : Rev. Rev. Yun Joon Hur (718) 637-1470 (Jameshur63@Hotmail.com)
- 2) Clerk of the Exam Committee : Rev. Sunghoon Cho (718) 986-8442 (kfcpcny@gmail.com)
- 3) Treasurer of the Exam Committee : Rev. John E. Jho (845)598-6757 (drjho@Hotmail.com)

총회장: 고택원 목사

서기: 허상희 목사

고시부 부장: 허윤준 목사

고시부 서기: 조성훈 목사

한인 교회를 위한 기독교 교육 이야기 (125)

7. 한인교회 기독교교육이 가지는 미래적 과제

한인 기독교교육을 위한 비평적 사회학 이야기 (9) (Critical Sociological Involvement in Korean American Christian Education)

정신애 박사
(사카이트리비칼리칼리칼리칼리)



우리는 지금 한인 기독교교육을 위한 그리고 한인 기독교교육에 의한 비평적 사회학적 관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Critical Sociological Involvement in Korean American Christian Education). 이 이야기는 한인 기독교교육을 위해(criticism toward Korean American Christian education) 그리고 한인 기독교교육에 의해(criticism by Korean American Christian education), 우리 안에 깨어지고 불의하고 불건전한 부분들에 대해 침묵하거나 방치하거나 방관하거나 하지 않고 적극적인 일련의 관여(Invovement)를 하는 일과 관련된 이야기임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물질만능주의(Mammonism)"와 "부정부패(Corruption)"에 이어서, 지난 이야기에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깨어지고 불의하고 불건전한 부분들 중에서 "인종차별(Racism/Racial Discrimination)"에

가를 창설하였으면서, 정작 많은 차별과 박해를 당하면서도 따르고자 했던 그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가장 강력하게 행사하게 된 것입니다. 자신들의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설립된 사회에서 그 사회의 정치, 경제, 문화적 주류로서 형성되고 살아 온 백인들의 사상과 삶 속에 도대체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인종 차별의식이 생겨났으며, 사회적으로 용인되고 자행될 수 있었는지 안타깝기가 그지 없습니다. 이들의 청교도적인 신앙이 잘못된 것이 아니었음인데, 순수하고 열정적인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었다고 평가되는 청교도들의 삶을 토대로 진화되어온 백인들의 삶과 사상에서, 인종적 편향과 자유에 대한 확고한 기독교적 가치와 성경적 가르침이 어째서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했단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묻고 해답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상고하여 이를 사교 저변에 새기고 실생활에 적용해야 할 때임을 적극적으로 가르치고 훈련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만이나 아니라 진정으로 내면화할 수 있기까지 가르치고 훈련해야만 합니다. 인종문제에 있어서 백인 기독교인들에게는 명분이 없습니다. 그들 그들의 행태가 성경적으로 분명히 잘못된 것임을 알고 있으며, 이에 대해 반박할 수 없습니다. 사실 백인들도 겉으로는 인종차별이 정죄되지 않은 것이라 말합니다. 또한 백인 기독교인들도 자신들이 잘못해왔으며 모든 인종을 하나님께서 동등하게 창조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마 저도, 너무나 오랫동안 그들의 실제 의식 저변에 우월의식이 존재해왔기 때문인지, 보다 우월한 자신들이 보다 열등한 이들에게 선의와 선처를 베푸는 일로 인지하고, 스스로 선하고 정의롭다는 느낌

인종차별에 대한 기독교교육 관여는 백인들의 진실한 회개와 사죄 있어야 한인들도 백인에 편승하거나 열등의식에서 벗어나 타인종 존중하도록 교육

대한 논의를 하였습니다. 특히 인종차별에 대한 객관적인 사회 비평적 묘사를 다루었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는 지난 이야기를 바탕으로 해서 인종차별에 대한 기독교 교육적 관여의 가능성과 방법을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미국사회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으면서, 오랫동안 미국사회 내 다른 인종들을 차별해 왔으며, 현재도 차별하고 있는 인종은 바로 유럽계 백인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 땅에서의 첫 시작은 종교적 차별과 박해를 견디기 힘들어서 종교의 자유와 차별 없음을 찾아 영국에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이민 온 청교도 기독교인들로부터였습니다. 이는 참으로 아이러니하면서도 마음이 많이 아픈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이러니 한 것은 자신들이 속한 사회의 힘 있는 사람들과 무엇인가 달랐다는 이유로 그들은 차별과 박해를 받았으며, 바로 이 때문에 미국이란 사회를 탄생시킨 당사자들이 바로 그 미국이라는 사회에서 자신들이 받은 차별과 박해를 또다시 탄생시키고 고스란히 답습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 아픈 부분은 그들이 본래 자신들이 속했던 영국 사회의 힘 있는 자들과 달랐던 부분, 즉 차별과 박해의 원인이 되었던 부분이 다름 아닌 종교적 신념과 신앙의 내용이었다는 점입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에 대한 자신들의 신앙과 신념을 지키고자 새로운 사회를, 국

물론 다양한 역사적, 사회적 상황들이 연구되어야 할 것이나, 아무리 기독교적인 신앙에 기반한 사상을 가지고 그에 걸 맞는 삶을 살아가자 했던 이들이라고 해도, 백인들의 인종차별 의식과 행위들은 기본적으로 인간 본유의 이기적인 본성에서 나온 것임에는 틀림없는 듯합니다. 인간 본연의 이기심은 자기에게 사고와 행동을 야기했으며, 모든 것을 자기중심적으로 판단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것들이 그들이 가진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힘과 결합되면서 실질적으로 현실화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나와 같으면 좋은 것, 나와 다르면 나쁜 것이라는, 더 나아가 나와 같으면 우월하게 나와 다르면 열등하게 생각하고 취급하는, 자기중심적이고 유지한 본능적 사고와 행위가 그 기저에 있었으며, 그들이 가진 힘은 누구의 제재도 없이 그대로 이러한 사고 및 행위 기저를 사회의 생활양식으로 표출해낼 수 있도록 했던 것이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인간의 본유적 죄성이 다양한 힘과 결합되어 백인들의 인종차별이 시작되고 고착되어온 것이 사실이라면, 기독교교육은 과연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실상 이 과정에 기독교적인 성찰과 반성은 전혀 없었던 듯 보입니다. 이에 기독교교육이 담당해야 하는 것은 이제는 성경으로 돌아가 인종간의 상호관계에 대해 성경이 가르치는바 정의로운 통찰에 우월하며 또 다른 의미의 우월감을 누리하고자 하는 것이 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그리 되지 않도록 경계하고 또 경계하여 교육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까지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았으며 진심으로 잘못을 빌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인종차별에 대한 기독교교육의 관여는 백인들의 진실한 회개와 사죄가 이루어지는 데까지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실천적으로 기독교 교육이 해야 할 일은 먼저는 인종차별이 성경의 가르침과 정면충돌하는 악한 일이며 죄된 일임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진실한 회개와 사죄를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실생활에서 인종 간 상호편등을 실현하기 위한 실질적 행동양식들을 구체적으로 배우고 훈련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상 진술하게 말하면, 위에서 서술한 기독교 교육적 관여는 우리 한인교회가 해야 할 일도 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이러한 교육적 관여의 당사자들은 백인 주류교회들이며, 이러한 교육적 관여는 백인들의 기독교 교육이 스스로 담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제 그만이라고, 빨리 진정으로 회개하라고, 진지한 인종 간 상호편등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라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백인교회들에게 촉구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는 우리 한인교회만의 뜻과 마음을 모으면 되는 것은 아닙니다. (16면으로 계속)

매일가정예배

전화령 목사(캠보디아선교사)
whiteyou1@yahoo.com

월 복음의 위대한 능력(롬1:15-16)찬404장

발견하고 자기의 전부를 팔아 산 복음을 누구에게나 전하기 원하는 사도는 그 복음의 진가를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첫째, 복음만이 구원을 준다고 했습니다(16). 여기 구원은 죄로부터의 구원인데 이것은 곧 모든 저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죄 사함은 새로운 일의 시작이기 때문에 복음을 아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새 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둘째, 복음을 믿을 때 능력을 받겠다고 했습니다(16). 바울이 복음을 자랑하는 이유는

복음이 범세계적이며 일상의 범사에 효력을 나타내는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복음은 믿음을 요구합니다(17). 아무리 샘물 곁에 서있어도 내 것으로 퍼마시지 않으면 무익한 것처럼 능력의 근원인 복음에 무조건적 믿음을 화합하지 않으면 그 능력을 누리지 못하지만 그것을 얹어놓고 믿기만 하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복음을 적용합니다.

화 복음의 실상(롬1:17)찬403장

복음의 능력은 그리스도인의 전의 삶에 어떻게 나타납니까? 첫째, 하나님의 의로 나타났습니다. 죄에 대한 심판을 대신 담당하신 그리스도의 단번의 죽음이 무엇보다 하나님의 의의 요구를 충족하게 채우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하나님의 의를 백일하에 들어낸 것입니다. 둘째, 믿음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한 번 믿음으로 시작한 삶은 끝까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

박국의 믿음에 관한 질문에 대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하나님의 응답은 벌써 복음의 삶을 분명히 정의했습니다. 이것은 현실이 어떠한지 하나님과 그의 약속을 신실하게 믿고 살아가는 삶입니다(롬3:17-18). 이것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어디 있든 그 표준을 따를 때 하나님의 형상인 의와 신(마23:23)을 나타낼 것입니다.

수 복음의 제 1순위(롬1:18-20)찬405장

사도가 전한 복음의 구조는 어떠했습니까? 첫째,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음을 보여줍니다(18). 진리이신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그들은 불경건한 생각과 불의에 빠져 전적으로 부패함으로 자기혐오로 결국 그 수준에 나아갈 수 없는 무력자가 된 것입니다. 둘째, 배은망덕의 죄 때문에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정직하게 만드셨으나 그들은 많은 죄를 내어

그를 떠난 것입니다(19). 셋째, 창조 속에 그 의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그 낮을 피해 핑계하는 자리에 떨어진 것이 인간의 실상입니다(20). 복음은 인간의 의도적인 반역행위로 절대 저주 가운데 떨어졌음을 분명히 나타냅니다. 그래서 사도의 복음은 이 문제를 제1순위로 다뤘습니다. 복음은 먼저 인간의 전적 부패성을 깨닫게 합니다.

목 인간의 부패성1(롬1:21-23)찬257장

사도는 인간의 전적타락을 세 단계로 설명합니다. 첫 단계, 의도적인 반역(21) - 그는 하나님 의 뜻과 그 증거를 보고서도 영광 돌리거나 감사치도 않았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멀리하고 다른 것과 교제를 즐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둘째 단계-허망한 생각으로 바꾸어졌습니다(21). 빛을 잃은 어두움과 혼란과 공허가 지배하는 인간의 생각은 언제나 자기중심으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허망한 생각은 감정과 지식 그리고 모든 생활에까지 흠미한 인생을 살게 합니다(21). 셋째 단계, 이상숭배 (22-23) - 마침내 그 어두움은 참 경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의 자리를 다른 피조물로 대체하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사도의 복음은 이 문제를 제1순위로 다뤘습니다. 복음은 먼저 인간의 전적 부패성을 깨닫게 합니다.

금 인간의 부패성2(롬1:24-27)찬190장

전적 부패한 인간은 죄를 범하는 죄인으로 나타났습니다. 그가 범한 죄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첫째, 더러운 정욕으로 나타났습니다(24).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됐기 때문입니다. 모든 죄는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짐으로 시작됩니다. 둘째, 그들의 몸을 욕되게 사용했습니다(24). 그 정욕은 인간의 모든 지체, 지성의와 그의 육체의 기능을 모두 자기의 하수인으로 삼아 그 더러운 열매를 계속

맺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속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이 밖을 터뜨린다는 사실을 지적하셨습니다(마7:1-23). 셋째, 모든 정상적 윤리관계를 무너뜨렸습니다(26-27). 그 정욕의 종이 된 인간사회는 모든 순리를 역리로 사용하면서 그것이 옳다고 주장하게 됩니다. 사해에 이 윤리기준 회복을 위해 사신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삽시다.

토 인간의 부패성3(롬1:28-32)찬337장

정욕에서 시작된 죄는 모든 관계에 죄악의 열매를 맺습니다. 사도가 관찰한 21가지의 죄악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첫째, 죄의 시작은 마음에 하나님을 즐길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28). 물을 떠난 물고기처럼 죽음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을 즐기는 길, 곧, 예수를 믿음으로 회복되는 구원을 보여줍니다. 둘째, 죄인에게 나타나는 열매는 셋으로 구분됩니다. 첫째 부류는 불의입니다

(29). 교만과 자기자랑 그리고 배은망덕의 죄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둘째 부류, 무자비함입니다. 시기, 살인, 분쟁, 악독, 능욕, 무정함, 무자비함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셋째 부류는 불신실함입니다(30-32). 이상숭배, 간음, 외식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곧, 의, 인, 신으로 회복됩니다.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해외 교회

강남중앙감리교회 담임목사: 노재현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Tel: (02)525-7767, HP: (017)237-8258 서울시 서초구 서호2동 1330-20	군포제일교회 담임목사: 권태진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주일5부예배: 오후 2:30 저녁예배: 오후 7:30 Tel: (02)264-6754~5 군포시 금정동 870-10호					
금란교회 담임목사: 김정민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www.kumlan.org Tel: (82)2-450-7000, Fax: (82)2-436-5770 서울시 중구 광운동 340-1(131-231)	든든한교회 담임목사: 장항희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금요철야예배: 오후 9:00 Tel: (031)977-8383~9, Fax: (031)977-8382 (우)410-831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1670-1	로마한인교회 담임목사: 한병우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8:00(매일) 새벽기도: 오전 6:00(매일) 금요철야예배: 오후 9:00 Tel: 39-06-827-3585, 39-348-339-1726 39-06-842-8876(교육관) VIA DEI QUINTILI 32-38 00175 ROMA, ITALY	새이덴교회 담임목사: 소강석 주일1부: 오전 7:30 주일2부: 오전 9:30 주일3부: 오전 11:00 주일4부: 오전 12:30 주일5부: 오후 2:30 새벽예배: 오후 5:00(매일) (철민이를 위한 헌대예배) 대표전화: (031)896-1000, 팩스:(031)896-6077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1312번지	성문교회 담임목사: 황정식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전 3:30 새벽예배: 오전 5:00 새벽예배: 오전 6:30 Tel: (02)264-3191~3, (02)264-3184 서울시 강관구 복동2동 520 (142-808)	성실교회 담임목사: 김영복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www.seongsil.or.kr Tel: (02)290-9998, Fax: 3927-1008 서울 강북구 수유동 22-43 (142-073)	성일교회 담임목사: 김정곤 주일1부예배: 오전 5: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후 8:30 (토요일은 쉰다) Tel: (02)2643-8553~4, Fax: 2648-4662 서울특별시 강관구 복동2동 520-10호
수정교회 담임목사: 조일래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30 Tel: (82)32-568-0191, Fax: (82)32-562-2738 인천시 서구 불문동 416-4(404-270)	승동교회 담임목사: 박상훈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수요예배: 저녁 7:00 Tel: (02)732-2341~3, 사택:(02)389-2235 (110-290) 서울시 중로구 신사동 137 번지	시온소교회 담임목사: 김성길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5:00 새벽예배: 오전 5:00(월-토) Tel: (031)253-1004, Fax: (031)253-1010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419-2	신길교회 담임목사: 이신용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Tel: (82)2-842-1968, 사택:(011)82-2-842-1968 서울 영등포구 신길1동 63-3, (150-051)	신천교회 담임목사: 송용결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전 12:50 주일5부예배: 오후 3:00 새벽기도회: 오전5:00/6:00 Tel: (02)418-0481, Fax: (02)422-0751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17길 29(남대문동)	신촌교회 담임목사: 이정익 주일1부예배: 오전 6:00 주일2부예배: 오전 7:30 주일3부예배: 오전 9:3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주일5부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후 5:00/6:00 Tel: (82)2-786-6579, 사택:(82)2-338-5671 서울 마포구 수유동 49-45	안암 제일교회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전 1:30 주일5부예배: 오후 2:50 수요예배: 오후 7:30 심야기도회: 오후 8:30 서울 용인구 제1동 2동 146-7
양곡교회 담임목사: 지용수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40 주일4부예배: 오후 7:30 수요예배: 오전 10:30/오후7:30 새벽기도회(매일): 오전 5:30/6:30/9:00 Tel: (055)210-5500, Fax: (055)210-5510 (841-370)경남 창원시 성산구 월영로 415 www.yangokg.org	왕성교회 담임목사: 김요나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Tel: (82)2-888-4813, 331-284-7204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1641-24 (151-029)	장위제일교회 담임목사: 김기원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3:00 금요심야기도회: 오후 9:30 Tel: (02)842-6881, Fax: (02)842-6882 (136-631) 서울시 성북구 장위동 79-12	주안교회 담임목사: 주승중 주일1부예배: 오전 6:00 주일2부예배: 오전 8:00 주일3부예배: 오전 10:00 주일4부예배: 오후 12:00 주일5부예배: 오후 2:00 주일6부예배: 오후 4:00 주일7부예배: 오후 7:00 인천광역시 부평구 신곡4동 299-1(1403-838)	창대교회 담임목사: 최용도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0:2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Tel: (82)2-482-3536, Fax: (82)2-488-4508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 448-23	청주주님의교회 담임목사: 주서택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00 금요기도회: 저녁 9:00 새벽기도회: 새벽 5:30 Tel: (011)82-2-927-5511 서울 용인구 수지구 용곡동 259-12	충신교회 담임목사: 이진호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8: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전 1:30 주일5부예배: 오후 1:30 Tel: (82)2-793-7740 서울시 용인구 이촌동 302-67 (140-031)

종교개혁 500주년...개혁자들의 발자취를 따라서

-발상지 학습여행 동행기 (1)

종교개혁은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가 당시 교황과 성직자들의 만연한 폐습을 지적한 95개조 반박문을 발표하면서 시작돼 오늘날 개신교의 태동이었다. 그러나 기독교 역사 500년을 맞는 현대 교회는 종교개혁 당시의 종교적 병폐를 방불할 만큼 혼란에 빠져 세상 사람들의 걱정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미주 교계에서 사역하고 있는 기독교 언론사들은 새롭게 교육문과 기도문을 작성하고 모든 크리스천들이 다시 한 번 성경적으로 돌아가길 소원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종교개혁 발상지를 돌아보기로 했다.

본지는 2016년 9월 12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된 '종교개혁 발상지 제 3차 학습여행'(주관 크리스천위클리, 발행인 조명환 목사)에 합류했으며 5회에 걸쳐 그 여정을 연재한다.

출발
로스앤젤레스 LAX 공항에 모인 33명의 일행은 브리티시(British Airways) 항공에 몸을 싣고 런던으로 향해 10시간 비행 끝에 LHR 공항에 닿았다.
현지 가이드의 환영과 인도 속에 M25번 외곽 순환도로를 타고 시내로 들어섰다. 밖은 온통 녹지대를 이뤘다. 산은 아님에도 울창한 나무들이 신선함을 더해 주었

성경을 볼 수 있었고, '세계는 나의 교구'라고 외치며 성공회 사제로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야외 설교를 시작하고 말을 타고 전도하러 다녔던 그의 낡은 구두 등에서도 그의 목숨 건 사역을 엿볼 수 있었다.

웨슬리 채플 1층 입구엔 한국 광림교회 설립자인 김선도 목사의 흉상도 세워져 있었다. 웨슬리 채플이 낡고 조라해지는 것을 보고

도회에 참석하고 울더스게이트 거리에 있는 모리비안 신도회 기도회에 참석했는데, 그들이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읽는 것을 듣고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회심을 경험하게 됐다고 한다. 그날이 1738년 5월 24일. 이후 웨슬리언들은 이날을 웨슬리 회심일로 기념하기 시작했고 지금까지도 매년 5월 마지막 주일을 웨슬리 회심기념주일로 지키고 있다.

필드도 이 대학에 머무는 동안 홀리 클럽에 동참한 것으로 유명했다. 38개 단과대학과 6개의 교육기관으로 연합된 옥스퍼드 대학교는 지금까지 26명의 영국총리를 배출한 학교로도 유명세를 떨치고 있다.

이 대학교에서 가장 규모와 역사가 큰 대학은 웨슬리가 나온 크라이스트처치 칼리지. 이 칼리지에 있는 예배당에서 요한과 찰스 웨슬리는 목사 안수를 받았다. 그리고 웨슬리는 이 대학교의 링컨 칼리지에서 펠로우로 사역하기도 했다.

특별히 크라이스트처치 칼리지에 있는 학생식당, 즉 다이닝 홀(Dining Hall)은 영화 "해리 포터"의 촬영장소로 유명해졌다. 그 식



존 웨슬리 회심 기념비, 런던박물관



옥스퍼드 크라이스트처치 칼리지에 있는 다이닝 홀. '해리포터'의 촬영장소로 유명한 이곳 정면 중앙에 헨리 8세의 초상화가 걸려있다.



웨슬리채플을 방문하고 기념촬영



Queen Elizabeth II 다이아몬드 회년 계단에서 기념촬영

구세군 세계본부, 구세군 참사자 윌리엄 부스는 요한 웨슬리에게 감화를 받아 구세군을 창립한 사람이다.

참회 왕 에드워드가 세운 웨스트민스터 사원, 메소디스트 센트럴 홀, 영국 국회의사당, 런던타워, 영국 박물관, 버킹엄 궁전, 벨슨 제독

의 동상이 우뚝 솟아 있는 트라팔가 광장, 그리고 고호와 모네 등 후기인상파 그림들이 즐비한 내셔널 갤러리 등을 둘러보는 시간을 갖고 프랑스로 향했다.

(이성자 기자) (계속)

웨슬리채플 옆 목사관은 박물관으로...웨슬리의 목숨건 사역흔적 남아

웨슬리의 지성-옥스포드대학교, 영성-울더스게이트 회심의 거리 방문

다. 도시로 들어선 일행은 '스테이크 로스트'(얇은 소고기 스테이크)로 점심을 나눈 뒤 런던시내에서 동쪽에 위치한 웨슬리 채플(Wesley Chapel)로 향했다.

웨슬리 채플(Wesley Chapel)
지금도 정기적으로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 아담한 이 예배당에서 세계 각리교가 임대됐다. 이곳은 '철의 여인' 마가렛 대처 수상이 결혼식을 올린 곳으로 유명하기도 하다.

채플 뒷마당에 웨슬리의 무덤이 있었고 목사관으로 사용되던 채플 옆 2층 건물은 박물관으로 개조돼 웨슬리의 유품들이 전시돼 있었다. 웨슬리의 기도실과 그가 사용하던

광림교회가 재정지원을 자청해 채플의 리노베이션(Renovation)에 기여했기 때문이라고 가이드가 설명한다.

웨슬리 채플 길 건너엔 변형 필드란 공동묘지가 자리하고 있었다. 비국교도들이 묻혀 있는 이 묘지엔 웨슬리의 어머니 수잔나 여사의 무덤, '천로역정'의 저자 존 번연도 묻혀있어 눈길을 끌었다.

웨슬리의 회심의 거리
웨슬리의 회심의 거리를 둘러볼 때 우리에게도 깊은 감동이 전해졌다.

웨슬리는 미국 조지아 선교활동에 실패한 후 런던에 돌아와 있었다. 하루는 세인트 폴 교회당의 기

그 웨슬리 회심의 거리, 울더스게이트를 방문하고 이를 기념하는 조형물이 서 있는 런던 박물관내 '울더스게이트 플래임(Aldersgate Flame)' 앞에서 기념촬영도 했다.

옥스퍼드대학... Dominus Illuminatio Mea(주님은 나의 빛이다)

이튿날 방문단은 특별히 런던에서 약 2시간 떨어진 옥스퍼드대학교를 방문했다. 세계 최고의 명문으로 알려진 이 학교의 표어는 Dominus Illuminatio Mea(주님은 나의 빛이다).

이 학교에서 요한과 찰스 웨슬리 형제가 시작한 홀리 클럽(Holy Club)이 발족됐고 유명한 조지 윗

당 중앙에는 헨리 8세의 대형 초상화가 걸려있었다. 이 옥스퍼드대학교를 케톨릭에서 영국 국교회 소유로 바꿔놓은 장본인이 바로 헨리 8세기 때문이라고 한다.

헨리 8세는 수장령을 발표해 케톨릭과 결별하고 영국 국교회의 문을 연 군주이자 엘리자베스 1세의 아버지이기도 하다.

웨슬리는 이 옥스퍼드 출신으로 최고의 지성을 가진 지도자였지만 울더스게이트의 회심을 통해 영성을 겸비한 겸손한 지도자가 된 것이었다.

대영박물관...후기 인상파 작품 즐기러 발길을 돌린 곳은 런던의

푸/른/초/장

(4면에서 계속)

겉보기와 달랐던 애굽 땅은 그가 살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있을 곳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이었습니다.

1)기회를 따라 결단해야 합니다. 지난 세월 잃어버린 기회에 대한 후회만 하다가 아직도 남아있는 기회마저 잃는 불행한 일이 없어야 합니다. 진작 가나안 땅에 머무르며 하나님의 인도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힘들어도 하나님께 물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불쌍히 여기

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좇아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은혜를 맛보고도 타락한 이들에게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와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 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율2:12).

2)모든 것이 다 돌아와야 합니다. 결단은 전 인격적이고 전 생활적이어야 합니다. 어느 것 하나 세상에 남겨놓을 수 없습니다. 사람도 짐승도 물질도 다 돌아와야 합니다. 몸만 성전에 들어오는 것으로는 안 됩니다.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

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네 쫓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계 2:5). 안하는 것은 아니라도 하는 것도 아닌 것은 '다'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첫 사랑의 마음을 되찾아야 합니다. 돌아와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진정성입니다.

3)결단은 예배가 회복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확실한 결단은 예배의 삶으로 나타납니다.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와 이름을 불렀더라"(창13:4). 하나님께로 돌이킨 자들의 확실한 변화는 예배의 삶에 있습니다. 진지한 자세의 예배에 눈물 젖은 찬양이, 선

포되는 말씀에는 깨달음과 감격이 있습니다. 다시 주의이름을 부르며 기쁨으로 노래하며 감사함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지금보다 열악한 환경에서도 모이기를 힘쓰고 어려운 생활에도 전적으로 헌신하고 더 많은 시간을 드리고자 했던 그때로 돌아가야 합니다. 좀 먼 길이라도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너무 많이 벗어났습니다. "사무엘이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돗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삼상7:3).

(15면에서 계속)

진정으로 이 문제에 대해 주도권을 가지고 목소리를 내야 하는 집단은 사실 백인교회 외에 모든 다른 인종들의 교회들이며, 모두가 연합하여 한 마음 한 뜻으로 인종 간 상호 평등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성경의 가르침을 다시금 상기시키고, 회개하여 이를 실천하도록, 그리고 이를 위해 교육하도록 촉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더 중요한 일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한인들 스스로도 다른 인종들을 존중하고 인정하고 평등하게 여기고 대하고, 그리하도록 교육하는 일입니다.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 서툴러서 혹은 백인들의 인종차별적 사고와 행위들에

편승하여 괜히 다른 인종들과 갈등했던 우리 한인들도 진심으로 회개하고 진정한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온전히 동참해야 합니다.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평등하게 창조하신 모든 인종들이 똑같이 고귀하고 소중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임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또한 인종차별의 경험들 속에서 자라난, 우리들 스스로가 가진 백인들에 대한 패배적 열등의식에서도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훈련하는 것이 바로 가장 적극적으로 우리 한인기독교교육이 인종차별에 대해 정의를 관여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sinaichung@yahoo.com

실천적 복음주의 신학의 새로운 물결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학위과정:

성경사역학철학박사 PhD / 목회학박사 DMin / 교육목회학박사 DEdMin / 목회학석사 MDiv

미남침례교단 6대 신학대학원 | 탁월한 교수진 | 저렴한 등록금 | 한국부 450명 재학 | HLC & ATS 정식인가 | 상시입학 | 100% 한국어 강의 | 1-20 발행



for the Church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미드웨스턴 한국부 사무실
이미경 간사 1-816-414-3754; ks@mbts.edu; www.mbts.edu

